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8년 8월

박사학위 신청논문

# 셰익스피어 소네트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 영상매체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조 이 경

셰익스피어 소네트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 영상매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ertextuality of Shakespeare's Sonnets  
:Centered on Visual Media

2018년 8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조 이 경

셰익스피어 소네트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 영상매체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조 동 렬

이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조 이 경

## 조이경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u>추영식</u>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정옥희</u>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장금희</u>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최한용</u>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조동열</u>	(인)

2018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I. 서론 .....	1
II. 소네트와 영상물의 상호텍스트성	
1. 소네트와 영상물 .....	8
2. 상호텍스트성 원전으로서 소네트 .....	22
III. 소네트와 청소년 영상물	
1. 소네트의 이니시에이션 개념 .....	24
2. 시트콤과 영화의 이니시에이션 맥락 .....	28
3. 소네트와 성장영화 .....	51
IV. 셰익스피어와 동성애 문화 콘텐츠	
1. 소네트와 동성애 영화 .....	55
2. 소네트 화자의 동성애적 경향 .....	58
3. ‘논란’을 ‘암시’로 재현한 영화, <웨이스트 오브 세임> .....	70
V. 미국 SF영화, <스타트랙>의 셰익스피어	

1. <스타트랙>의 변천과정과 문학적 맥락.....	81
2. <스타트랙>에 인용된 소네트의 사회윤리성.....	83
3. 소네트의 사회적 의미.....	101
<b>VI. 결론</b> .....	<b>103</b>
<b>【참고문헌】</b> .....	<b>109</b>

## ABSTRACT

### **A Study on the Intertextuality of Shakespeare's Sonnets :Centered on Visual Media**

Cho Yi-kyung

Faculty Advisor : Prof. Cho Dong-ryul, Ph.D.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Shakespeare's sonnets hav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other genres of art for about 400 years with their themes of innocent love and bisexual attraction, but only a part of them was quoted owing to the homophile aspects implicated in the work. Also, researchers have been most interested in the real person to whom the poetry was dedicated, but could not continue more discussion in depth because the information of the poet's biographical fact was extremely inadequate. However, the films created based on the text of these poems refer to what has been treated negligently, which elucidates the existence of intertextuality.

The second chapter aims to observe the idea of love in Shakespeare's sonnets in the light of modern romance films. As Shakespeare argues in the poems, the real human love can come true merely by seeing the reality through the rational judgment on the contrary to the lust depending on the sense of sight or so, and the lovers should preserve youth and beauty ultimately by giving birth to their children through

married life. Also, I learn another lesson that their sincere love begins when accepting what they are rather than what they are conventionally supposed to be.

The third chapter illuminates the themes of sexual initiation overlooked so far by analyzing these sonnets from a new angle and discusses that they have the value to be utilized for the educational purpose through films. Shakespeare's sonnets have been quoted partly in the adolescent films owing to the controversy over the poet's homosexual aspect. However, this poetry has enough educational values through the sexual initiation. For the research method, the researcher observes the continuity and initiation context of this work mostly by examining the former part of the sonnets and then discovers that these sonnets can deliver correct values about the sexual issues with their Petrarchan romance and bisexual attraction by looking into their latter part. In conclusion, it is emphasized that Shakespeare's sonnets, as well as his plays, are to be used for the coming-of-age films more. Even the classic work of poetry must be dramatized as a movie that cultivates adolescents' creative and critical thinking when its dramatic continuity is acknowledged, moreover available as a more helpful educational tool to teachers.

The fourth chapter aims to reconsider Shakespeare's biographical facts related to the homophile aspect of his sonnets and present new ideas through the contents of the intertextuality of some films. As a method, I forecast new issues about this poetry and introduce current opinions of the narrator's sexual tendency, reanalyzing them given the attributes of poetic genres and the biographical background. Next, I discuss the situations represented by the film intertextuality through the movies dramatizing and parodying the text. Conclusionally, there can be

reasonable assumption regarding why the poet left home, why he did not move his family to London, whether the homosexual relationship is possible without a sexual act, whether a bisexual person's action is antinomic, and what the inside story of emphasizing childbirth is. Moreover, this chapter diagnoses if it is possible that this poetry will be developed into an original text of film intertextuality.

The fifth chapter, as an academic attempt of fusion and complex research betwee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eveals the *Star Trek* TV and film series heralded the America First idea of President Trump, who inaugurated in 2017, more than 20 years before. *Star Trek* has become an icon representing the modern American culture rather than a mere entertaining show, having produced 6 generation TV series and 13 films for 51 years from 1966 to current 2017. Interestingly, Shakespeare's literature affected the works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entirely until 1994 regarding theme and quotation, but continued decreasing and nearly disappeared in those after the third generation. The first half of the 1990s, a turning point of this situation, saw the cessation of the cold war and the full-scale development of computer science and technology lead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lso, the zeitgeist of that time was globalism, that is, the thought that all the countries should accept the difference between each other and give priority to the world peace. However, the process of transition of the series of *Star Trek* did not say so. This chapter aims to discuss the organic relations between Shakespeare's literature and *Star Trek* series based on *The Sonnets* that is characteristic of the social and ethical plurality in the light of the recent research that connects literature and social science. As a research method, firstly, I look into the contents where Shakespeare's writing is quoted in the *Star Trek*

series and argue that the plurality of *The Sonnets* corresponds to globalism by analyzing the text. Moreover, I observe the phenomenon of the gradual decrease of both the quotation of The Sonnets and globalism after exemplifying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 forerunner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efore and after the middle of the 1990s. Besides, the conclusion expatiates and emphasizes the intertextuality, a result of the plurality of the works.

These ethics of the poet's that he wants to distinguish love from lust are interestingly emphasized even 400 years after his days, but not covered by many scholars. This thes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finding a way to produce educational films with the help of the connectivity of the sonnets. As to the expected effect, the scholars of fusion and complex research are likely to relearn that literary works and films function as a mirror fixed to the reality of the times.

## I. 서 론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각 시대마다 대중의 취향에 맞는 공연과 영화로 각색되어져 왔으며 지리적으로는 영국과 미국을 벗어나, 보다 국제적인 제작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21세기에 이르러서는 현 시대의 사회적·문화적 이슈들을 반영하면서, 그의 텍스트들이 대중적 문화기법에 의해 소통의 도구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의 희곡 작품들이 자주 각색되어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또다시 새로운 버전으로 그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우려를 자아낼 수도 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소네트』(Sonnets)는 그의 희곡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시로서, 새로운 방식의 이미지를 탐구하는 공연매체의 제작자와 연출가에게, 소네트 154편은 다양한 영감을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각각의 소네트에는 서로 다른 스타일을 담아내고 있는데, 이를테면 공포스러운 맥락의 어두운 주제가 있고, 거의 슬랩스틱에 가까울 정도의 코믹한 이미지도 있으며, 본능적인 느낌의 매우 관능적인 표현들도 있다. 이러한 내용은 시를 읽는 동안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에 빠져들게 하고, 영상물과 무대를 통해 서사적인 표현을 나타내게 하였다.

탈권위와 탈중심적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문화적 환경은 문학 원전과 예술 작품에 대한 여러 의미 있는 상호텍스트적 해석과 접근을 할 만한 가치를 부여해 준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원전으로 새롭게 시도된 공연과 영화는 후대의 독자와 예술가들로 하여금 셰익스피어가 의도한 주제들이 어떻게 재현되고 변형되었는지를 구별하여 감상할 수 있게 해주고, 예술가의 코드로 옮겨진 작업을 관찰하여 소네트와 좀 더 폭넓은 문화적 상호텍스트성의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란 용어를 처음 도입한 이는 1960년대 루마니아 출신 프랑스 비평가이자 사상가인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이다. 모든 텍스

트는 인용의 모자이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텍스트도 다른 텍스트의 흡수이자 변형이라는 것이다(Kristeva 36). 작가는 이미 무수한 상호텍스트성이 교차하는 의식의 주체이며, 독자는 또 나름의 상호텍스트성이 교차하는 의식의 주체로서 작품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기서 작품은 각각의 다른 문화와 연관되면서 상호텍스트적 관계가 무한히 다양한 확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호텍스트성이라는 개념의 기원은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언어 이론의 핵심인 기호에 대한 설명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바흐친(Михаил Михайлович Бахтин)의 이론인 텍스트 속의 각 인물들은 작가의 세계에서 벗어나 각자가 의식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는 대화이론으로 연결되어 있다. 크리스테바는 바흐친의 소설 이론들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상호텍스트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녀는 그 어떤 텍스트도 인용의 모자이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텍스트도 다른 텍스트의 변형이자 흡수라는 것이다(Kristeva 36).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은 상호주관성의 개념을 대체하고, 시적 언어는 최소한 이중적으로 읽힌다고 하였다(Kristeva 37).

즉, 크리스테바는 텍스트의 의미를 도출해 내는 과정에 있어서 저자 못지않게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텍스트는 완결된 상품이 아니라 끊임없는 새로운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바르트(Roland Barthes)는 독자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여 생산의 주체로서 단일하고 신적인 의미의 저자를 배제하고, 각각의 개별 독자를 텍스트 의미 생산의 새로운 주체로 제시했다.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에 입각한 새로운 의미가 전개되고 확대되어 독자가 자유롭게 생산하는 텍스트 읽기를 해방이자 즐거움으로까지 제시하였다(Barthes, *The Rustle of Language* 64).

바르트는 그의 에세이 “저자의 죽음”(The Death of the Author)에서 저자의 부재(removal)를 진정한 ‘거리두기’(distancing)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자는 문학적 무대 저 끝에 있는 단역 배우처럼 축소된다고 하였다. 텍스트 속의 그 모든 단계에서 저자가 부재하도록 만들어지고 읽혀진다는 것이다. 또한 시간도 더 이상 같은 시간이 아니고 저자는 항상 자신의 책에서 과거로 간주되며 이렇게 저자가 멀어지면 텍스트를 ‘해독’(decipher) 한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쓸모없는 것이 된

다는 것이다. 텍스트에 저자를 부여한다는 것은 비평에 걸맞는 개념이며, 그러한 비평은 작품 내에서 ‘저자’ 혹은 작품에 있어서 저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사회, 역사, 심리 등을 발견해내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게 된다. 바르트가 지적하는 바에 의하면 오늘날 비평은, 신비평을 포함하여, 저자와 함께 붕괴되어 가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풀어 나가야’(disentangled) 하는 것이지 ‘해독’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았다(Ibid 147). 텍스트는 수많은 문화에서 온 복합적인 글쓰기들로 이루어져 서로 대화하고 풍자하고 반박하면서, 이러한 다양성이 집결되는 한 장소는 바로 독자라고 하였다(Ibid 148). 이러한 바르트의 상호텍스트성 개념을 통해 현 시대의 문학과 예술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하나의 텍스트가 다양하고 무한대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의미의 연쇄 반응이 미술,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텍스트가 무한대의 의미를 갖는다는 개념은 소쉬르의 기표의 유희와 관련되어 있다. 기표의 유희는 절대적인 상호텍스트성으로서, 차이와 연상의 망을 이루고 있는 기표들의 상호작용이 무한한 텍스트의 연쇄작용을 일으키게 한다. 이것은 바르트의 상호텍스트성과도 연결되는 점이며 현대의 문화를 분석하는 시도와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앨런(Graham Allen)은 바르트에 대한 비평서에서, 바르트와 크리스테바의 주장을 언급하며 보편적 사회의 일반 독자들은 모든 텍스트에 대해서 명확하고 해독 가능하며 한정된 의미가 있다고 믿기를 원한다고 하였다(Allen, *Barthes* 152). 앨런 자신은 상호텍스트성의 이론에 대해서 상호텍스트성이 통제할 수 있는 용어인지 아닌지, 상호텍스트성의 중심을 저자나 독자, 아니면 텍스트 자체로 볼 것인지 등등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Allen, *Intertextuality* 59). 이와 유사한 언급을 하였던 켈러(Jonathan Culler)는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은 작업하기에 힘든 개념이라고 강조하면서 텍스트가 문화적 배경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였다(Culler 104).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켈러나 앨런과 같은 비평가들은 바르트가 말하는 저자의 죽음은 즉 문자 그대로 저자의 역할을 부인하면서 텍스트의 폭발적 의미의 해석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다루었던 크리스테바와 바르트의 개념에 중점을 두고서, 저자를 부인한다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한정시키지 않을 것이다. 텍스트가 재현되고 인용되는 형식을 통해 상호텍스트성을 드러내어, 시공간이 다르고 표현 장르가 바뀐 환경에서 창조적이고 생산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소네트가 발간된 지 400주년이 되는 해인 2009년에 피스터(Manfred Pfister)와 구취(Jürgen Gutsch)는 셰익스피어의 명성을 기념하여 『소네트 시집』을 70개 언어로 번역하여 출간하였고,<sup>1)</sup> 몇몇의 유명 연출가들은 셰익스피어의 시를 극적 버전으로 무대화하거나 영화에서는 미적 표현 수단으로 활용하는 시도를 하였다. 예를 들면, 극의 경우 브룩(Peter Brook)의 <사랑은 나의 죄>(Love is My Sin)는 31편의 셰익스피어 소네트를 배열하여 사랑과 질투와 상실의 드라마로 만들었다. 두 명의 배우가 출연하는 단막극으로서 31편의 소네트를 4편으로 나누어 남녀 사이의 지속적인 사랑을 칭송하고 이별의 고통을 표현해 냈다. 베를린 앙상블(Berliner Ensemble)과 함께 로버트 윌슨(Robert Wilson)이 연출한 <셰익스피어 소네트>(Shakespeare's Sonnets)는 25편의 소네트를 무대화한 음악극으로 2009년 베를린에서 초연되었고 아방가르드 거장의 독특한 연출과 팝스타 웨인라이트(Rufus Wainwright)의 아름다운 음악과 더불어 베를린 앙상블 극단의 밀도 높은 표현력으로 대단한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서정적인 영화로 각색된 자먼(Derek Jarman)의 <천사의 대화>(Angelic Conversation 1985)에서는 14편의 소네트가 낭송되며, 천천히 움직이는 느린 화면을 통해 전해지는 회화적 이미지와 꿈을 꾸는 듯한 환상적인 풍경 속에서 한 젊은이가 동성애적 사랑을 찾아가는 내용인데, 독특하고도 도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었으며 기술적, 미적 측면에서 소네트의 내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한편 소네트의 내용을 일관성 있는 줄거리로 해석하고 소네트를 출판 순서대로 영화화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맨해튼(Manhattan)과 파이에트 카운티(Fayette

---

1) Manfred Pfister and Jürgen Gutsch, eds., *William Shakespeare's Sonnets for the First Time Globally Reprinted: A Quatercentenary Anthology* (Dozwil TG: EditionSIGNATHUR, 2009)

County) 코넬스빌(Connellsville)에 있는 ‘72번가 영화사’(72nd St. Films)의 사장 제프 모나한(Jeff Monahan)과 피츠버그에 있는 ‘컵에이조 제작사’(Cup-A-Jo Production)의 설립자인 로(Joanna Lowe)가 바로 그들이다. 두 사람 모두 작가이자 제작자이며 감독과 배우이다. 그들은 모나한의 영화, <시체>(Corpsing)(미개봉작)에서 함께 작업하기도 했으며, 피츠버그(Pittsburgh) 영화제작사에서 ‘클로클루 스튜디오’(Claochlu studio)를 만들고 2012년 초에 <호스피탈리티 스위트>(Hospitality Suite)를 발표했었다. 어느 순간 그들은 셰익스피어 소네트를 영화화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며, 모나한은 “사람들은 소네트를 재편성한 순서로 공연을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서술해내려는 시도를 해왔지만, 출판된 순서대로 단일 프로젝트를 시도해 본 적은 없다”고 했다(Kalson). 또한, 로는 “우리는 학자, 음악가, 작곡가, 시인, 배우 등의 여러 사람들이 소네트를 이야기하는 방법을 이해하려고 하며, 심지어 필요하다면, 카네기 멜런 공과 대학의 로봇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덧붙여서 “우리의 목표는 각각의 시가 담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영화화해서 관객들이 전문적인 학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어지는 주제를 따라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Kalson).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바탕으로 작업한 작품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원작의 주제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충실히 재현해냈는가 이었다. 소네트에 있어서 기존의 비평들은, 희곡이 아닌 시의 특성상, 셰익스피어 자신의 이야기를 밝혀내려는 시도를 하거나, 시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젊은이(the young man)와 후반부의 검은 여인(the dark lady)이 시인인 작가와 애정의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가정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에드먼슨(Paul Edmonson)과 웰스(Stanley Wells)의 연구에 따르면, 젊은이와 검은 여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인들(rival poets)이 셰익스피어의 생애와 관계가 있는 실재 인물들이라는 증거도 없지만 셰익스피어가 상상해낸 가상의 문학적 인물들이라는 분명한 증거도 없으며, 소네트 시의 대상자 즉 수신인(addressee)이 여러 명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Edmonson & Wells 31).

그러나 본 논문의 목적은 셰익스피어의 창작의도를 존중하기보다는 16세기의

문학 작품으로서 텍스트 중심의 문헌 연구 영역을 넘어서 문화적 담론으로 연구를 확장해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에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연구하는 것이다. 텍스트와 관계된 저자와 독자, 텍스트의 해석과 새로운 창조, 작품의 동시대 문화를 뛰어넘어 다른 시대, 다른 문화와의 관계가 문학에서 벗어나 회화나 연극, 영화, 음악, 건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특정 문화를 배경으로 작품을 재창조하거나 재구성하는 활동은 원전의 이단이라 여겨지는 작품들의 예술성과 그에 따른 성취와 가능성을 연구하여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셰익스피어의 비평에 관한 여러 담론들과 영화와 공연 비평, 그리고 문화 연구 간의 개념과 상호작용에 대해 검토하여 소네트의 상호텍스트성을 도출해 낼 것이다.

II장은 상호텍스트성의 원전으로서 소네트가 영향을 주었던 대표적인 문화장르를 소개하고, 그 구체적인 면모를 원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고찰한다. 음악과 영상물 그리고 소설에 이르는 수많은 예술품에 소네트의 이야기는 사랑에 대한 찬가와 비가로 이용되어왔으며, 현재와 미래에도 그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특히 사랑과 고난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영화에서 소네트가 붙어 넣고 있는 영향이 인간을 성숙하게 하는 모티브가 될 수 있음을 찾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소네트에 중점을 두거나, 소네트가 주제를 이끌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 대상 영상물들을 조사하여 소네트에서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는 이니시에이션 맥락을 통한 청소년 영상물의 가치를 논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IV장에서는 논란이 되어왔던 셰익스피어의 성적 지향에 대하여, 그의 전기적 사실들을 가늠해 보았던 연구들을 살펴보고, 관련된 영화들의 상호텍스트적인 내용을 통해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복합적 시도로서 공상과학 영화, <스타트렉>(Star Trek) 시리즈가 미국 자본에 종속된 정치적 의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본 논문은 셰익스피어 소네트가 함유하고 있는 내용과 함께 시적인 이미지들이 재창조되어 녹아들어간 공연무대와 영상매체들을 살펴봄으로써, 문학적 성과를 넘어서 시공간이 다른 문화의 장에서 펼쳐지는 소네트의 다양한 예술성과 새

로운 역할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소네트와 공연·영상작품의 상호 텍스트성과 문화 콘텐츠 보고(寶庫)로서의 소네트를 연구하는 과정이 될 것이며 소네트의 상호텍스트성을 파악하여 현대의 다양한 문화에 생산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 II. 소네트와 영상물의 상호텍스트성

### 1. 소네트와 영상물

독자나 비평가들은 소네트의 주제를 사랑과 아름다움, 동성애의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우정의 묘사가 두드러진 시라고 여겨왔다. 셰익스피어와 그의 친구들이 사석에서 읊었을 만큼 이 소네트는 사랑스런 유머가 있기도 하지만, 동성애적 상황을 다루는 바람에 소외된 성적 소수자들의 애환과 그 과정에 나타난 폭력성 그리고 야수적 본능을 담고 있으며, 그 흔적을 오늘날 여러 문화장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작품이 찬가와 비가가 교차되는 인간의 실제 사랑이야기를 상호텍스트성의 형태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먼저 연극과 영화 등 공연예술에서 <운명과 남자의 눈>(Fortune and Men's Eyes)은 허버트(John Herbert)가 저작하고, 로텐버그(Rothenberg)가 제작하여 1967년부터 약 1년 동안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된 연극이다. 이후 1971년에 영화감독 하트(Harvey Hart)는 그것을 1971년에 영화로 만들어 관객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주인공 스미티(Smitty)는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복역하던 중 록키(Rocky)와 동성연애를 경험하고 결국 성적 노예로 전락한다. 평론가 휘트테이커(Whittaker)은 이 작품이 “우리의 더러운 린넨을 이웃의 뜰에서 세탁하는 예술”(the art of washing our dirty linen in the neighbor's yard)이라고 표현하며, “오랫동안 간직했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전제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asks deeply disturbing questions about long-established personal and social assumptions)고 하였다(Whittaker). 이 작품은 소네트 제24편에서 “내 눈은 작품을 우아하게 할 재주 없어 / 보이는 것은 그러도 마음은 몰라라”(eyes this cunning want to grace their art / They draw but what they see, know not the heart)고 노래한 것을 동성연애의 경우에 적용한 것이다.

음악분야에서는 영국의 가수 겸 작곡가 스팅(Sting)이 그의 두 번째 앨범 <태양과

다르다》(*Nothing Like the Sun*)를 제작하여, 1987년 10월에 A&M을 통해 발표했다. 팝 락, 소프트 락, 재즈, 레게, 세계 어쿠스틱 락, 댄스, 펑크 락을 망라한 이 작품은 소네트 제130편 중 “내 여인의 눈은 태양과 다르다”(My mistress’ eyes are nothing like the sun)에서 그 이름을 차용할 만큼 이 시의 영감을 전하고 있다. 특히 스팅은 노래 “달 자매”(Sister Moon)의 작곡배경에 있어서 한 남자가 술에 취해 달의 아름다움을 거듭 말했던 것을 언급하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더할 나위없는 간절함을 표현한다. 나아가 소네트 제1편 세 번째 행에서 그 타이틀을 얻은 텔레비전 영상 시리즈 <사랑스런 오월의 꽃봉오리>(*The Darling Buds of May*)의 20편 이야기들은 이러한 음악적 요소를 잘 이용하여 결혼한 사람들의 소박한 사랑이야기를 전해준다. 또한 코미디 <사랑의 헛수고>(*Love’s Labour’s Lost*)에 소개되어 유명해진 댄스 곡 “당신에게 반했습니다”(I’ve Got a Crush on You)는 원래 희곡 제4막 3장에서 신사들이 사랑의 시를 읊는 것을 대신한다.

소설로 재현된 상호텍스트성 작품으로서 베이츠(H. E. Bates)의 『사랑스런 오월의 꽃봉오리』(*The Darling Buds of May*)는 제13편, 머거리퀴(Malcolm Muggeridge)의 『버려진 시간의 연대기』(*Chronicles of Wasted Time*)는 제106편, 롱포드(Elizabeth Longford)의 『자갈해변』(*The Pebbled Shore*)는 제55편, 모티머(John Mortimer)의 『여름철 약속』(*Summer’s Lease*)는 제18편, 프루스트(Marcel Proust)의 『지나간 것들에 대한 기억』(*Remembrance of Things Past*)은 제30편, 윌헬름(Kate Wilhelm)의 『사랑스런 새들이 늦게 노래하는 곳』(*Where Late the Sweet Birds Sang*)은 제73편, 크리스티(Agatha Christie)의 『봄에 나는 없었다』(*Absent in the Spring*)은 제98편, 버지스(Anthony Burgess)의 『태양과 다르다』(*Nothing Like the Sun*)는 제130편, 렌델(Ruth Rendell)의 『그리고는 더 이상 죽지 않았다』(*No More Dying Then*)는 제146편, 존슨(Pamela Hansford Johnson)의 『내가 소유하기에 너무 사랑스럽다』(*Too Dear for My Possessing*)는 제137편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소네트에 반영시켰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분명한거나 확실한 증거는 없다. 다만 소네트의 정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시 언어들이 현대의 독자와 예술가들의 호기심을 여전히 자극하고 있고 독자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소네트와 동일시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

고 있다. 바르트가 상호텍스트성에 대해서 언급한바와 같이 “. . .내가 호출하는 것이 아닌 그냥 내게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것이 프루스트이든 신문이든 텔레비전 화면이든 간에 무한한 텍스트를 벗어난 삶의 불가능성. 책은 의미를 만들고 의미는 삶을 만든다”(Barthes, *The Pleasure of Text* 36)는 개념은 또 다른 측면에서 소네트의 활약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과 소네트의 강점은 작품에 담긴 강한 정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파악하고 말할 수 있는 이성을 강조한다는 데 있다. 특히 그의 소네트에서 시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노예가 되어버렸다고 선언하면서도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려는 합리적 사고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시인은 상대방이 배신을 한 경우에 실망감을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음을 말함으로써 어찌면 인간의 가장 솔직한 감정을 차가운 이성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 셰익스피어 소네트의 구성은 전체 154편 중 전반부 126편은 한 젊은 남성에게 대해 사랑을 노래하고, 제127편에서 제152편까지 후반부 26편은 사랑의 대상이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하더니 그녀가 앞의 남성과 동침한 사실들에 대해서 분개하면서도 자신의 욕정을 다스리겠다는 결심을 내보인다. 그리고 나머지 2편의 내용은 후반부의 내용을 우화로 표현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앞에서부터 17편의 소네트가 젊은 남성에게 혼인을 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내용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유행한 전염병의 여파로 아이들의 출산이 장려되었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도 읽혀지지만, 문란해질 수 있는 욕정을 결혼생활을 통해 제어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질 수밖에 없는 성적 능력이 생산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윤리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제78편에서 제86편까지의 9편의 시에 다른 시인들을 등장시켜 자신과 경쟁하도록 하게 함은 젊은 귀족으로부터 명예와 재산을 얻기 위한 셰익스피어의 속셈도 엿보이지만 그의 소네트는 남녀 간의 성행위가 정신적 공감대에 기초한 애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 같은 취지에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음악과 연극으로 변주한 작품들인 존 맥케이(John McCay)가 감독한 TV드라마 <웨이트 오브 셰임>(A Waste of

*Shame*, 2005)과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가 생산한 희곡 『소네트의 다크 레이디』(*The Dark Lady of the Sonnets*, 1910), 그리고 여러 음악가들과 연기자들이 공동으로 편집한 모음앨범 <사랑이 말할 때>(*When Love Speaks*, 2002)가 이와 같은 애정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400여 년 동안 소네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낭송되어왔고, 최근에도 희곡과 영화 그리고 TV 드라마에서 많이 인용 또는 전용되고 있다. 이미 상영된 영화들에 나타난 소네트의 영향을 분석하는 일은 가능하고 설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TV 드라마를 포함한 수많은 로맨틱 영화들이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물론이고 소네트를 변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 인용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이 시에 나타난 애정관은 거의 모든 로맨스 작품들의 주제가 된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 나타난 애정관이 무엇인지를 로맨스 작품들에 나타난 주제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진정한 사랑은 시각과 청각 등 감각에 의존한 욕정과 다르게 이성적 판단에 따라 실재를 볼 수 있을 때만 실현 가능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결혼생활을 통한 2세 출산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윤리관은 성적 자유의식이 팽배한 21세기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고방식일는지 모른다. 하지만 현재의 로맨스 작품들에서도 젊음과 아름다움이 영원히 지속되지 못함을 강조하며 진지한 사랑이 돈과 외모에 기초한 인습에 매이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상대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 실현가능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가 현대 로맨스 영상 작품들과 공유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 것이다.

영화에서 소네트의 효과적인 영향은 셰익스피어 극의 등장인물들이 어떤 장면에서 하게 되는 대사를 소네트로 대신하는 것이다. 시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게 된다면 현실의 삶 속에서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한 관계의 근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영화상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바꾸어서 그렇지 못한 상황을 연출해 낸다. 제멋대로 구는 것을 묘사하며 아주 가끔은 속임수를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드러낼 때이다.

『센스 앤 센서빌리티』(*Sense and Sensibility*)의 저자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이 소설 속에서 소네트를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셰익스피어풍의 여배우로 알려진 엠마 톰슨(Emma Thompson)은, 대만 출신인 앙 리(Ang Lee)감독이 연출한 같은 제목의 영화에서 5년 동안 각본을 썼으며 이 작품은 상업적으로도 매우 성공을 거두었다. 톰슨의 각색본에서는 극중의 여동생, 마리엔(Marianne)의 지나치게 감상적인 성격을 묘사해 내는 장면을 위해 소네트를 도입하였다. 철없는 마리엔이 폭우 속에서 다쳤을 때, 잘생겼지만 비겁한 윌러비(Willoughby)가 그녀를 구해주게 된다. 윌러비가 마리엔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찾아왔을 때 테이 블위의 소네트 시집을 발견하고 반가워한다. 마리엔은 가족들에게 곧잘 소네트를 낭송해주는 것을 좋아했는데, 윌러비가 다가와서 소네트 제116편에 나오는 “진정한 마음의 결혼”(marriage of true minds)을 함께 암송하게 되는 장면은 당연히 사랑이 싹트게 되는 암시를 주고 있다. 소네트의 한 단어에 대해서, 윌러비가 “폭풍”(Storms)라고 기억하는 단어를 마리엔은 정확하게 “템페스트”(tempests)라고 주장한다. 셰익스피어에 열광하는 이들의 “감수성”(sensibility)이 가족들에게, 특히 “감각”(sense)의 화신으로 여겨지는 언니, 엘리너(Elinor)에게까지 우월감으로 비쳐진다. 이 영화는 엘리너의 관점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오스틴의 원작을 잘 모르는 관객일지라도 이렇게 나타내는 문학적 감정이 사실 매우 알팍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고 그들의 사랑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할 거라는 예측을 하게 된다. 결국 윌러비가 더 부유한 여자를 만나자 마리엔을 저버린다. 마리엔은 윌러비를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죽으려고 하며 바로 그 순간에 소네트 제116편을 암송하며 침통함을 표현한다. 시에 무관심해서 거절당했던 건실한 구혼자가 그녀를 구하게 된다.

윌러비처럼 누군가를 특별하게 유혹하려는 사람은 소네트의 번호를 언급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장난기 있게 무관심한 척 하다가 갑자기 상대를 놀라게 한다. 영화 <어쩌면 베이비>(Maybe Baby)(벤 엘튼 감독, 2000)는 남편 샘(Sam)과 아내 루시(Lucy)가 아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임신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다가 위기를 맞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코미디 영화이다. 직장에서 루시는 잘생긴 직장동료 칼(Carl)이 자선행사에서 무엇을 읽을까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하자, 소네트 제18편을 ‘최고의 애정시’라고 하며 제안

한다. 그러나 칼의 멍한 표정을 보고, 루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망설이다가 소네트 제18편의 첫 부분을 직접 암송하기 시작한다. 그때 갑자기 칼이 매력적인 목소리로 뒤이어 나머지 부분을 모두 암송해버리게 되는데, 루시는 그러한 동료에게 완전히 매료된다. 옆에 있던 레즈비언인 동료 직원도 그가 암송하는 것을 듣고 칼에게 “당신은 내가 이성애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위험하다”고 하며 놀란다. 멋있고 잘생긴 직장 동료를 좋아하는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샘은 고민하게 되는데, 샘도 역시 소네트에 의지해보려고 하며 제116편을 선택한다.

BBC가 기획하였던 ShakespeaRe-Told시즌에서 현대적 버전으로 제작된 <헛소동>(Much ado about nothing)의 파생 버전에서 베아트리체(Beatrice) 아날로그와 베네딕(Benedick) 아날로그 사이의 장면에서 소네트 제116편이 숨쉴 좋게 삽입되었다. 언뜻 보기에는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의 낭만적인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일 뿐인 것 같지만, 그들은 각각 상대방이 사랑에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들 각자 극도로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서로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함께 소네트를 읽는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가 직접적으로 활용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BBC가 2005년 11월에 방영했던 시리즈 ‘셰익스피어 리틀드’(Shakespeare Re-told)의 네편 작품들—<헛소동>(Much Ado About Nothing), <맥베스>(Macbeth), <말괄량이 길들이기>(The Taming of the Shrew), <한여름밤의 꿈>(A Midsummer Night's Dream)—을 꼽을 수 있다. 특히 <헛소동>은 소네트 제116편을 그대로 인용하여 작품의 중심주제인 진정한 사랑의 연속성을 피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어려운 난관에 쉽게 휘말리는 애정은 한낱 욕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서로를 증오하는 사이에 있었던 베아트리체와 베네딕트가 이 시를 낭독하는 가운데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소네트 제116편은 사랑을 고백하는 어떠한 대사보다 훌륭하게 이용되고 있다. 즉 이 시는 이미 서로에게 실망했던 상대를 위협하거나 사랑을 강요하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결혼의 심각한 주제로 이어질 수 있는 진지한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두 사람이 과거의 실수를 거울삼아 훔

씬 성숙해진 모습으로 변모해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로맨스 영화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헛소동』을 각색한 것으로서 3년 전에 헤어졌던 베아트리체와 베네딕트는 우연하게 같은 TV 방송국에서 뉴스를 진행하게 된다. 여기에 이 직장의 사장 레오나르드(Leonard)의 딸이며 기상캐스터로 일하고 있는 매력적인 여성 히어로(Hero)는 스포츠 담당 기자 클로드(Claude)로부터 청혼을 받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 하지만, 히어로와 클로드의 관계를 질투한 돈(Don)은 그들의 결혼을 방해하려는 모략을 꾸며서 결혼이 취소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히어로는 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성관계를 했던 것이 그녀에게 결정적인 흠으로 작용한다. 결국 히어로는 클로드와 돈을 동시에 사귄다는 오해가 풀려서 원래의 애정이 회복되어 가지만, 두 사람은 끝내 결혼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베아트리체와 베네딕트의 결혼식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한다. 결국 이 로맨스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처럼 질투의 파괴적인 힘을 보여줌으로써 클로드가 구체적인 정황을 묻지 않고 히어로의 애정을 의심하는 실수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베아트리체와 베네딕트가 서로의 실존을 인정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여기에 히어로는 돈에게 무의미한 성관계를 허락했다는 사실과, 진정한 사랑은 결혼으로 결론지어진다는 내용은 소네트 제 116편의 주제와 일치한다.

사실 소네트 시 자체가 셰익스피어의 원작 『헛소동』(*Much Ado about Nothing*)에 나온 대사를 이용하고 있다. 그 예로서 돈은 클로드에게 꾸민 “어떠한 장벽과 방해와 그리고 장애가 자신에게는 약과 같다”(Any bar, any cross, any impediment will be medicinable to me, II.ii.4-5)고 말하고, 결혼식 장면에서 수사가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하나로 합해질 수 없는 내부 장애를 알고 있다면, 명하노니 스스로에게 그것을 말하도록 하라”(If either of you know any inward impediment why you should not be conjoined, charge you, on your souls, to utter it, IV. i .9-11)고 하여 결혼식에 참가하는 도덕률을 역설하고 있다. 이 경우 장애물이란 아버지와 친구들의 반대 또는 재정적인 상황 등의 외부적인 조건이외에 자신에게 뗏뗏해야 한다는 내적 규범으로서 실제 영화와 연극에서 사건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소네트 제116편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6편

진실한 사람들의 결혼에  
 장애를 용납하지 않으리라.  
 변화가 생길 때 변하고  
 변심자와 같이 변심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로다.  
 아, 아니로다!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지표라,  
 폭풍을 겪고 동요를 모르는.  
 사랑은 모든 방황하는 배의 북두성이로다,  
 그 고도는 측량할 수 있어도 그 진가는 알 수 없는.  
 사랑은 세월의 놀림감은 아니라  
 장밋빛 입술과 뺨은 세월에게 희생이 되더라도,  
 사랑은 짧은 시일에 변치 않고  
 심판일까지 견디어 나가느니라.  
 이것이 틀린 생각이요 그렇게 증명된다면,  
 나는 글을 쓰잖으리라, 인간을 결코 사랑하잖았으리라.

Let me not to the marriage of true minds  
 Admit impediments; Love is not love  
 Which alters when it alteration finds,  
 Or bends with the remover to remove.  
 O, no! it is an ever-fixed mark,  
 That looks on tempests and is never shaken;  
 It is the star to every wandering bark,  
 Whose worth's unknown, although his height be taken.  
 Love's not Time's fool, though rosy lips and cheeks  
 Within his bending sickle's compass come;  
 Love alters not with his brief hours and weeks,  
 But bears it out even to the edge of doom.  
 If this be error and upon me proved,  
 I never writ, nor no man ever loved.

이 시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으로서 사랑이란 제3자의 존재와 소망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채 오직 상대방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폭풍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지조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성경의 고린도 전서 1장 말씀인 절대적인 사랑의 조건을 연상시킨다. 마치 성경의 “사랑은 오래참고, 사랑은 친절하다. 사랑은 시기하거나 자랑하

지 않는다. 사랑은 오만하거나 무례하지 않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는다. 사랑은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다. 사랑은 악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항상 보호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와 같다(*The Holy Bible*, Corinthians I.13:4-7).

하지만 벤들러(Helen Vendler)는 이 시가 과거에 숭고하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그 동안의 견해와 다르게 상대방의 논리에 반박하는 내용을 싣고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한 바가 있다. 벤들러는 이 시에 “no,” “nor,” “never,” 와 “not”가 누차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아마도 시의 대상인 젊은 남성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사랑도 시들어간다고 주장한 것에 반응한 것으로 해석한다(Vendler 488). 그녀는 변하지 않는 사랑의 메시지를 그 다음 편인 제117편과 제118편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제116편의 “장애요소”(impediments)가 “진실한 사람들의 결혼”(marriage of true minds)을 방해한 것이라면 제117편은 “내가 등한히 하였다고 꾸짖어라 / 그대의 은공에 보답했어야 할 것을”(Accuse me thus: that I have scanted all / Wherein I should your great deserts repay)이라고 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소원한 무엇인가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제118편은 “나는 옳은 교훈을 받았노라 / 약은 그대에 지친 사람에게 해독을 주는 것을”(I learn, and find the lesson true, / Drugs poison him that so fell sick of you)이라고 말함으로써 화자가 상대방의 이외에 다른 사람과 연정을 품었던 것을 밝히고 있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117편과 제118편에 나타난 행위들이 이해는 될 수 있으나 116번의 애정관에 비해 경박한 느낌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의미에서 BBC의 패러디 드라마에서 성공적으로 끝난 베아트릭체와 베네딕트의 결혼은 과거에 헤어진 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이 동료들의 배려와 연기를 통한 것으로 연출되어 있지만, 이미 서로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더하여 로맨스 영화가 관객들에게 진지하지 않게 보이면서도 짙은 감동을 줄 수 있음은 이 시의 애정관이 당연해 보이면서도 누구에게나 신선한 느낌을 주는 이치와 비슷하다.

<어쩌면 베이비>(Maybe Baby)에서 샘(Sam)은 루시(Lucy)에게 소네트 제116

편을 암기해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고 있다. 더하여 소네트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날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데, 그 예로서 제18편은 발렌타인 데이(Valentine Day), 제116편은 결혼식, 제29편은 고난이 있을 때, 제1편은 아이가 탄생할 때, 그리고 제73편은 노년에 들어서며 변함없는 사랑의 의미를 전해주었던 시이다. 또한 2세 출산을 통한 애정관 즉 결혼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책임감 있는 사랑행위를 요구하는 좋은 제도임을 소네트가 강조하고 있고, 로맨스 영화들의 상당수가 결혼이야말로 단순한 연애와 영원한 동반관계의 기준으로 이해해왔다. 다시 말해서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욕망을 항상 이성적인 윤리로 다스리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웨이스트 오브 셰임>(A Waste of Shame)에서 보듯이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젊음을 탐닉하는 인간의 오만이 재앙을 가져온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제116편에서는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짧은 시간에 변치 않고”라고 강조하고 있다. “변화가 생길 때 변하고”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구를 서로 반복을 이루도록 하며 그것이 “부부”와 같을 것이라는 암시으로써 사랑의 주제를 더욱 강조한다. 또한 “폭풍을 겪고도 동요를 모르는, 사랑은 모든 방황하는 배의 북두성이로다.”와 같은 자연요소에 기초한 은유를 사용하며 사랑이 이 세상에 필수적인 부분임을 강조한다. 사랑이 진실하다면 상황이 바뀌어도 영원하다고 말함으로써 관객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154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어 내리면 계속되는 드라마를 상상할 수도 있다. 흔한 TV 드라마의 주제들이 될 수 있는 사랑의 삼각관계와 뜨거운 애정, 진실한 우정과 배신, 시기, 질투와 경쟁의식 등이 모두 다 들어 있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시리즈물을 보는 것과 같을 수 있다.

그러나 소네트는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단 한편의 시를 선택하더라도 각각의 다른 극을 그려 낼 수 있다. 소네트 제29편은 젊은 청년에게 헌정하는 것이라고 가정되는, 제1편부터 제126편 사이에 들어있는 시로써 셰익스피어가 동성애의 화자라는 것인데, 이 시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낭만적인 달콤한 사랑으로 여기는 이도 있고, 친구 사이의 우정과도 같은 사랑이라고도 하며, 소네트 첫 부분의 54편의 내용, 즉 결혼을 해서 아버지처럼 성장할 아름다운 아기

를 낳으라는 연장자가 젊은이를 설득하려하는 일종의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또한 제29편에서 느낄 수 있는 극도의 반전, 즉 침울한 분위기의 ‘천시되어. . ./ 버림받은 신세(in disgrace. . ./ my outcast state)’라는 자기 비하로부터 ‘천국의 문전(heaven's gate)’으로 날아오르는 기쁨은 일종의 종교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느낌을 가지기에도 충분하다.

제29편만 놓고 보면, 이 시의 수신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독자와 평론가들은 희곡에서와 같이 허구의 인물이라는 지적도 있으며 셰익스피어의 자전적 삶에 대한 추측과 함께 400년이 지난 현재 까지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 제29편

운명과 세인의 눈에 천시되어,  
 혼자 나는 버림받은 신세를 슬퍼하고,  
 소용없는 울음으로 귀머거리 하늘을 괴롭히고,  
 내 몸을 돌아보고 나의 형편을 저주하도다.  
 희망 많기는 저 사람,  
 용모가 수려하기는 저 사람, 친구 많기는 그 사람 같기를.  
 이 사람의 재주를, 저 사람의 권세를 부러워하며,  
 내가 가진 것에는 만족을 못 느낄 때,  
 그러나 이런 생각으로 나를 거의 경멸하다가도  
 문득 그대를 생각하면, 나는  
 첫새벽 적막한 대지로부터 날아올라  
 천국의 문전에서 노래부르는 종달새,  
 그대의 사랑을 생각하면 곧 부귀에 넘쳐,  
 내 운명, 제왕과도 바꾸려 아니 하노라.

When in disgrace with fortune and men's eyes  
 I all alone bewep my outcast state,  
 And trouble deaf heaven with my bootless cries,  
 And look upon myself, and curse my fate,  
 Wishing me like to one more rich in hope,  
 Featured like him, like him with friends possessed,  
 Desiring this man's art, and that man's scope,  
 With what I most enjoy contented least;  
 Yet in these thoughts my self almost despising,  
 Haply I think on thee, and then my state,

Like to the lark at break of day arising  
 From sullen earth, sings hymns at heaven's gate;  
 For thy sweet love remembered such wealth brings  
 That then I scorn to change my state with kings.

특히 소네트 29번 “운명과 세인의 눈에 천시되어(When in disgrace with Fortune and men’s eyes,”로 시작되는 이 시는 영상물을 통해 구애의 장면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자아발견의 과정을 다루는 작품에서도 인용되었다.

영화 속에서는 이 시의 전반부를 어떠한 등장인물의 외로움이나 비통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용되었으며, 그에 반해서 후반부나 특히 마지막 이행 부분은 누락시키거나 소홀히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 첫 행에서 인용하여 제작된 영화 <포춘과 남성의 눈>(Fortune and Men’s Eye)(하비 하트(Harvey Hart)감독, 1971)는 존 허버트(John Herbert)가 각본을 쓰고 1967년 연극으로 초연되었으며 1971년 영화로 제작되었다. 당시 40개 언어로 번역되어 100개국 이상에서 공연 제작이 이루어졌다. 소년원에서 4개월을 보냈던 허버트 자신의 경험이 부분적으로 극의 등장인물 퀸(Queenie)에게 반영되었다. 처음으로 수감자가 된 주인공 스미티(Smittie)의 가혹한 교도소 생활을 그린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소네트가 주요한 부분을 이끌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스미티가 교도소에 도착하는 장면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경쾌한 노래와 배경음악이 울려 퍼지는데, 스미티가 다른 재소자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때에도 같은 음악이 소환된다. 이러한 일을 겪으며 참담하고 절망에 빠진 스미티가 다른 죄수들에게 자주 폭행의 피해자가 되는 모나(Mona)라는 유식한 젊은 재소자와 문득 천장 벽에 붙어 있는 소네트를 발견하게 된다. 모나가 그에게 소네트를 읽어 주는데, 시를 듣던 스미티는 ‘disgrace’를 ‘disgust’로 바꿔 읽으며 자기 혐오감에 빠진다. 멜로디와 함께 마지막까지 소네트는 자주 반복된다. 스미티는 자신을 강간했던 재소자에게 직접 복수를 시도하지만, 결국 독방에 갇히고 마는데, 소네트 시는 아주 가혹하고 저항불능의 모진 교도소 생활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연극으로 초연되었을 때 평론가인 휘태커(Herbert Whittaker)는 “이웃 마당에서 우리의 더러운 천을 씻는 기술”(the art of washing our dirty linen in the neighbor's yard)이라는 충격적인 평을 썼다

(Whittaker). 사랑의 시로 읽혀져 왔던 소네트 29번의 전혀 일치되지 않는 의미 부여에 대해서 상호텍스트성의 개념만이 이러한 넘나드는 상상과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연극과 함께 개최 된 토론은 뉴욕시에 본사를 둔 전직 수감자를 위한 옹호 단체인 “미래사회”(Fortune Society)를 창립하게도 하였다.

같은 시로 반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화가 있다. 미국의 텔레비전 영화 <유죄 판결>(Conviction) (케빈 로드니 설리반 감독, 2002)은 흑인 지도자이며 사회운동가인 칼 업 처치(Carl Upchurch)에 대한 자서전적인 영화이다. 1950년 사우스 필라델피아(South Philadelphia)에서 태어난 그의 세 살 때 기억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가난하고 절망적이며 폭력적인 환경에서 태어난 자신을 “자궁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고 하며 갱단에 들어가서 다른 아이들을 때리고 훔치고, 성인이 되어서도 은행 강도단의 패거리로 연방 형무소에서 10년을 보냈다. 형무소 독방의 흔들리는 테이블 다리아래에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시집을 발견했을 때가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며 영화의 핵심 장면이 되었다. 그는 소네트 29번을 읽고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며 ‘lark’의 의미를 골똘히 생각해보다가 교도관에게 질문을 하는데, 교도관의 ‘새’라는 간단한 대답을 듣고, 그는 조류학 사전을 요청해서 종달새의 모양을 확인한다. 얇은 시집 한 권에 몰두해 있는 칼(Carl)을 다른 재소자가 셰익스피어는 동성애자라며 목살하지만, 칼은 또다시 소네트 제29번을 읽자, 그를 놀리고 야유를 퍼부으며 방해한다. 그의 공판장면에서 칼은 소네트를 적절히 인용해가며 정말로 ‘dark lady’는 흑인 죄수들의 ‘누이(a sister)’라는 확신이 든다고 하며 빗대어 설명한다. 점차 희망적인 장면으로 진행해가는 영화에서 시를 낭송하는 칼은 상습범 관객에게도 마치 음악으로 난폭한 짐승들까지 감동을 주는 그리스 신화의 오르페우스와 같은 역할을 해내는 듯하다.

칼은 실제로 아무도 그를 자유롭게 해줄 수 없으며 스스로 자신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깨닫는다. 그는 흑인 저항 작가들의 풍부한 학문적, 활동적 유산을 발견해 내며 인종 차별주의와 빈곤에 대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80년대 중반 교도소에서 석방 된 후에 감옥개혁을 추진하

며 진보적 감옥수 운동(Progressive Prisoners Movement, PPM)을 조직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다른 미국인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형기를 선고 받고 인종 차별로 인한 비인간적 측면에 대해서, 죄수들에게 자신의 처지와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자기 증오와 폭력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가 갇힌 조직들과의 평화 협정을 맺고 국가적 공동체로서 도시 공동체를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업적은 놀라운 모범적 사례를 남겼다.

소네트에 관한 사실과 셰익스피어의 의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득력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추측과 가정에 머물 수밖에 없다. 1609년 소프(Thomas Thorpe)가 펴낸이라고 인정되는 소네트시집이 있기 전, 1590년대에 소규모 그룹의 친구나 동료 작가와 후원자들과 소네트를 공유하였는데, 어느 정도 공개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정말로 사석에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지어낸 것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400년 전에 같은 형태와 구조로 이루어진 154편의 시는 꾸준히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소네트 제29편을 바라보는 현대의 독자와 예술가들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롤랑 바르트가 지적하듯이 작가는 과거이며, 수많은 인용들의 짜임으로 작품을 내놓은 후에는 다양한 문화적 온상에서 다른 의미와 형식으로 수많은 인용을 방출하게 된다(Barthes 148).

소네트 제29편의 첫 8행을 읽었을 때 친구가 없다고 느끼며 외롭고 우울한 상태나, 어떤 일의 마지막 단계를 넘지 못하고 좌절하여 자신을 미워하며 혐오하거나, 자신이 사랑 받지 못하는 대상이라는 생각에 두려움마저 느낄 때, 9행으로 넘어가는 순간, 주변의 사물들이 극적으로 변하고 어지럽혀진 방 안에서 문득 웃음 지을 수 있게 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중달새’처럼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꽤 위대한 것임을 느낀다. 21세기에 쏟아지는 정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생각해 낼 수 있는 단 한 명과의 관계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 400년 전의 소네트 제29편을 연구해야 할 중요한 이유이다.

## 2. 상호텍스트성 원전으로서 소네트

일단 소네트는 셰익스피어가 출판을 의도한 사랑의 시집은 아니었다. 표면적으로 보여 지는 소네트의 내용에서 수수께끼 같은 검은 여인이나 아름다운 청년에 대한 한 남자의 욕망에 관해서 친구들 사이에 퍼졌던 야한 유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결혼생활로부터 떠나고자 했을 것이라는 추론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게이 후원자를 위해 개론서를 썼다는 가설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단순한 남성이 기막히게 잘생긴 친구를 만나게 되어 그들 사이에 느끼는 정신적 사랑과 ‘브로맨스’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 영화의 상호텍스트성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 나타난 성이미지를 각자의 구미에 따라 작가의 성적 경향을 추론하고 있고, 그 과정에 그를 여성 혐오자 또는 사랑의 순교자로 판단해왔다. 브라운(Julia Prewitt Brown)이 “영화가 이전 예술작품들을 의식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적용 또는 언급하지 않고서도”(Brown 46) 충분히 주제의식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하듯이 영화로 변주된 상호텍스트성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전폭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과편적이거나 실험적인 창작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영화 상호텍스트성 원전으로서 소네트의 활용도는 이른바 퀴어 영화(queer film) 중 동성애와 양성애 작품들에서 현저하다. 그 예로서 자만(Derek Jarman)의 <천사의 대화>(The Angelic Conversation)는 움직이는 사진 이미지와 소네트를 병치시키는 방법으로 동성애의 모습들과 불투명한 풍경을 묘사한다. 이 작품은 오로지 비언어적 시각 이미지만을 이용해서 소네트의 감성을 자극함으로써 감각을 피곤하게 하는 포르노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런가하면 웨일즈에 위치한 볼케이노 극장에서 제작한 동작 연극인 <사랑>(Love)에서는 남성배우 두 명과 여성배우 한 명이 소네트를 낭독하기보다 오히려 짧게 고향지르며 서로 뒤엎쳐서 남녀를 구별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하여 무성 또는 양성애의 상태를 연출한다.

한국 사회의 경우는 아직 “생식을 위한 것 이외의 성을 억압하는 사회에 대한 해방의 팸플릿”(조선희 315)을 내세울 만큼 개인화 또는 서구화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아직도 지배적인 듯하다. 하지만 박옥선이 “시인의 청년에 대한 애정이 보편적인 인간애의 범주에 머물고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박옥선 21)고 주장한 것처럼 셰익스피어가 소네트 20번에서 “나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하나를 더해 서”(By adding one thing to my purpose nothing)라고 말하고, 소네트 36번에서 “그러면 오욕은 나에게만 남고”(So shall those blots that do with me remain)라고 토로하면서 동성으로서의 육체적 한계를 언급하는 것이 현대에는 지나치게 외설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소네트에 기초한 영화작품들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의 흔적을 분석함으로써 문학 비평가들이 간과했던 점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소개될 영화들, 즉 <사랑에 빠진 셰익스피어>, <월>, <웨이트 오브 웨임>, <선데이 블러디 선데이>는 새로운 논점으로서 작가의 소원한 부부관계가 양성애적 성향에 미친 영향, 육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의 동성에 성립 여부, 작가는 검은 여인과 동침하였으면서도 미남 청년의 검은 여인과의 관계를 꺼려하는 이율배반, 출산강조가 동성애적 관계를 단절을 의미하는지에 어느 정도 단서를 제공해 준다. 물론 그것이 현학적 학문탐구와 비교해서 그 전문성과 신빙성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이들 영화작품들에 대한 관객들과 심지어 비평가들의 호응 또한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영화 상호텍스트성으로 연구해볼 만 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다. 특히 그동안 소설이나 희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르의 변주가 적었던 문학 장르로서 시의 대중화와 영역확대에 셰익스피어 소네트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은 다른 장르의 원전으로서 다양한 소재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 III. 소네트와 청소년 영상물

#### 1. 소네트의 교육적 의미와 이니시에이션 개념

미국은 21세기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학생들이 대학과 직장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서 2010년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교육 과정인 ‘공통핵심표준’(CCSS, Common Core State Standards)을 개발하여 발표하였는데, 영어로 된 예술과 어학학습을 위한 자료로서 38개의 픽션과 논픽션을 미국교사들이 사용해야 할 자료로 선정한 바가 있다. 이 때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유일했으며, 개발과정에 행해진 교사들의 여론조사에서는, 셰익스피어의 희곡과 소네트야말로 “어휘와 패러프레이즈 능력에 있어서 어려운 자료를 학습하는 경우에 학생의 자신감을 증가시키며, 보편적인 주제들을 전개하여 문화적 감상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학생들로 하여금 독서와 정서적 성숙, 그리고 학문적 의욕에 도전할 수 있는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Turchi and Thompson 32). 이러한 견해는 청소년들의 이니시에이션 과정에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객관식 평가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국어와 영어교육 현장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영미권 교육현장에서도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400여 년 전에 쓰여진, 이제는 활용하기에 어색한 고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사실 각색되지 않은 원문 텍스트를 교사와 학생들 간에 서로 이해하고 감상하기에는 지루하고 난해한 까닭에 단편적 해답의 편의성이 대세가 된 21세기 교육현실에 부적합하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셰익스피어의 최고 인기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해 줄거리는 알고 있을지언정 같은 작품의 제1막 4장에 나오는 머큐시오(Mercutio)의 유명한 대사인 잠자는 사람에게 꿈을 가져다준다는 요정, 퀸 맵(Queen Mab)에 관한 내용과 그 함의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로미오가 꿈 이야기를 하며 캐플릿가(Capulets)의 연회에 가지 않으려 하자 머큐시오는 킨 맵에 대한 긴 연설로 그의 절친한 친구 로미오의 꿈을 조롱하며 매우 사소한 것으로 넘겨버린다. 교사들은 작품 속에서 이러한 인물과 관련된 암시나 복합적 맥락을 학생들과 논하기보다는 교사 자신들도 과거로부터 보편성을 인정받은 의미들을 설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트콤(situation comedy)이나 영화에서 셰익스피어 작품들, 특히 소네트를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학과 영상매체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셰익스피어 작품의 영화화는 감독이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단순히 상업적인 수익성을 넘어 학교 교실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교육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는 멀티미디어에 대한 청소년들의 친밀도를 감안하면 무대로 한정된 예술 장르 이외에 영상물을 통한 교육산업은 그 영향력을 나날이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학교에서 교육방법이 시청각 자료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듯이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극과 비극들이 책과 무대를 통해서보다는 영상물로 더욱 현저하게 각색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셰익스피어 희극과 시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주는 문학적 교훈과 쾌감이 균형 있게 추구되기 위해서는 문학과 영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인기 있는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꼽자면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이나 『햄릿』(*Hamlet*), 『말괄량이 길들이기』(*The Taming of the Shrew*)와 『맥베스』(*Macbeth*) 그리고 『오셀로』(*Othello*) 등을 먼저 고를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작품들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버전의 영화로 소개되어 왔고 원작을 각색했다 하더라도 원작으로부터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셰익스피어 원작이 지닌 심오한 주제를 훼손시키지 않을 정도로 각색된 영화들과 소네트가 등장하는 영상물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단편적인 교과과정에서 획일성을 벗어나는 동시에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교육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예를 들자면, 제피렐리(Franco

Zeffirelli의 1968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은 맥에르니(John McEnery)의 연기를 통해 이 약강오보격의 소네트 대사를 충분히 극화했으며, 루어만(Baz Luhrmann)의 1996년 영화 <로미오+ 줄리엣>(Romeo+ Juliet)에서 흑인배우 페리노(Harold Perrineau)는 같은 역할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잘 소화했다. 성인의 사랑에 대한 욕망을 주로 다루고 있다고 여겨졌던 소네트가 청소년 영상물 분야에서도 다양하고 폭넓게 나타나는 작품들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름다운 소네트의 시어들에 기초한 영화작품들을 검색한다거나 그것에 내포된 이니시에이션 주제를 연구하려는 시도가 국내에서는 가히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도 그 동안 연구자들이 셰익스피어 소네트가 청소년들에게 교훈적 의미의 주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본 장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 담긴 이니시에이션 주제를 조명하고, 그것이 영화를 통해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논한다. 이 연구를 위해서 최근에 소개된 이니시에이션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것에 비추어 셰익스피어 소네트의 전반부를 살펴면서 작품의 연속성과 이니시에이션 맥락을 고찰한다. 그리고 소네트 후반부의 내용을 토대로 소네트에 나타난 순수한 사랑과 양성적 내용이 영화를 통해 교육적 메시지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이후 고찰된 이니시에이션 맥락에서 소네트의 교육적 가치를 담은 좀 더 다양한 성장영화의 제작을 제안한다. 더불어 우리나라 언어교육현장에서도 소네트가 학생들의 창의적이면서도 비판적 사고를 배양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이니시에이션’은 미성숙한 자가 첫 경험을 통해 세상의 진리를 깨우치는 통과의례를 의미한 것으로 인류학적 개념이 원용되었는데, 인류학자 마르쿠스(M. Marcus)는 이니시에이션을 정의함에 있어서, 첫째, 성년식을 외부세계에 대한 무지로부터 중대한 인식으로의 통과 과정으로 여기고, 둘째, 이것을 통해 중요한 자기발전을 이루며 그 결과 인생이나 사회와의 타협에 이른다는 것이다(Marcus 203). 문학에서는 인류학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의식적 요소를 중시하는 인류학적 의미와는 다르게 문학적 이니시에이션은 경험의 과정을 문학적 전개양식으로 이용하는 것이다(이광풍

151).

독일을 비롯한 서구문화에서는 성장과정을 다룬 소설로 빌둥스로만(Bildungsroman) 장르가 중세기부터 유행해왔다. 예를 들어 13세기 초 에셴바흐(Wolfram von Eschenbach)의 『파르지발』(*Parzival*)과 14세기 말 작가미상의 『거웨인 경과 녹색 기사』(*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등이 그 효시로 여겨지고 있으며, 괴테(Johann Wolfgang Goethe)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견습기』(*Wilhelm Meister's Apprenticeship* 96)가 근대적인 빌둥스로만의 전형을 이루었다고 알려진다. 이 경우 주인공이 힘든 역경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가는 과정 속에서 변화된 존재가 되어 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반대로 성장통을 견디지 못한 채 방어적이고 편협된 견해를 갖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빌둥스로만은 이니시에이션 즉 순수함 또는 천진무구함의 상실을 강조하는 경향이어서 그 주인공이 청소년인 경우가 많지만, 21세기 복잡한 현실에서 성숙하거나 심지어 황혼에 접어든 어른 주인공 역시 전혀 다른 세상을 알게 되었을 때 도 이러한 현상은 적용 가능할 것이다. 이니시에이션 구성은 충격적인 자각현상에 기초하지만 그것의 속도와 힘이 점진적이냐 아니면 파격적이냐에 따라 그 이야기는 매우 다르게 느껴진다. 이것을 분류해 보자면 전자는 자서전적이고 후자는 극적전환의 이야기로서 그 내용전개가 매우 신속하고 파괴적이어서 주인공이 좌충우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어 오늘날 영화와 영상물의 주류적 양상의 한 형태가 되었다. 이러한 분류를 주장하는 선행연구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자서전적인 이야기의 특징]

첫째, 화자가 주인공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 그래서 마치 그가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모두 알고 있는 듯하며, 첫 경험을 이미 완료한 상태라는 느낌을 준다. 또한 화자를 대신한 주인공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환경마저도 이해할 수 있다. 스토리의 진행은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며 분위기는 편하거나 적막하다.

둘째, 조연을 맡은 등장인물은 주인공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치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하여 무엇을 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내해 준다.

셋째, 이니시에이션에 해당하는 전환의 순간이 언제인가가 명확하지 않다. 즉, 그 동안에 전개된 여러 사건들이 상징적 의미를 주며, 화자가 단언적으로 주인공의 변화를 말해 주지는 않는다.

넷째, 주인공의 개안은 사회로부터의 이탈이라기보다는 건전한 방향으로의 사회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극적전환 이야기의 특징]

첫째, 스토리의 흐름이 빠르고 과격적인 사건은 주인공에게 정신적인 타격을 가져다 준다.

둘째, 알거나 모르는 순간이 명확하여 주인공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변화가 두드러진다.

셋째, 화자의 나이가 주인공과 거의 동일하여 이야기의 흐름은 좌충우돌하여 전개과정이 산만하거나 설 사이 없이 움직인다.

넷째, 주인공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과거를 선망하며, 이 경우에 조연자는 지도자적인 역할을 해 주지는 못하지만,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

다섯째, 주인공의 희망과 실제 현실이 서로 충돌되는 바가 강하여 주로 비극적인 내용이 많다.

(김은진·이건근 128-129)

물론 이니시에이션 이야기에 대한 이와 같은 분류기준이 이 장르에 해당하는 모든 작품들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셰익스피어 소네트가 20세기 이후 현대 청소년 영화에 영향을 주는 상호텍스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약 400년의 시차가 남긴 변화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154편으로 구성된 소네트에 극적 연속성을 부여한다면 화자인 셰익스피어가 여성을 육체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반면에 젊은 남성에게는 무한한 정신적인 사랑과 어른으로서 가르침을 주고 싶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기초한 현대 영화는 소네트에서 느낄 수 있는 은근하고 비유적인 유형에서 벗어나서 주인공을 상대적으로 과격한 성적 일탈행위를 저지르거나 우정과 연애 사이의 삼각관계 속에서 갈등하다가 파국에 이르는 결말로 그려낸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나 코믹 시리즈물에서는 정신적, 육체적 사랑과 남성, 여성 친구사이에서 고민하는 현대 청소년의 순수한 사연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내며 소네트를 등장시켰는데, 그 바탕에 공통의 이니시에이션 맥락을 발견할 수 있다.

## 2. 시트콤과 영화의 이니시에이션 맥락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는 소프(Thomas Thorpe)가 1609년 5월 20일에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최근 인쇄본』(*Shakespeare's Sonnets: Neuer before*

*Imprinted*)이란 제목으로 출판하였으며 그 동안 “콰르토”(Quarto)로 언급되어 왔다. 소네트 전체에 등장하는 인물은 시인인 작가와 전반부 1번부터 126번의 수신자(addressee)인 아름다운 젊은이(the fair young man), 그리고 나머지 28편은 살결이 희지 않고 눈과 머리털이 검은 여인(the dark lady)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시대 작가인 미어스(Francis Meres)는 이 책이 출판되기 11년 전인 1598년에 『팔라디스 타미아』(*Palladis Tamia*)에서 이 소네트가 사석에서 친구들과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유머와 같다고 말함으로써 이미 널리 회자되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또한 현존하는 판본 이외에도 더 많은 소네트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후 자가드(William Jaggard)는 『열정적인 순례자』(*The Passionate Pilgrim*)에서 오늘날 소네트 제138편과 제144편을 셰익스피어의 희곡 『사랑의 헛수고』(*Love's Labour's Lost*)에 나온 다른 세 편의 시들과 함께 출판한 바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셰익스피어가 출판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Chute 329).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는 동시대 또는 그 전의 시인들의 작품들과 다르게 어느 한 편도 헌정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작가의 전성기에 편승해서 상대적으로 일시적인 인기를 누렸을 뿐, 그의 희곡들과 다르게 그가 사망하기 전부터 이미 호소력을 상실했고, 그 후 200여 년 동안 세인들로부터 별다른 관심을 얻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네트는 그의 유명한 희곡작품들과 함께 심각한 변형이나 침식이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신분이 높은 젊은 남성에게 대한 동성애적 감정이 당시 종교적인 사회분위기에 불구하고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소네트 전체를 한 개의 연속적인 줄거리로 보면, 작가와 미남 청년 그리고 검은 여인 사이의 삼각관계가 존재하지만, 작가의 명성에 힘입어 문학적 비판을 덜 받았다는 점이 오늘날까지 400여 년 동안 이 시의 주제가 유지되는데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다만 벤슨(John Benson)이 1640년에 임의의 제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소네트의 제2판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시의 원래 구성이 재배열되었고, 텍스트의 “그(he)”가 모두 “그녀(she)”로 바뀌고, 미남 청년과 검은 여인을 대상으로 한 시들의 순서가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서 버로우(Colin Burrow)는 127번 이후가 1번보다 앞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Burrow 105). 한편 챔버스(Edmund

Chambers)는 셰익스피어가 소네트를 저술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리하고 편집했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의 구성은 작가만이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Chambers 562). 같은 의미에서 비칭(Henry Charles Beeching)은 소네트의 배열은 시인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오늘날 버전으로는 작성의 날짜순이 맞지 않거나 시의 배치가 전반적인 흐름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Beeching 15-16). 하지만 많은 독자들은 작품의 처음부터 검은 여인의 존재를 전제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를 사랑하는 시인의 양성애적 경향을 충분히 이해해왔기 때문에 현재 소프 판본에 크게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시의 저술 시점과 순서 그리고 헌정대상은 물론이고 작가의 전기적 사실에 대한 정보마저 정확하지 않음을 감안해서 작품에 드러난 사실을 중심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형식적인 특징으로서 이 소네트는 한 행에 약강의 음보가 다섯 번 반복되는 약강 오보격(iambic pentameter)의 리듬과 전체 14행을 가진 소네트의 일반적 형태에 abab cdcd efef gg의 운율을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 두 행이 앞 3개의 4행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반전을 제시하는 방식을 구사한다. 내용에 있어서는 처음 17편의 시들이 미남 청년으로 하여금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여 젊음을 유지하도록 권유하고, 제18번부터 제26편까지 9편의 시는 화자가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면서 구애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제27편에서 제58편까지 32편의 시는 시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응답을 얻지 못하고 불면과 정서적 피로감에 괴로워하며 좌절감으로 고통 받는 고독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나아가 제59편에서 제126편까지 68편의 시는 슬픈 체념으로 종료되는 과정으로서 시인이 초조한 상태로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에 맞서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제40편에서 제42편까지 3편에서 미남 청년이 검은 여인과 관계를 갖고, 제79편에서 제87편까지 9편에서 필력이 쇠해진 화자 이외에 다른 시인과 우정을 나누었음을 언급한 부분에서 시인은 이 청년과의 관계가 성공하지 못함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여기에서 그는 아름다운 여성들과 시적 능력이 있는 남성에게 패배했다고 자책하면서, 자존심이 상실된 나머지 그 젊은이에게 어차피 자신을 버릴 것이면 미루지 말라며

실연의 결과를 받아들인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침묵이 관계단절의 원인이었다고 반성하며 오히려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사과하는 등 미남 청년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내용이 이니시에이션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래 ‘이니시에이션’(Initiation)이라는 명칭과 개념은 ‘시작하다’의 뜻을 지닌 말로 ‘통과제의’(the rite of passage)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의미로서 문화 인류학적 의미에서 비롯되었다(이광규 146). 즉, 일반적으로 이니시에이션의 사전적 의미란 “한 개인이 한 사회의 정당한 일원이 되거나 그것의 한 기능이나 지위를 부여받는 의례, 의식, 고난, 또는 가르침”을 받는 과정에서 미성숙한 자가 탄생과 죽음, 성, 선과 악, 힘의 위협 등을 깨달으며 성숙하게 됨을 말한다. 문학작품 속에서 이러한 개념이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소네트의 서사적인 구조로 볼 때, 시에 등장하는 연장자인 화자는 동성의 연소자인 소네트의 수신자에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성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교훈을 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먼저 소네트에서 화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비통함을 느끼며 청년에 대해서 애정을 드러낸다. 소네트 제 33편에서 “그는 오직 잠시만 내 것이었느니,” 그리고 제34편에서 “그대의 부끄러움은 나의 비애를 고치지 못하고”라고 말한 것은 청년을 교화하는 과정에서 느낀 아쉬움을 독백으로 표현한 것에 가깝다.

#### 제33편

여러 번 나는 보았노라, 찬란한 아침 해가  
 제왕 같은 눈으로 산봉우리를 즐겁게 하고,  
 금빛 얼굴로 녹색의 초원을 입맞추고,  
 창백한 시내를 천국의 연금술로 빛나게 하는 것을.  
 태양은 또 어느덧 천한 구름쪽이 와서  
 창공의 그 얼굴을 가리는 것을 허용하고,  
 이 세계를 버리고 얼굴을 감추며  
 치욕을 지닌 채 몰래 서천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 태양도 어느 이른 아침에는  
 혁혁한 빛으로 내 얼굴을 비쳤노라.  
 아, 한(恨)스러워라, 그는 오직 잠시만 내 것이었느니,  
 하늘의 구름은 그를 가려버렸노라.

그러나 내 애정은 조금도 그를 천시하지 않으리라.  
하늘의 태양도 흐려지나니, 땅 위 태양 어이 아니 흐려지리.<sup>2)</sup>

Full many a glorious morning have I seen  
Flatter the mountain tops with sovereign eye,  
Kissing with golden face the meadows green,  
Gilding pale streams with heavenly alchemy;  
Anon permit the basest clouds to ride  
With ugly rack on his celestial face,  
And from the forlorn world his visage hide,  
Stealing unseen to west with this disgrace:  
Even so my sun one early morn did shine,  
With all triumphant splendour on my brow;  
But out alack, he was but one hour mine,  
The region cloud hath masked him from me now.  
Yet him for this my love no whit disdaineth,  
Suns of the world may stain, when heaven's sun staineth.

제34편

왜 그대는 화창한 날씨를 약속하여  
외투 없이 여행을 하게하고,  
도중에 검은 구름을 만나게 하여  
더러운 운무로 그대의 찬란한 얼굴을 가리게 했느냐?  
구름 사이로 그대 나타나, 풍우에 젖은 얼굴 말려준대도  
그것으로는 부족하여라.  
상처는 고쳐도 오욕(汚辱)은 고치지 못하는 고약을  
뉘라서 찬양하리요.  
그대의 부끄러움은 나의 비애를 고치지는 못하고,  
그대가 회개한대도 나의 손실은 여전하여라.  
심한 해를 입은 자에게는  
가해자의 비통은 미약한 위안이라.  
아, 그러나 그대의 진정이 흘리는 눈물은 진주로다.  
그 귀한 눈물은 모든 비행을 속죄하리라.

Why didst thou promise such a beauteous day,  
And make me travel forth without my cloak,  
To let base clouds o'ertake me in my way,  
Hiding thy bravery in their rotten smoke?

2) 피천득 번역, 『셰익스피어 소네트 시집』 (서울, 샘터사, 2015.) p.42. 이후 셰익스피어 소네트 시 번역은 이 책에서 인용함.

'Tis not enough that through the cloud thou break,  
 To dry the rain on my storm-beaten face,  
 For no man well of such a salve can speak,  
 That heals the wound, and cures not the disgrace:  
 Nor can thy shame give physic to my grief;  
 Though thou repent, yet I have still the loss:  
 Th'offender's sorrow lends but weak relief  
 To him that bears the strong offence's cross.  
 Ah! but those tears are pearl which thy love sheds,  
 And they are rich, and ransom all ill deeds.

다른 예로서 제40편에서 제42편까지 화자는 “그대가 범한 그 달콤한 비행들은 . . . 그대의 젊음과 아름다움 때문이다”<sup>3)</sup>고 말하면서 이 청년의 성적 외도에 대해서 사랑하는 이에 대한 질투나 증오의 감정을 넘어서, 같은 남성으로서 공감하고 있으며 오히려 젊음에 대한 관용적 이해를 표현한다.

제40편

사랑하는 이여! 내 애인들을 모두 빼앗아 가라, 그들 모두를.  
 그리 한들 이미 지닌 것 외에 그대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  
 참된 사랑이라 부를 것은 하나밖에 없을지니,  
 이번 것을 얻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이 그대 것이었노라.  
 만약 나를 위하여 그대가 내 애인을 받아들인다면,  
 내 그대 닮지 않겠노라, 그대 다만 내 애인을 활용하는 것뿐이니,  
 그러나 그대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일부러 희롱함으로써  
 스스로를 기만한다면 책망을 면키 어려워라.  
 고운 도둑이여, 내 그대의 탈취를 용서하겠노라,  
 비록 구차한 나의 소유를 그대가 모두 훔친다 하여도,  
 그러나 사랑은 아느니라, 증오의 상처보다  
 사랑이라 하며 주는 피해가 더욱 큰 고통임을.  
 모든 못된 것을 곱게 보여주는 음탕한 우아여,  
 양심으로 나를 죽인들 우리 서로 원수 되랴.

Take all my loves, my love, yea take them all;  
 What hast thou then more than thou hadst before?  
 No love, my love, that thou mayst true love call;  
 All mine was thine, before thou hadst this more.

3) 이 논문에서 소네트는 별도의 수식어가 없는 한 셰익스피어의 것을 의미하며, 이후 이 텍스트의 인용은 작가와 연도를 생략하고, 작품 번호만 표기하기로 한다.

Then, if for my love, thou my love receivest,  
 I cannot blame thee, for my love thou usest;  
 But yet be blamed, if thou this self deceivest  
 By wilful taste of what thy self refusest.  
 I do forgive thy robbery, gentle thief,  
 Although thou steal thee all my poverty:  
 And yet, love knows it is a greater grief  
 To bear love's wrong, than hate's known injury.  
     Lascivious grace, in whom all ill well shows,  
     Kill me with spites yet we must not be foes.

제41편

내가 때로 그대 마음에서 떠나 있을 때  
 방중에 흘러 그대가 저지르는 고운 잘못들은  
 그대의 미, 그대의 나이에 매우 어울리도다,  
 그대 있는 곳마다 유혹이 항상 따르기 때문이라.  
 그대가 우아하므로 그대의 마음을 얻으려 들고,  
 그대 아름다움으로 공격을 받게 되나니.  
 한 여인이 접근하려 들 때 그 여인의 뜻을 이루기 전에,  
 어느 남자인들 그 여인을 저버릴 수 있으랴?  
 아! 그러나 그대의 미와 방황하는 혈기를 꾸짖어,  
 나의 자리를 범하지 못하게 하라.  
 그대를 분방하게 몰고 가서  
 이중으로 신의를 깨뜨리게 하느니,  
     그대의 미로 여인을 매혹하여, 여인의 신의를,  
     그대의 미로 내게 거짓되어, 그대의 신의를.

Those pretty wrongs that liberty commits,  
 When I am sometime absent from thy heart,  
 Thy beauty, and thy years full well befits,  
 For still temptation follows where thou art.  
 Gentle thou art, and therefore to be won,  
 Beauteous thou art, therefore to be assailed;  
 And when a woman woos, what woman's son  
 Will sourly leave her till she have prevaild?  
 Ay me! but yet thou mightst my seat forbear,  
 And chide thy beauty and thy straying youth,  
 Who lead thee in their riot even there  
 Where thou art forced to break a twofold truth:  
     Hers by thy beauty tempting her to thee,  
     Thine by thy beauty being false to me.

## 제42편

그대가 그녀를 얻은 것이 반드시 내 슬픔은 아니라,  
 그러나 내 그녀를 사랑했느니,  
 그녀에게 그대를 뺏긴 것이 나의 슬픔이요,  
 나를 더 뼈저리게 하는 사랑의 손실이라.  
 친애하는 범죄여, 그대들을 이렇게 용서해 주리라,  
 내 그녀를 사랑하기에 그대 그녀를 사랑하리라.  
 그리고 그녀는 나를 위하여 또한 나를 저버렸으리라,  
 나를 위하여 나의 친구로 하여금 그녀를 다루어 보게 하면서.  
 그대 잃은 나의 손실은 나의 애인의 이득이 되고,  
 내 그녀를 잃음으로 벗은 그녀를 얻게 되도다.  
 둘은 서로 얻고 나는 둘을 다 잃었거니,  
 그들은 나로 하여 이 십자가를 지게 했노라.  
 그러나 기쁘게도 벗과 나는 하나이라,  
 달콤한 아침인저! 그녀는 나만 사랑하느니.

That thou hast her it is not all my grief,  
 And yet it may be said I loved her dearly;  
 That she hath thee is of my wailing chief,  
 A loss in love that touches me more nearly.  
 Loving offenders thus I will excuse ye:  
 Thou dost love her, because thou know'st I love her;  
 And for my sake even so doth she abuse me,  
 Suffering my friend for my sake to approve her.  
 If I lose thee, my loss is my love's gain,  
 And losing her, my friend hath found that loss;  
 Both find each other, and I lose both twain,  
 And both for my sake lay on me this cross:  
 But here's the joy; my friend and I are one;  
 Sweet flattery! then she loves but me alone.

이러한 태도는 화자가 이 청년을 반드시 연애상대로만 보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같은 취지에서 제95편에서 화자는 “그대는 치욕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느고 . . . 사랑하는 이여, 큰 특권을 조심하라.”하고 사실상 그를 연장자로서 꾸짖고 있으며, 제96편에서는 “어떤 이는 그대 허물을 젊음에 돌리고, 어떤 이는 방종이라 하고” 전함으로써 젊은이에 대한 힐책과 비난을 표현하는 동시에 “그덴 흠도 우아함으로 뵈게 하도다.”라는 찬사를 하고 있다.

제95편

그대는 치욕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느고!  
 향기로운 장미꽃의 벌레와 같이  
 피어나는 그대 이름의 아름다움을 얼룩지게 하는 치욕을.  
 오, 얼마나 꽃다운 향기 속에 그댄 그대의 허물을 감싸느고!  
 그대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그 혀도  
 그대의 향락에 대하여 음란한 말로 평하면서도,  
 그 비방을 일종의 찬미로 만들지 않을 수 없으라.  
 그대의 이름을 들면 악평도 축복을 받도다.  
 아, 그대를 들어 있을 곳으로 택한 악덕은  
 얼마나 훌륭한 저택을 택한 것인고!  
 그곳에선 미의 베일이 모든 오점을 덮어버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건 아름다운 것으로 화해버리도다.  
 사랑하는 이여, 큰 특권을 조심하라.  
 가장 날카로운 칼도 잘못 쓰면 날이 상하느니라.

How sweet and lovely dost thou make the shame  
 Which, like a canker in the fragrant rose,  
 Doth spot the beauty of thy budding name!  
 O! in what sweets dost thou thy sins enclose.  
 That tongue that tells the story of thy days,  
 Making lascivious comments on thy sport,  
 Cannot dispraise, but in a kind of praise;  
 Naming thy name, blesses an ill report.  
 O! what a mansion have those vices got  
 Which for their habitation chose out thee,  
 Where beauty's veil doth cover every blot  
 And all things turns to fair that eyes can see!  
 Take heed, dear heart, of this large privilege:  
 The hardest knife ill used doth lose his edge.

제96편

어떤 이는 그대 허물을 젊음에 돌리고, 어떤 이는 방종이라 하고,  
 어떤 이는 그대 우아함이 청춘이요. 품 있는 장난이라 하도다.  
 그 우아함과 허물, 두 가지가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있노라.  
 그대를 찾는 사람에게 그댄 흠도 우아함으로 뵈게 하도다.  
 대수롭잖은 보석도 왕관을 쓴 여왕이 그 손에 끼시면 가치가 높아지어라.  
 그대의 과오도 그렇게  
 진실한 것으로 승화되고, 진실한 것으로 생각되도다.

만일 사나운 늑대가 그 외모를 양처럼 바꿀 수 있다면  
 이 늑대는 얼마나 많은 양을 속일 것인가!  
 만일 그대가 그대의 매력과 지위의 힘을 이용한다면  
 그대는 얼마나 많이 보는 사람을 유혹하리요!  
 그러나 그러지 마시라. 내 사랑 이리도 간절하여라.  
 그대는 내것이어나, 그대의 명성도 내것이라.

Some say thy fault is youth, some wantonness;  
 Some say thy grace is youth and gentle sport;  
 Both grace and faults are loved of more and less:  
 Thou mak'st faults graces that to thee resort.  
 As on the finger of a throned queen  
 The basest jewel will be well esteemed,  
 So are those errors that in thee are seen  
 To truths translated, and for true things deemed.  
 How many lambs might the stern wolf betray,  
 If like a lamb he could his looks translate!  
 How many gazers mightst thou lead away,  
 If thou wouldst use the strength of all thy state!  
 But do not so; I love thee in such sort,  
 As thou being mine, mine is thy good report.

이에 대해서 소네트 비평가 레이쉬만(James Blair Leishman)은 이와 같은 구절들이 두 사람 간 관계에 대한 드문 외부적 단서이지만, “이 청년이 셰익스피어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부적 사실에 비해 사소하고 무관한 것이다”(Leishman 11)고 주장함으로써 시인의 심상에 더 주목하고 있다.

즉, 소네트에서 셰익스피어가 사랑하는 대상이 젊은 청년이라는 사실이 비학문적 일반 독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 독자들은 자신의 감정 문제에 맞추어 시를 이용하거나 인용하고 싶어 한다. 실제로 소네트 제18편을 유튜브나 구글 이미지에서 검색하면 대중적으로 수용되는 반응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다. 소네트에서 사랑의 대상에 관한 비평적 논란은 격렬하지만, 다음 장에서는 대중화 된 소네트를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 작품들이 어떻게 교훈적 효용 가치를 갖게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원전으로 삼아 개작된 청소년 대상 영상물들은 원전에서 느낄 수 있는 위대한 작가의 철학적 주제와 심미적 탁월함이 결여되고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스태(Stam)의 지적처럼 셰익스피어의 영화에 대한 논의는 영화가 원전을 얼마나 충실하게 재현하는가를 따지는 것에서 벗어나 상호텍스트성의 담론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따라서 영화의 개작을 하나의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를 낳는 끝없는 재생산과 변형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Stam 209).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현대 문화적 방식을 차용하여 시도함으로써 탈 셰익스피어의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예로서 루어만(Baz Luhrman) 감독의 <로미오+줄리엣>을 들 수 있는데, 원작으로부터 포스트모더니즘의 현대적 특성을 끌어내어, 폭력과 욕망이 난무하는 현대사회와 그 속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사랑과 고뇌를 묘사하였다. <내가 널 사랑 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10 Things I Hate about you)는 『말괄량이 길들이기』(The Taming of the Shrew)를 현대 미국의 한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십대 청소년들의 고민과 로맨스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으로 각색하여 사운드트랙으로 최신 팝송을 이용하며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작품이다. 팀 블레이크 넬슨 감독의 <오>(O) 역시 『오셀로』(Othello)를 인종문제가 심한 현대 미국의 사립 고등학교 농구팀으로 옮겨놓았다. 이러한 영화들은 주로 현대 미국 청소년들에게서 유행하는 문제와 로맨스를, 패러디와 상호텍스트성, 다양한 대중문화 형식과 혼용하여 다루고 있다.

성인의 사랑을 주로 다루고 있다고 여겨지는 소네트가 청소년 영상물에서도 다양하고 폭넓게 나타나는 것들을 비교해 볼 가치가 있는데, 이러한 영상물에 소네트의 이니시에이션 주제를 드러내며 순수한 사랑과 양성적 경향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그 예로서 TV 드라마 시리즈 <선생님들>(Teachers, 2001-2004)의 시즌 1의 에피소드 3과, <잭과 코디, 우리 집은 호텔 스위트룸>(The Suite Life of Zack and Cody, 2008) 시리즈 3의 에피소드 2, 그리고 영화 <너를 싫어하는 10가지 이유>(Ten Things I Hate About You)에서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소네트에 나타난 맹목적인 사랑이 논해지는 장면을 보여 준다.

영국 중등학교 젊은 교사들의 일상 이야기를 그려낸 텔레비전 코미디 드라마 시리즈물인 <선생님들>(Teachers)은 2001년부터 2004년에 걸쳐 네 번의 시즌과 40개의 에피소드가 제작되었다. 리처드 데일(Richard Dale)이 감독한 첫 번

째 시즌, 에피소드 3에서 주인공 사이먼(Simon)은 반항적인 십대들에게 소네트에 대한 수업을 해야 하는 다소 어려운 임무에 직면하게 된다. 학생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소네트는 자신들의 삶과 동떨어진 ‘헛소리(bollock)’이고 이해하기 힘든 영어로 쓰여진 것이라며 불평해댄다. 사이먼은 소네트가 난해한 것은 단지 ‘그렇게 보일뿐’이라고 학생들에게 언급하지만 자세하게 긴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거부 반응에 대해서 선생님으로서 긴 설명을 덧붙이며 달래거나 설득하려는 대신에 간단한 사실적 핵심을 지적한다. 즉, 소네트는 교과요목에 들어있는 수업이라는 점과, 그러므로 싫어도 반드시 감상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장면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고전 문학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가 비슷함을 떠올리게 한다. 위대한 셰익스피어의 언어일지라도 학생들에게는 따분하고 친근하지 않은 것들이 되어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소네트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수업 장면에서 학생의 수준에 알맞게 소네트를 쉽게 바꾸어 해석하거나 단순화시킬 필요가 생긴다. 물론 소네트가 언급되는 이 장면에서 관객들은 장황하거나 장식적이지 않은, 평범한 보통의 언어로 사람들의 일상적 행동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 2005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방송되었던 <잭과 코디, 우리집은 호텔 스위트룸>(The Suite Life of Zack and Cody)은 미국 디즈니 채널에서 가장 성공한 시트콤 중의 하나이며 iTunes Store에서 최초로 사용된 다섯 편의 프로그램 중의 하나였다. 세 번째 시즌 중 코렐(Rich Correll) 감독의 에피소드 2, “불만의 여름”(Summer of Our Discontent, 2007)에서 주인공 쌍둥이 형제 중에 10분 늦게 태어난 열 살짜리 장난꾸러기 동생, 잭(Zack)은 계속된 학습 부진으로 여름 보충학습 수업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선생님이 제시한 소네트 제18편의 첫 행 “내 그대를 한여름에 비겨볼까(Shall I compare thee to a summer's day)에 대해서 보충학습 수업에 모인 학생들 중 아무도 설명해 내지 못하고 선생님도 당연히 수업에 대한 열의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던 중 잭이 “젊은 여성에게 뜨거운 여름날처럼 매력적이라고 말하며 유혹하는 중이다(Shakespeare is hitting on a chick by telling her that she's hot like a summer's day)”라고 아주 당연한 듯이 간결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자 선생님은 동의하며 매

우 기뻐한다. 여기서 인용된 제18편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18편

내 그대를 한여름날에 비겨볼까?  
 그대는 더 아름답고 더 화창하여라.  
 거친 바람이 5월의 고운 꽃봉오리를 흔들고,  
 여름의 기한은 너무나 짧아라.  
 때로 태양은 너무 뜨겁게 쬐고,  
 그의 금빛 얼굴은 흐려지기도 하여라.  
 어떤 아름다운 것도 언젠가는 그 아름다움이 기울어지고  
 우연이나 자연의 변화로 고운 치장 뺏기도다.  
 그러나 그대의 영원한 여름은 퇴색하지 않고,  
 그대가 지닌 미는 잃어지지 않으리라.  
 죽음도 뿔내진 못하리, 그대가 자기 그늘 속에 방황한다고  
 불멸의 시편 속에서 그대 시간에 동화(同和)되나니.  
 인간이 숨을 쉬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한  
 이 시는 살고 그대에게 생명을 주리.

Shall I compare thee to a summer's day?  
 Thou art more lovely and more temperate:  
 Rough winds do shake the darling buds of May,  
 And summer's lease hath all too short a date:  
 Sometime too hot the eye of heaven shines,  
 And often is his gold complexion dimmed,  
 And every fair from fair sometime declines,  
 By chance, or nature's changing course untrimmed:  
 But thy eternal summer shall not fade,  
 Nor lose possession of that fair thou ow'st,  
 Nor shall Death brag thou wander'st in his shade,  
 When in eternal lines to time thou grow'st,  
 So long as men can breathe, or eyes can see,  
 So long lives this, and this gives life to thee.

대중들에게 고전적인 사랑의 시로 알려져 있는 제18편을 보면 시인의 “영원한 시행”(eternal lines)속에서 “그대의 영원한 여름”(thy eternal summer) 즉, 젊은이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쁨이 시 속에 동화되어 시인을 기쁘게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시의 처음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여름날보다 “그대가 더 사랑스럽다”(thou are more lovely)고 말하지만, 수신자는 분명히 여름날처럼

럼 짧은 아름다움을 지녔기에 시인의 예술로 길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암시로 끝맺는다.

청소년들이 등장하는 영상물 중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배경을 현대의 교실로 바꾸어서 나타내는 장면에서, 선생님이나 학생들을 평범하지 않는 유별난 사람으로 묘사하여 극적 효과를 더하는 경우가 있다. 셰익스피어 희곡 『말괄량이 길들이기』(*The Taming of the Shrew*)를 현대물로 각색한 정거(Gil Junger) 감독의 영화, <너에 대해 싫어하는 10가지 이유>(*Ten Things I Hate About You*)는 미국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옮겨왔다. 이 영화의 주인공 여학생인 케이트(Kate)는 그녀의 동급 남학생들이 아주 싫어하는, 성격이 괴팍하고 따분한 페미니스트를 추종하는 유별난 학생이다. 문학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흑인 선생님은 셰익스피어 소네트 제141편을 랩 형식으로 들려주어서 학생들을 놀라게 하고 "I know Shakespeare is a dead white guy, but he knows his shit" 라고 말하며 더욱 학생들의 환심을 사게 된다. 선생님은 소네트 제141편, “진실로 나의 눈으로는 그대를 사랑하지 않노라(In faith I do not love thee with mine eyes. . .)”을 학생들 자신의 버전으로 다시 써오도록 과제를 내준다.

#### 제141편

진실로 나는 눈으로는 그대를 사랑하지 않노라.  
 눈은 그대에게서 천(千)의 허물을 보기 때문이라.  
 그러나 눈이 멸시하는 것을 시각엔 상관없이  
 나의 마음은 매혹된 듯이 사랑하도다.  
 나의 귀도, 그대 하는 말을 즐기지 않도다.  
 섬세한 촉감은 저열한 자극에 기울어지지 않고  
 미각도 후각도 그대와 같이  
 어떤 육(肉)의 향연에도 초대 받으려 하지 않노라.  
 그러나 나의 지력(知力)도, 나의 오감(五感)도  
 어리석은 마음이, 그대 섬기는 것을 막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음은 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허수아비로 두고 가도다.  
 거만한 마음의 노예, 비천한 시종이 되려고.  
 오직 나의 이런 고통만을 이익으로 여기노라,  
 나에게 죄를 짓게 한 그녀가 주는 고행이기에.

In faith I do not love thee with mine eyes,  
 For they in thee a thousand errors note;

But 'tis my heart that loves what they despise,  
 Who, in despite of view, is pleased to dote.  
 Nor are mine ears with thy tongue's tune delighted;  
 Nor tender feeling to base touches prone,  
 Nor taste, nor smell, desire to be invited  
 To any sensual feast with thee alone:  
 But my five wits nor my five senses can  
 Dissuade one foolish heart from serving thee,  
 Who leaves unswayed the likeness of a man,  
 Thy proud heart's slave and vassal wretch to be:  
     Only my plague thus far I count my gain,  
     That she that makes me sin awards me pain.

헨더슨에 따르면 ‘이 영화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판단과 시각을 드러내려고  
 했다면 모순적 선택을 하게 하는’ 숙제를 내주었다고 지적했다(Henderson 136).  
 이때 학생들은 대부분 무관심하게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는 반면, 유일하게 케  
 이트 혼자만 시의 형식을 약강 오보격(iambic pentameter)으로 써야하는지에 관  
 해 질문을 한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백인이며 시적인 지식에 반감을 가지고 있  
 는 듯 보이는 십대들의 교실에서 흑인 선생님과 케이트는 그들의 분위기와 겉도  
 는 예외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 영화는 <메트릭스>(The Matrix)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흥행 성적을 보이  
 며 비용대비 수익률과 비평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이후 10년 뒤 ABC  
 사에서 TV 시리즈로 이어졌다. 이 영화의 제목은,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  
 주인공 케이트가 불량소년으로 연기한 남자친구 페트릭(Patrick)을 위해 쓴 시에  
 서 유래한다. 과제를 발표하는 수업 장면에서 그녀는 오해 때문에 마음이 상한  
 상태로 페트릭을 향해 지어온 자작시를 다음과 같이 들려준다.

    너에 대해 싫어하는 열 가지  
     나는 네가 나에게 대하는 말투와,  
     너의 머리 스타일이 싫어.  
     네가 내 차를 모는 방식이 싫어.  
     네가 날 쳐다보는 눈길이 싫어.  
     너의 무식하게 큰 군화도 싫고, 내 마음을 들어다보는 것도 싫어.  
     너는 나를 아프게 하고, 심지어 시까지 쓰게 하는 것이 싫어.

네가 항상 옳다고 우기는 것이 싫어.  
 네가 거짓말 할 때 싫어.  
 네가 날 웃게 할 때도 싫고,  
 날 울게 만들 때는 더더욱 싫어.  
 네가 내 곁에 없는데,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이 싫어.  
 그렇지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내가 너를 조금도, 아주 조금도, 전혀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

Ten Things I hate about you  
 I hate the way you talk to me,  
 And the way you cut your hair.  
 I hate the way you drive my car.  
 I hate it when you stare.  
 I hate you big dumb combat boots,  
 And the way you read my mind.  
 I hate you so much it makes me sick,  
 It even make me rhyme.  
 I hate the way you're always right.  
 I hate it when you lie.  
 I hate it when you make me laugh,  
 Even worse when you make me cry.  
 I hate it when you're not around, and the fact that you didn't call.  
 But mostly I hate the way I don't hate you, not even close, not even a little bit, not even at all.

<너에 대해 싫어하는 10가지 이유>

이러한 결말이 오기까지의 내용은 간단하다. 먼저 이 학교의 신입생 카메론(Cameron)은 케이트의 여동생 비앙카(Bianca)에게 반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언니 케이트의 이성교제가 있어야만 동생도 남학생과 사귄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자신의 연적인 부유한 조이(Joey)에게 접근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품행이 단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말괄량이 케이트와 어울려 보이는 페트릭을 매수하도록 계락을 꾸민다. 그 사이 카메론은 친구 마이클(Michael)의 도움을 받아서 비앙카와 가까이하는데 성공하고, 페트릭도 케이트를 유혹하여 달콤한 데이트를 한다. 한편 새로운 여자 친구를 유혹할 기회를 얻은 조이는 멋진 몸과 많은 재력으로 비앙카를 즐겁게 하지만, 그의 바람둥이 기질을 발견한 비앙카는 카메론을 선택하여 키스를 한다. 이것에 대한 응징으로 조이는 케이트에게 페트릭을 매수한 사실을 알리고, 결국 그들 커플은 위기에 봉착한다. 이후 영화는 위와 같이 마지막

장면으로 이어지고, 페트릭이 돈을 벌기 위해 또는 장난으로 시작한 케이트와의 연애가 사랑으로 변한 것이다.

이제 이 영화의 중심 테마는 소네트 제141편의 주제인, 시인의 마음이 몸으로 느낀 바와 일치되지 않는다는 현상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이 케이트가 페트릭에 대해서 느낀 심정으로 전이되어 그만큼 사랑의 힘은 이성적 사고나 인습적 판단력으로 제어하기에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인은 자신의 모든 정신적 능력을 이용하여 상대에 대한 평가를 엄밀하게 해보지만,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정거 감독의 영화는 대부분의 로맨스 작품들이 그렇듯이 주인공들의 행복한 결합으로 끝이 난다. 하지만 케이트가 뉴욕에 있는 사라 로렌스 대학(Sarah Lawrence College)에 입학하여 밴드부(Band)에서 활동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페트릭과의 애정이 계속 이어질지는 의문으로 남겨 놓았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가 인용한 소네트 제14편의 내용을 역으로 적용해보면 그들의 애정관계는 낭만적 일로만 취급되기는 어렵다는 아이러니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화들은 셰익스피어 소네트가 페트라르카 풍의 시와 동일한 낭만적 작품으로서 응답이 없는 사랑을 노래한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너에 대해 싫어하는 10가지 이유>는 소네트에서 청년이 시인의 구애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시인의 소극적인 태도에 있다는 점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소네트의 낭만적이면서도 고통스러운 애정 표현이 청소년 시기에 흔하게 나타나는 정서적 상처와 혼란스러운 갈등을 통해 성장해 가는 이니시에이션 맥락으로서 짝사랑과 삼각관계의 내용에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이니시에이션 맥락을 담고 있는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은, 원작의 정확한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1590년과 1595년 사이의 시기에 쓰여 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소네트도 쓰여졌다고 보여지는데, 구조와 인물의 사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시의 형식을 엘리자베스시대에 유행하던 극 요소에 가미하고 인물을 과장되게 표현하며 또한 성적인 장면들을 더하였다. 여기에 셰익스피

어는 순수한 연인들 주위에 음란성 있는 인물들을 배치하였다.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볼 때 실험적인 면이 있었지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수 세기에 걸쳐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다. 비평가들은 이어진 비극들과 비교하여 평가 절하하는 경향을 보여 왔지만, 20세기에 들어서 이 극의 장점을 인정받게 되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작되어 방영되기도 하였으며,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에도 배정되기에 이른다. 사랑과 증오라는 두 개의 틀 속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전통적인 방식은 소네트의 주된 주제 중의 하나이다. 또한 아래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표현하는 대화 형식의 4행 연구는 소네트 형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ROMEO  
 (taking JULIET's hand) If I profane with my unworthing hand  
 This holy shrine, the gentle sin is this:  
 My lips, two blushing pilgrims, ready stand  
 To smooth that rough touch with a tender kiss.

JULIET  
 Good pilgrim, you do wrong your hand too much,  
 Which mannerly devotion shows in this,  
 For saints have hands that pilgrims' hands do touch,  
 And palm to palm is holy palmers' kiss

(Romeo and Juliet Act 1. Scene 5. 94-101)

소네트의 주제들은 사랑이나 아름다움( beauty)과 같은 전통적으로 자주 언급되어 왔던 주제와 더불어 시간(time)이나 가변성(mutability)에 대한 의미가 더해져 있다. 아름다운 처녀가 아닌 젊은이(a young man)에 대한 사랑이나 찬양이 담긴 시로써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가 지닌 특별한 아름다움을 닮은 아이를 갖도록 권하며 시행 속에 나타난 친구의 미모를 불멸화시키고 있다.

셰익스피어 희극과 각색된 영화작품에서도 소네트에 나타난 신비스런 양성적 매력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십이야』(*Twelfth Night*)에서 오시노(Orsino)의 변덕스러움을 고쳐주기 위해 세자리오(Cesario)로 변신한 바이올라(Viola)와 『뜻대로 하세요』(*As You Like It*)에서 로살린(Rosalind)은 소년 급사로 변장하

고 당돌한 모습으로 올란도(Orlando)를 당황하게 한다. 제20편과 제21편의 관계를 살펴보면 셰익스피어는 ‘여성 같은 남성’(master-mistress)에게 뿐만 아니라 아마도 ‘남성 같은 여성’(mistress-master)을 마주쳤을 때에도 그의 감성을 놀라게 했을 것이다.

셰익스피어가 사랑과 코미디를 밀접하게 연결하는 방식으로는 장난스럽고 명랑한 사건들이 이어지게 하며 놀랍도록 기발하게 성역할을 바꿔게 하는 것들이 있다. 재치 있으면서 의외의 발상을 일으키는 말들이 오고가며 명쾌하게 마무리 짓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소네트 제20편을 보자면 시인이 사랑하고 있는 남성이 교묘하게 여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물론 이 경우 ‘여성 같은 남자’가 양성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말로 인식되기는 하지만 그 사연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다만, 시인은 애인의 모습을 여성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려내면서도 여성의 변덕스러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 제20편

나의 정열을 지배하는 여성 같은 남성 그대는,  
 자연의 손으로 화장한 여인의 얼굴을 갖고 있도다.  
 그리고 여자의 고운 마음씨, 그러면서도  
 부정한 여자와 달라 변할 줄을 몰라라.  
 여인의 눈보다 황홀한 그대의 눈은 허위로 움직이지 않고,  
 보는 것마다 도금한 듯하여라.  
 용색(容色) 아름다운 사나이로 모든 용색을 제어하며,  
 남성의 눈을 유혹하고 여성의 혼을 현혹시키도다.  
 그대는 처음에 여자로 태어날 것을,  
 자연이 만드는 도중 사랑을 느껴,  
 하나를 더 첨가하여 나를 실망시켰도다.  
 나에게서는 아무 소용없는 물건을 탈게 하여.  
 여자의 기쁨을 위하여 만들어진 그대이니,  
 그대의 사랑만이 내것이요, 그것은 그들의 보배로다.

A woman's face with nature's own hand painted,  
 Hast thou, the master-mistress of my passion;  
 A woman's gentle heart, but not acquainted  
 With shifting change, as is false women's fashion:  
 An eye more bright than theirs, less false in rolling,  
 Gilding the object whereupon it gazeth;

A man in hue, all 'hues' in his controlling,  
 Which steals men's eyes and women's souls amazeth.  
 And for a woman wert thou first created;  
 Till Nature as she wrought thee, fell a-doting,  
 And by addition me of thee defeated,  
 By adding one thing to my purpose nothing.  
 But since she pricked thee out for women's pleasure,  
 Mine be thy love and thy love's use their treasure.

셰익스피어가 소네트에서 사용한 정교한 언어를 오늘날 현실의 삶과 연결지어 봄으로써 복잡하고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 십대들도 소네트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타협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드러내며, 미국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청소년들의 정서적 고통을 그려낸 드라마로서, ABC에서 방영된 <마이 소 콜드 라이프>(My So-Called Life, 1994-1995)가 있다. 기존의 청소년 드라마가 가볍고 재미있는 낭만적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마이 소 콜드 라이프>에서는 아동 학대와 알코올 중독, 강간, 학교 폭력, 마약 사용 등 1990년대 중반의 사회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드라마에 비해 어렵고 혼란스러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 조던(Jordan), 브라이언(Brian), 안젤라(Angela)는 소네트에서 화자와 젊은 청년, 그리고 검은 여인의 관계와 같이 복잡한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안젤라는 수줍음 많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여학생으로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남학생인 조던에게 반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조던도 안젤라를 좋아하게 되지만 그는 자신의 친구들이 알게 될까봐 주저하는데, 그것은 안젤라가 또래 남학생들이 흔히 좋아할 만한 예쁜 여학생의 기준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부심”(Self-Esteem)이라는 제목의 에피소드 12에서는 수업시간 중에 소네트 제130편을 읽고 나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시인의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 시에서 묘사하는 여성과 이상적인 여성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피력해보라고 한다.

제130편

내 애인의 눈은 조금도 태양 같지 않아라  
 산호는 그의 입술이 빨간 것 보다 더 빨갛고

눈이 희다면 그 가슴은 검은 편이,  
 머리털이 금줄이라면 그녀의 머리털은 검은 실줄이다.  
 나는 붉고도 흰 장미를 보았지만  
 그녀의 뺨에서는 그런 장미를 볼 수 없어라.  
 어떤 향수에는 그녀의 입김보다도  
 더 좋은 냄새가 있어라.  
 그 음성을 내 사랑하지만  
 음악만은 못한 것을 내 아노라.  
 여신이 걷는 것을 나는 못 보았거니  
 나의 여신은 언제나 땅을 밟도다.  
 그러나 단정코 나의 애인은  
 거짓을 견주어보는 누구보다 진귀하여라.

My mistress' eyes are nothing like the sun;  
 Coral is far more red than her lips' red;  
 If snow be white, why then her breasts are dun;  
 If hairs be wires, black wires grow on her head.  
 I have seen roses damasked, red and white,  
 But no such roses see I in her cheeks;  
 And in some perfumes is there more delight  
 Than in the breath that from my mistress reeks.  
 I love to hear her speak, yet well I know  
 That music hath a far more pleasing sound;  
 I grant I never saw a goddess go;  
 My mistress, when she walks, treads on the ground:  
 And yet, by heaven, I think my love as rare  
 As any she belied with false compare.

보통은 누구나 그렇듯이,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여성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 내려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셰익스피어는 사랑하는 여성을 "nothing like the sun"이라 하며 아름답지 않은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셰익스피어가 묘사하는 여성이 이상적인 아름다운 여인을 나타내는 가를 선생님이 질문하자 브라이언은 아니라고 대답한다. 또한 브라이언이 셰익스피어가 사랑하는 여성은 환상이 아닌 진짜 사람이라고 대답하자, 조던은 전적으로 그 말에 동의한다. 두 남학생이 여성을 이상적으로 생각해왔던 것에 대해 명확하게 깨닫고 인식하게 되는 장면에서, 선생님은 교실 안에서의 토론이 꽤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고마움을 나타

내고 흡족해 한다.

선생님: 여기에서 셰익스피어가 묘사하는 여성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인가요?

브라이언: 아뇨.

선생님: 여신같은 여자인가요? 음? 몸매가 완벽한? 그녀가 길을 걸을 때면 차들이 멈춰서는 그런 여성인가요?

브라이언 [킁킁대며]: 아뇨.

선생님: 그럼, 그가 사랑하지 않나요?

조던 [작은 소리로]: 네. [좀더 크게] 그는 그녀를 사랑해요.

선생님: 왜 그런가요? 왜 그녀를 사랑하나요? 이유가 뭐죠? 그녀는 어떤 사람인가요?

브라이언: 그녀는 그저 환상이 아니에요. 그녀는, 결함이 있는, 진짜 사람이에요.

선생님: 고마워요.

Mr. Katimski: What kind of girl is Shakespeare describing here? Is she the most beautiful girl?

Brian: No.

Mr. Katimski: Is she a goddess? Mmm? Physically perfect? The kind of girl who stops traffic when she walks down the street?

Brian [with a slight chuckle]: No.

Mr. Katimski: So he's not in love with her?

Jordan [barely audible]: Yeah. [Then louder:] He is.

Mr. Katimski: Well, and why is that? Why is he in love with her?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about her?

Brian: She's not just a fantasy. She's got . . . like . . . flaws. She's real.

Mr. Katimski: Thank you.

<마이 소 콜드 라이프>

그 다음 장면은 학교에서 조던이 안젤라의 손을 잡고서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다른 사례들에서도 드러나듯이, 대중적인 청소년 드라마와 영화에서 평범한 주인공들의 상호작용에 깊이를 더해주는 것은 특별한 “셰익스피어의 권위”(the authority of Shakespeare)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Balizet 132).

사춘기 남학생들이 멋진 미사여구로 좋아하는 여학생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궁색해 할 때 셰익스피어 언어로부터 도움을 얻는 장면들이 있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주제는, 또래집단의 관객들에게 교실에서 어렵게 습득한 지식이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도 있다는 것

이다. 등장인물들이 시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장면을 그려낸다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TV 드라마 <코리 인 더 하우스>(Cory in the House, 2007-2008)는 디즈니 채널에서 방송된 코미디 시트콤이다. 주인공인 흑인 소년 코리(Cory)의 아빠가 백악관의 요리사로 일하고 있다는 설정으로 말쑥꾸러기 코리가 친구들과 함께 백악관과 학교에서 좌충우돌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코리는 학교에서 마음속으로만 좋아해 온 외국 대사의 딸 미나(Meena)와 부유한 상원 의원의 아들이며 예의바르지만 매우 둔한 성격의 뉴트(Newt)하고 친한 친구가 된다. 첫 번째 시즌 에피소드 12 “더 똑똑해지기”(Get Smarter, 론델 세리던 감독)에서 뉴트는 학교에서 가장 똑똑한 여학생과 시를 읽는 모임에 가게 되는데, 그는 그 여학생에게 지적으로 보이고 싶은 부담감 때문에 겁을 먹는다. 코리와 미나는 같이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하다가 뉴트에게 수신기를 달아주기로 한다. 미나는 적당히 인용 할 수 있는 글귀로 소네트 제18편을 선택해서 코리에게 전하며 “아주 로맨틱한 시를 뉴트에게 따라 읽도록” 시키라고 한다. 코리는 미나의 말대로 송신기를 통해 뉴트에게 전달하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말하라”며 소네트 제18편의 첫 행 “Shall I compare thee to a summer's day. . .”을 읽는다. 뉴트는 누구의 무슨 시인지 모르는 채 시키는 대로 따라하지만 그 똑똑한 여학생은 시를 듣자마자 매우 감동하며 “첫 번째 데이트에 소네트 제18편은 멋진 선택”(Shakespeare's eighteenth sonnet on the first date, nice choice)이라고 말한다.

좀 더 자란 대학생들의 경우에 남학생이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셰익스피어의 시를 인용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워로다스키(Wallace Wolodarsky) 감독의 미국 코미디 영화, <소리티티 보이즈>(Sorority Boys)는 남학생 클럽에서 클럽 금고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금고 자금을 관리하던 데이브(Dave), 두퍼(Doofar), 애덤(Adam)은 누명을 쓰고 쫓겨나자, 여장을 하고 다시 클럽 파티에 들어가지만 다시 쫓겨난다. 그때 여학생클럽 회장 레아(Leah)가 이들을 여학생으로 착각하고 도와주려고 하며 내용이 전개된다. 영화 서두에 애덤은 여학생이 데이트 권유를 받아들이게 하고픈 마음에서 소네트로 환심을 사려고 계획한

다. 그는 너무 잘 알려진 제18편보다 제20편을 외워서 목표 대상이었던 여학생에게 들려주지만, 그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해버린다. 애덤은 노천카페에서 책을 보고 있는 레아를 보자, 다가가서 소네트 제20편의 첫 행을 암송한다. 레아는 듣자마자 소네트 20번의 다음 행을 이어서 암송한다. 애덤은 별다른 감정이 없었던 레아에게 호감을 가지려는 순간, 레아는 그의 계책을 꿰뚫어 보며 분명하게 애덤을 목살해버리며 “제발 셰익스피어를 몇 줄 인용하는 것으로 여자애들이 반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Please, a few lines of Shakespeare and you expect a girl to swoon)라고 말하고 하던 공부를 계속한다. 이 장면에서는 레아가 애덤에게 매우 정확한 지적을 해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남학생은 여학생들이 시에 열광하는 낭만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단지 소네트 한 행을 전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장면에서는 지금까지 전형적인 여학생에 대한 개념에 희극적 효과를 더하여 양성간의 대립과 경쟁을 구도화하고 있으며, 패러디와 상호텍스트성, 다양한 대중문화의 방식이 혼용되어 나타난다.

### 3. 소네트와 성장영화

셰익스피어는 소네트 제17편에서 “미래에 누가 나의 시를 믿어주리오 / 시구마다 그대의 미덕으로 충만해 있더라도.”라고 표현하여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이 어찌면 일반 독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듯하다. 물론 중년 유부남으로서 시인은 이 시에 동성애적 맥락을 포함시킨 것에 윤리적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소네트 제77편, “그대의 거울은 그대 아름다움이 얼마나 깎이는가를 보여주리라,” 그리고 제122편에서, “그대가 주신 수첩은 지금 내 머리 속에 있나니/잊을 수 없는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였기에”라고 피력함으로써 세월이 지나 무색해질 젊음의 한계성과 그것을 시집에 담아 보겠노라고 한 약속이 지금까지 400여년이 흐르도록 지켜진 셈이다.

제17편

누가 나의 시구를 믿어주리오?  
 시구마다 그대의 미덕으로 충만해 있더라도.

하늘은 알리니, 시란 한낱 무덤에 지나지 않는 것을,  
 그대의 진정한 생명 가리고, 그대의 천재를 반도 못 나타내는.  
 그대의 아름다운 두 눈을 글로 묘사하고,  
 새로운 노래로 그대의 우아를 예찬하더라도,  
 후세 사람은 말하니, ‘이 시인은 거짓이다,  
 인간의 모습이 이런 천국의 필치로 그려진 예는 없다’고.  
 내 시집은 연륜과 함께 퇴색하여,  
 수다스러운 늙은이같이 비난을 받고,  
 그대의 탁월은 시인의 광상(狂想)이요,  
 옛 시에서 보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그러나 그때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서 그대 다시 살으리라, 그리고 내 시에서도.

Who will believe my verse in time to come,  
 If it were filled with your most high deserts?  
 Though yet heaven knows it is but as a tomb  
 Which hides your life, and shows not half your parts.  
 If I could write the beauty of your eyes,  
 And in fresh numbers number all your graces,  
 The age to come would say 'This poet lies;  
 Such heavenly touches ne'er touched earthly faces.'  
 So should my papers, yellowed with their age,  
 Be scorned, like old men of less truth than tongue,  
 And your true rights be termed a poet's rage  
 And stretched metre of an antique song:  
 But were some child of yours alive that time,  
 You should live twice, in it, and in my rhyme.

제77편

그대의 거울은 그대 아름다움이 얼마나 깎이는가를 보여주리라.  
 그대의 해시계 그대 귀한 시간이 어떻게 낭비되는가 보여주리라.  
 또 이 빈 종잇장은 그대의 마음의 자취를 지니리라.  
 그대는 이 책에서 이러한 교훈을 음미하리라.  
 그대의 거울이 진실하게 보여주는 이마 주름은,  
 입을 벌린 무덤의 기억을 주리라.  
 그대는 시계의 숨어서 가는 그림자를 보고  
 영원으로 향하는 시간의 밀행(密行)을 알리라.  
 보라! 그대의 기억이 간직하니 못하는 것은  
 이 빈 지면(地面)에 맡기라,  
 하면 그대의 두뇌에서 태어나 길러지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그대 마음의 새 친교(親交)를 얻으리라.

거울과 시계를 들여다볼 때마다  
그대는 이익을 얻고 이 책은 풍부해지리라.

Thy glass will show thee how thy beauties wear,  
Thy dial how thy precious minutes waste;  
These vacant leaves thy mind's imprint will bear,  
And of this book, this learning mayst thou taste.  
The wrinkles which thy glass will truly show  
Of mouthed graves will give thee memory;  
Thou by thy dial's shady stealth mayst know  
Time's thievish progress to eternity.  
Look! what thy memory cannot contain,  
Commit to these waste blanks, and thou shalt find  
Those children nursed, delivered from thy brain,  
To take a new acquaintance of thy mind.  
    These offices, so oft as thou wilt look,  
    Shall profit thee and much enrich thy book.

제122편

그대가 주신 수첩은 지금 내 머리 속에 있나니  
잊을 수 없는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였기에,  
헛된 종잇장들 이상으로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토록 남으리라.  
적어도 뇌와 심장이  
자연 법칙에 의하여 기능을 계속하는 한  
메모 한 장이 그대의 기억을  
완전한 망각에 내맡기기 전에는.  
그 메모에는 그리 많이 적어 넣을 수도 없고,  
내 또한 그대의 사랑을 기록할 나무쪽을 필요치 않노라.  
그리하러 나는 겁도 없이 그 수첩을 다 버렸어라,  
그대를 더 많이 기록할 내 기억을 믿고.  
    그대를 기념하는 부속물을 간직함은  
    내 건망증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라.

Thy gift, thy tables, are within my brain  
Full charactered with lasting memory,  
Which shall above that idle rank remain,  
Beyond all date; even to eternity:  
Or, at the least, so long as brain and heart  
Have faculty by nature to subsist;  
Till each to razed oblivion yield his part

Of thee, thy record never can be missed.  
 That poor retention could not so much hold,  
 Nor need I tallies thy dear love to score;  
 Therefore to give them from me was I bold,  
 To trust those tables that receive thee more:  
     To keep an adjunct to remember thee  
     Were to import forgetfulness in me.

비록 소네트 제52편과 제75편 그리고 제87편이 성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Cox 481), 화자와 상대방이 동성애적 육체관계를 가졌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며, 시인에 대한 동성애적 담론은 지극히 사변적 내용을 보여 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청소년 영화들은 시인의 성적 경향에 대한 편견 때문에 소네트 제18편의 유명한 문장인 “당신을 여름날에 비교할 수 있을까” 정도를 인용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 소네트 전체가 하나의 연속체로서 이 니시예이션 주제에 해당하는 감정과 이 작품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된 것처럼 검은 여인을 상대로 화자인 시인과 청년 사이에 펼쳐지는 성적 유희가 담고 있는 교훈을 전하는 시각으로 이 작품을 해석한다면, 순수한 사랑과 양성적 매력을 추구한 이 로맨스 영화가 아름답고 진솔한 소네트의 시어를 듬뿍 이용한 좀 더 완전한 성장영화로 제작될 전망은 밝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헤가티(Emily Hegarty)가 주장하듯이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는 고등문화의 상징으로서 사랑의 욕망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은근하면서도 좀 더 감동적인 영감을 주게 될 것이다(Hegarty 56).

이렇듯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영상화하여 현대의 청소년 세대에게 셰익스피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복합적인 각색과 인용을 더하는 작품들이 영상화되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는 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는 청소년 또는 청년 독자들에게 이니시예이션 매개체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청소년대상의 코미디물과 소네트 간의 역설적 결합은 셰익스피어의 텍스트를 각색하거나 재창조하여 또 다른 새로운 세대에게 부응하는 고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IV. 셰익스피어와 동성애 문화 콘텐츠

### 1. 소네트와 동성애 영화

문학작품은 암호화된 체계에서 살펴볼 때, 비문학적인 글에서보다 전작들이 미치는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는 바, 작가는 물론이고 독자들의 태도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문학에서의 온전한 창조성은 엄밀한 의미에서 선례가 되는 작품들과 비교함을 전제로 한다. 사람들의 감상행위는 통시적이든 공시적이든 그들이 경험해 온 바에 기초하여 무의식적 상호텍스트성에 좌우되고, 대체적으로 유명한 작품을 기준으로 형성된 위계질서가 순환과 상호작용을 통해 중립적으로 보이는 현상에 의해 지배되어져왔다. 특히 문학 장르 중 시는 수천 년에 걸쳐서 간략하면서도 함축적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의 대립적 개념인 안티테제가 명확성을 잃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텍스트가 “음소, 어휘, 이미지, 박자와 암시”(Wu and He 45)와 같은 서로 다른 체계들로 이루어진 다중적이고 다의미적인 상호텍스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또한 오늘날 제작되고 있는 영상물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상호텍스트성을 현저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소네트에 나타난 동성애적 경향은, 지난 400여 년에 걸쳐서 “검열, 정치적 타락, 인종주의와 종교적 편협성”에 의해 시련을 겪으면서도(Boose and Burt 259), 문화적 한 양상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예를 들어 로맨틱 코메디, <굿바이 걸>(The Goodbye Girl, 1977)에서 <리처드 3세>(Richard III)의 리허설에 동성애자로 연기하게 한 엘리엇(Elliot) 역을 맡은 드뤼퍼스(Richard Dreyfuss)와 전위적 작품 <프로스페로의 서재>(Prospero's Books, 1991)에서 칼리반(Caliban) 역을 맡은 클라크(Michael Clark)가 실제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은 21세기 현재에 이르러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 보인다. 같은 취지에서 전준택은 셰익스피어의 이성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제피렐리(Franco Zeffirelli)와 자먼(Derek

Jarman)의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후기구조주의로부터 힘을입은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 “인간의 성적 모호성, 사회적 산물로서의 성, 그리고 ‘이성’과 ‘동성’의 이항대립론의 위험성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전준택, 「Getting」, 291). 그리고 <셰이프 오브 워터>(The Shape of Water, 2017)에서 남성 등장인물 자일즈(Giles)가 퇴락한 광고업자이면서 외로운 동성연애자 역할을 잘 소화해 냈는데, 이 영화가 2018년 제90회 아카데미 최고작품상을 받는데 크게 기여했다.

나아가 <헨리 4세>(Henry IV)를 토대로 각색한 <아이다호>(My Own Private Idaho, 1991)에서 스콧이 카멜라와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수면증 환자인 마이크가 홀로 남는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서 보듯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무엇보다 사랑의 삼각관계를 강력한 모티프로 하는 많은 영화들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소네트를 구성하고 있는 화자와 미남 청년 그리고 난잡한 검은 여인 사이에서의 애매한 삼각관계는 양성애자인 남성을 중심으로 삼거나, 또 다른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이야기의 전형을 이룬다. 이러한 주제를 담은 영화들은 크리스티바(Kristeva)가 말한 바와 같이 “인용들의 모자이크”이자 “다른 텍스트를 흡수하고 변형한” 작품이자, “상호텍스트성이 상호주관성을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Moi 37). 그런데 흥미롭게도 화자인 시인은 미남 청년에게 우정 이상의 사랑을 표현하며 검은 여인과의 육체관계를 경계하지만, 그들이 관계를 가진 후에는 동성의 남자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회복한 반면 이성적 존재를 악마로 비난하는 이중적이면서도 여성혐오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소네트에서는 정신적 개념으로서 동성애가 육체적 쾌락에 기초한 이성애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셰익스피어의 성적 경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의 전기적 사실과의 관련성을 추론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러한 시도는 이 시에 내포된 작가 내면의 심리적 욕망이 그의 실제 삶에서 출발하였으리라는 어찌면 당연해 보이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성애적 성향은 물론이고, 다른 여성들과 교제했던 구체적인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부스(Stephen Booth)는 “소네트 어느 곳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주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Booth 548). 21세기 현재 국내 연구자들에서도 셰익

스피어의 전기적 근거를 토대로 작가의 섹슈얼리티를 추측하기보다 작품 자체에 드러난 현상만을 분석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네트가 만들어 낸 풍부한 상호텍스트성 효과 때문에 작가의 성적 경향은 학문적 호기심을 여전히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알려진 전기적 사실만으로도 새로운 의문점과 단서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우선 소네트의 화자는 선천적인 원인에 따른 동성애자라기보다 후천적 습성에 따른 양성애자로서 동성애적 감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작가가 런던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던 때는 물론이고 극작가와 사업가로서 성공했을 때에도 아내와 자식들을 도시로 이주시켜 함께 살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작가가 외도를 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던컨-존스(Katherine Duncan-Jones)와 그리어(Germaine Greer)가 추측하듯이 작가가 행복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혼인생활이 여성을 혐오하는 현상을 포함하여 양성애적 성향에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점은 국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다.

이외에도 154편의 소네트들이 한 개의 작품으로서 그 연속성을 보장한다면, 작가가 미남 청년에게 고백한 사랑이 육체관계의 단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연 동성애가 될 수 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또한 자신은 검은 여인과 성관계를 맺었으면서 미남 청년에게 그것을 권유하지 않음은 이율배반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여기에 더하여 미남 청년에게 출산을 강조한 것은 혼인을 통한 건전한 성행위를 의미함인데 작가가 동성애자라면 굳이 이것을 강요해서 자신과의 관계를 종료시키려고 했는지도 의문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논제에 대해서 작가가 허구적 인물인 미남 청년을 사실상 과거의 자신과 동일시하고, 지난 날 정신적 애정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문란한 성관계를 후회했다거나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 것으로도 해석가능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영화 작품들은 마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듯한 내용으로 각색되었는데 이것은 그 장르에 언어 이외에 문화적 상호텍스트성이 접목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 2. 소네트 화자의 동성애적 경향

새로운 논점을 논하기에 앞서 소네트의 화자로 여겨진 셰익스피어의 성적 경향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들을 소개하자면, 우선 소네트의 화자를 동성애적 관점에 비추어 볼 때 화자는 검은 여인의 육체적 매력보다 미남 청년에 대한 정신적 사랑을 우선시하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시의 헌정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여러 추론들을 다루면서 19세기 화제의 인물인 와일드(Oscar Wilde)가 극단의 여성배역 남성배우 휴스(Willie Hughes)를 지목한 것을 강조한다. 소네트 텍스트 상에 성구별을 나타낸 경우가 전체의 17.5퍼센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사변적 성격을 지니긴 하지만, 400여 년에 걸쳐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음을 살펴 볼 것이며, 이후 화자의 성적 경향을 시 텍스트와 예술사의 관점에서 논할 것이다.

우선 소네트의 구성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보자면, 소네트의 수신자(addressesee)인 미남청년과 검은 여인을 기준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1번부터 126번까지가 높은 지위에 있는 미남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처음 17편은 출산을 강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청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109편의 시들은 화자의 애절한 사랑을 노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그 청년은 그것에 무심한 존재로 등장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제127편에서 제152편까지 26편의 시에서 화자는 자신과도 관계를 맺은 문란한 검은 여인(dark lady)에게 전편의 청년이 유혹되는 것을 경계하지만 134편에서 결국 우려하던 일이 사실로 드러나자 분노와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는 그를 잃고 당신은 그와 나 둘 다 얻었어라./그는 금액을 지불했지만 나는 자유롭지 않아라.”(Him have I lost, thou hast both him and me; / He pays the whole, and yet am I not free,)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그녀의 매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제134편

이렇게 나는 그가 당신의 것이고,  
 나 자신도 당신의 뜻대로 되는 저당물이라 고백한 지금,

나는 나 자신을 몰수당하리라, 그래도 위안이 되게  
 제 2의 나를 그대가 돌려준다면.  
 하나 당신은 그리 아니 할 거요, 그도 자유가 되지 못할 것이라,  
 그대는 탐욕이 많고, 그는 마음이 좁기 때문이라.  
 그는 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줄만 알았는데  
 그 증서로 그대는 그를 속박했어라.  
 그를 그대의 아름다운 담보로써 취득하려 하는  
 아! 그대는 고리대금업자, 모든 것에 이자 붙이고,  
 나를 위하여 채무자가 된 그를 고소하도다.  
 이리하여 나 그를 잃었노라, 나 당신에게 받은 학대로.  
 나는 그를 잃고 당신은 그와 나 둘 다 얻었어라.  
 그는 금액을 지불했지만 나는 자유롭지 않아라.

So, now I have confess'd that he is thine,  
 And I myself am mortgaged to thy will,  
 Myself I'll forfeit, so that other mine  
 Thou wilt restore to be my comfort still:  
 But thou wilt not, nor he will not be free,  
 For thou art covetous, and he is kind;  
 He learned but surety-like to write for me,  
 Under that bond that him as fast doth bind.  
 The statute of thy beauty thou wilt take,  
 Thou usurer, that putt'st forth all to use,  
 And sue a friend came debtor for my sake;  
 So him I lose through my unkind abuse.  
 Him have I lost; thou hast both him and me:  
 He pays the whole, and yet am I not free.

이러한 구성은 시인으로서 화자인 셰익스피어가 양성애자이며, 미남 청년에게 거부당하거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애정관계를 겪은 여인에게서 대리 만족하는 형태를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홍기영에 따르면 전체 소네트를 3단계로 나누고 욕정에 대한 혐오감과 미남 청년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그리고 그 사랑의 예술적 승화라는 순서로 분류한다(홍기영 189). 이 시각은 이상화와 몰입 뒤에 찾아온 불가피한 환멸감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비극적인 현상을 사랑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파악한 것이다. 또한 페퀴니(Joseph Pequigney)는 전편의 내용이 사랑의 도입, 성장, 성숙, 쇠퇴의 순서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Pequigney 5), 램지(Paul Ramsey)는 1595년에서 1599년까지

의 저술 시점에 따라 구성되었다고 언급하였고(Ramsey 16), 버로우(Colin Burrow)는 이 모든 이야기가 일관된 연속물이라고 보고 있다(Burrow 4). 그러나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시에 배열된 순서와 다르게 화자가 검은 여인과 먼저 교제하였고, 이후 2세를 출산하라는 권유와 미남 청년에 대한 한없는 애정으로 끝난다는 점이다.

즉 헌정 대상이 되는 미남 청년을 아끼는 화자의 마음이야말로 작가가 소네트를 저술한 근원적 동기인 것이다. 이러한 애정관과 관련하여 한도인은 사랑이 변모하는 양상으로서 소네트 제20편과 제146편 그리고 제116편을 소개하면서 이성애와 동성애를 육체적 욕망과 영혼의 구원으로 설명하고, 셰익스피어가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은 몸과 영혼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한도인 103). 즉 인생의 선배이기도 한 화자는 “나의 정열을 지배하는 여성과 같은 남성”(the master-mistress of my passion)인 젊은이에게 “더러운 시간을 팔아서 신성한 시간을 사라”(Buy terms divine in selling hours of dross)고 조언하면서, “사랑은 . . . 심판일까지 견디어 나가느니라”(Love . . . bears it out even to the edge of doom)고 전한다는 것이다.

#### 제20편

나의 정열을 지배하는 여성 같은 남성 그대는,  
 자연의 손으로 화장한 여인의 얼굴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여자의 고운 마음씨, 그러면서도  
 부정한 여자와 달라 변할 줄을 몰라라.  
 여인의 눈보다 황홀한 그대의 눈은 허위로 움직이지 않고,  
 보는 것마다 도금한 듯하여라.  
 용색(容色) 아름다운 사나이로 모든 용색을 제어하며,  
 남성의 눈을 유혹하고 여성의 혼을 현혹시키도다.  
 그대는 처음에 여자로 태어날 것을,  
 자연이 만드는 도중 사랑을 느껴,  
 하나를 더 첨가하여 나를 실망시켰도다.  
 나에게게는 아무 소용없는 물건을 달게 하여.  
 여자의 기쁨을 위하여 만들어진 그대이니,  
 그대의 사랑만이 내것이요, 그것은 그들의 보배로다.

A woman's face with nature's own hand painted,  
 Hast thou, the master-mistress of my passion;

A woman's gentle heart, but not acquainted  
 With shifting change, as is false women's fashion:  
 An eye more bright than theirs, less false in rolling,  
 Gilding the object whereupon it gazeth;  
 A man in hue, all 'hues' in his controlling,  
 Which steals men's eyes and women's souls amazeth.  
 And for a woman wert thou first created;  
 Till Nature as she wrought thee, fell a-doting,  
 And by addition me of thee defeated,  
 By adding one thing to my purpose nothing.  
 But since she pricked thee out for women's pleasure,  
 Mine be thy love and thy love's use their treasure.

제146편

이 죄 많은 이 흙덩이의 중심이며,  
 너를 싸고 있는 이 육체의 반란을 겪는, 아, 가련한 영혼이여,  
 왜 너는 안에서 번민과 결핍을 맛보면서  
 바깥 벽은 그렇게 화려하게 칠하느냐?  
 빌린 기한이 짧고 스러져 가는 저택에  
 왜 그렇게 큰 비용을 쓰느냐?  
 이렇게 사치스런 육신의 상속자인 벌레들에게  
 그 전체 비용을 먹게 하려느냐? 이것이 네 육신의 종말이요?  
 하다면 영혼이여, 네 노복인 육신이 손해 보게 하고 네가 살라,  
 노복으로 하여금 너의 양식을 증산하느라고 애쓰게 하라.  
 더러운 시간을 팔아서 신성한 시간을 사라,  
 속은 살지게 하고 길은 더 부유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여 너는 사람을 먹는 죽음을 먹고 살라.  
 죽음이 한 번 죽으면 죽는 자들 다시 없으리라.

Poor soul, the centre of my sinful earth,  
 Feeding these rebel powers that thee array,  
 Why dost thou pine within and suffer dearth,  
 Painting thy outward walls so costly gay?  
 Why so large cost, having so short a lease,  
 Dost thou upon thy fading mansion spend?  
 Shall worms, inheritors of this excess,  
 Eat up thy charge? Is this thy body's end?  
 Then soul, live thou upon thy servant's loss,  
 And let that pine to aggravate thy store;  
 Buy terms divine in selling hours of dross;  
 Within be fed, without be rich no more:

So shalt thou feed on Death, that feeds on men,  
And Death once dead, there's no more dying then.

제116편

진실한 사람들의 결혼에  
장해를 용납하지 않으리라.  
변화가 생길 때 변하고  
변심자와 같이 변심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로다.  
아, 아니로다!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지표라,  
폭풍을 겪고 동요를 모르는.  
사랑은 모든 방황하는 배의 북두성이로다,  
그 고도는 측량할 수 있어도 그 진가는 알 수 없는.  
사랑은 세월의 놀림감은 아니라  
장밋빛 입술과 뺨은 세월에게 희생이 되더라도,  
사랑은 짧은 시일에 변치 않고  
심판일까지 견디어 나가느니라.  
이것이 틀린 생각이요 그렇게 증명된다면,  
나는 글을 쓰잖으리라, 인간을 결코 사랑하잖았으리라.

Let me not to the marriage of true minds  
Admit impediments; Love is not love  
Which alters when it alteration finds,  
Or bends with the remover to remove.  
O, no! it is an ever-fixed mark,  
That looks on tempests and is never shaken;  
It is the star to every wandering bark,  
Whose worth's unknown, although his height be taken.  
Love's not Time's fool, though rosy lips and cheeks  
Within his bending sickle's compass come;  
Love alters not with his brief hours and weeks,  
But bears it out even to the edge of doom.  
If this be error and upon me proved,  
I never writ, nor no man ever loved.

나아가 화자는 후손을 낳는 것이 젊음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사라질 것임을 경고한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지난 400여 년 동안 이 시의 수신자인 미남 청년이 실제 누구인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가장 유력한 수신인으로 지목되는 사람들로는, 사우샘턴(Southampton)의 백작 리오슬리(Henry Wriothesley)와 팸브로

크(Pembroke)의 백작 허버트(William Herbert)를 지목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동성애적 성향을 지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셰익스피어가 1592년에 런던의 극장가에서 두각을 나타낸 후 1593년부터 2년 동안 역병이 퍼져서 극장이 폐쇄 되었을 때 그는 이 기간에 성적 내용을 담은 두 편의 설화 시 즉 『비너스와 아도니스』(*Venus and Adonis*)와 『루크리스의 능욕』(*The Rape of Lucrece*)을 리 오슬리(Henry Wriothesley)에게 헌정한 적이 있었고, 다른 2절판 작품들을 허버트에게 헌정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근거를 뒷받침해준다. 이외에 단순하게 출판업자 소프(Thomas Thorpe)와 함께 일했던 홀(William Hall) 또는 사우샘턴의 계부인 하비(William Harvey)를 시의 헌정 대상으로 보는 견해는 셰익스피어의 이름이 단순히 표기되었다는 시각과 함께 시의 수신자와 남성 등장인물이 서로 다르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의견으로서 와일드(Oscar Wilde)는 그의 단편소설 『더블유 에이취 씨의 초상』(*The Portrait of Mr. W.H.*)에서 셰익스피어가 이끄는 실제 극단에서 여성 역할을 맡았던 휴스가 소네트의 실제 대상인 것으로 주장한다. 19세기 말 영국과 유럽의 대표적인 동성애 작가로 지목된 와일드는 소네트 제135편과 제143편에 나온 윌(Will)과 제20편의 휴스(Hues)가 윌리 휴스의 동음이의어라는 내용을 이 글에 실었다. 와일드는 소네트에 관한 전기적 관점을 사실로 믿고 있었지만, 그것을 뒷받침해줄 강력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진부한 세속적인 이야기를 아름다운 우월한 소설로 그려내려고 했으며, 그 안에 자기 자신을 투영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와일드가 동성연애 혐의로 기소되자 그는 법정에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언급하며 자신이 연관된 바는 ‘감히 이름 부를 수 없는 사랑’(love that dare not speak its name)이라고 변론했다.

금세기에 와서 그 사랑은 오해되고 있는데, 그 오해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그 사랑은 “감히 이름 부를 수 없는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런 사랑 때문에 이 법정외 피고석에 있다. 그 사랑은 아름답고, 그 사랑은 순수하며, 그 사랑은 가장 고상한 형태의 사랑이다. 그 사랑에 부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사랑은 지성적인 것으로서 두 남자 중 연장자는 지성을 지니고 있고 그 보다 어린 남자는 그 앞에 놓인 삶의 온갖 기쁨과 희망과 매력을 지니고 있을 때, 그 두 남자 사이에 반복해서 존재한다. 그 사랑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으며, 종종 그런 사랑을 이유로 사람에게 형틀을 씌우기도 한다.

It is in this century misunderstood, so much misunderstood that it may be described as the "Love that dare not speak its name," and on account of it I am placed where I am now. It is beautiful, it is fine, it is the noblest form of affection. There is nothing unnatural about it. It is intellectual, and it repeatedly exists between an elder and a younger man, when the elder man has intellect, and the younger man has all the joy, hope and glamour of life before him. That it should be so, the world does not understand. The world mocks at it and sometimes puts one in the pillory for it. (Ellmann 422)

이와 같은 추측들은 작가가 소네트 제18편에서 여름철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애정을 동성인 미남 청년에게 주었다는 동성애적 사실에 기초하여 1609년 판본에 명시된 헌정 대상인 "Mr. W. H."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아내고자 하는 호기심의 발로였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화자 또는 작가가 미남 청년과 검은 안색을 가진 유부녀인 여인에 대해 가진 욕망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문학과 사학 분야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연구주제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네트의 전반부 126편중에서 그 대상을 명쾌하게 남성으로 언급한 것은 20편이고, 나머지 후반부에서 분명하게 여성을 지목한 것은 7편에 불과하여 소네트 전체 154편중에서 127편은 그 수신자의 성별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에드먼슨(Paul Edmonson)과 웰스(Stanley Wells)는 그 수신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Edmonson & Wells 31). 무엇보다 이 모든 추론들은 셰익스피어가 화자인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어서 그 상대역이 누구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은 회소한 사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사변적 결과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나아가 시의 수신자에 대한 위의 추론들만큼 소네트에 나타난 셰익스피어의 양성애적 경향도 충분한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 이 부분이 모호한 이유는 수신자의 성별이 대부분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또한 1번부터 17번까지의 시들은 출산을 장려하는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것들의 수신자가 남성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예컨대 소네트 3번은 "남편인 그대의 역할을 무시하는"(Disdains the tillage of thy husbandry) 여인은 없을 것이라 말하고, 9번

에서는 “과부의 눈을 적실까 두려워 독신으로 생을 마치려 하느냐”(Is it for fear to wet a widow’s eye)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다. 전체 소네트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중성 대명사인 “thou”나 “thee”가 제18편부터 제126편까지 다른 시들에 등장한 미남 청년이라면, 앞서 본 와일드의 의견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서 연장자로서 젊고 아름답지만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대상을 자기와 동일시하려는 감정은 비록 동성애적 개념이 아닐지라도 상대방에 대한 분명한 애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196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경향 중에 상호텍스트성을 강조하는 영화 등 대중문화에서 셰익스피어가 동성애자이거나 양성애자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용인되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극작가이자 시인인 셰익스피어의 성적 경향에 대한 논박은 쉽게 종료되지 않고 문학계를 넘어서 정치적인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즉 소네트에 나타난 사랑은 동성애임에 틀림이 없다는 와일드의 주장을 지지하는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성적 경향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인정되어 셰익스피어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하여 파트리지(Eric Partridge)는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동성애 해방 운동을 위해 소네트 제20편을 악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난하면서, 소네트에 나타난 시인의 청년에 대한 사랑은 동성애가 아니라고 반박한다(Partridge 11-15). 또한 하비지(Alfred Harbage)도 소네트에 대한 동성애적 독해가 행해지는 것에 대해 “동성애자들은 와일드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와일드의 견해가 주는 위안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몰인정한 태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Harbage 75)고 말하면서 셰익스피어의 성적 경향이 정치적으로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셰익스피어의 성적 경향과 관련된 화제를 텍스트와 예술사에 기초해서 접근해보겠다. 우선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이 작품의 가치를 사랑의 본질, 성적 욕망, 탄생, 죽음과 시간에 대한 심오한 사색에 있다고 칭찬한다. 시 비평가로 유명한 벤들러(Helen Vendler)는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시의 표현방법은 소설과 희곡의 경우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시어는 “고독한 언어로 내면의 작용을 지향하며 재현하기” 때문에 “나이, 지역, 성, 계급, 인종의 벽 등 대부분의 사

회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허문다”고 말한다(Vendler 13). 이 언급은 화자의 양성애적 경향을 사회적 맥락보다 시인의 심상을 그대로 표현한 것을 강조함으로써 세퀴워크(Eve Kosofsky Sedgwick)가 소네트를 “한 남성의 동성애적 모험의 위험과 우여곡절을 담아낸”(Sedgwick 49) 화법이라고 말한 것에 반대입장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벤들러의 시학은 페트라르카의 낭만주의에 가까운 것이며, 양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43번과 같이 사랑과 이별을 기본적인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중세적 낭만을 계승한 것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 대상이 동성이라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것을 실제 상황으로 연상하면 셰익스피어는 남장여자를 좋아하는 성벽이 있는 셈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한 여름 밤의 꿈』(*A Midsummer Night's Dream*)에서 바이올라가 세자리오로 그리고 『뜻대로 하세요』(*As You Like It*)에서 로잘린드가 가니메테로 남장을 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 제43편

나의 눈은 낮에는 사물을 허술히 보고  
 밤이면 가장 잘 보노라.  
 잘 때 나의 눈은 꿈 속에서 그대를 알고,  
 눈은 감졌어도 빛 받아 어둠 속에서 밝은 존재로 향하게 되노라.  
 그림자만이라도 어둠의 그늘을 빛나게 한다면,  
 그림자의 주인인 그대는 밝은 날에 더 밝은 빛을 가지고  
 얼마나 황홀한 모습을 보이리요.  
 보지 못하는 눈에게 그대의 그림자가 이렇게 찬란하노니!  
 대낮에 내 그대를 본다면,  
 내 눈은 또 얼마나 행복하리요.  
 한밤중 깊은 잠 속에 시력 없는 눈에도  
 불완전하고도 아름다운 그림자가 보인다면!  
 그대를 볼 때까지는 낮은 다 밤이요,  
 꿈에 그대를 본다면, 밤은 언제나 밝은 낮이로다.

When most I wink, then do mine eyes best see,  
 For all the day they view things unrespected;  
 But when I sleep, in dreams they look on thee,  
 And darkly bright, are bright in dark directed.

Then thou, whose shadow shadows doth make bright,  
 How would thy shadow's form form happy show  
 To the clear day with thy much clearer light,  
 When to unseeing eyes thy shade shines so!  
 How would, I say, mine eyes be blessed made  
 By looking on thee in the living day,  
 When in dead night thy fair imperfect shade  
 Through heavy sleep on sightless eyes doth stay!  
 All days are nights to see till I see thee,  
 And nights bright days when dreams do show thee me.

이러한 동성애적 상황이 셰익스피어의 희극에서 대부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소네트의 저술 시점이 비극들이 만들어지기 거의 직전이었음은 우연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즉 그의 희극들은 장난스러우면서도 탄탄한 전개 과정과 눈부실 정도로 창의적인 성역할을 하고 있는 충실한 줄거리를 담고서, 양성 매력의 모두 가진 등장인물이 신비스런 영감을 더해 준다. 그리고 소네트 122번은 “그대가 주신 노트는 내 머리 속에 있나니 / 있을 수 없는 것을 빠짐 없이 기록하였기에 / 헛된 종잇장들 이상으로 /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토록 남으리라. . . 그리하여 나는 과감히 그것을 다 버렸어라”(Thy gift, thy tables, are within my brain / Full character'd with lasting memory, / Which shall above that idle rank remain, / Beyond all date, even to eternity. . . Therefore to give them from me was I bold)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시들이 타인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듯하다. 아마도 그 이유는 페퀴니가 제52편과 제75편 그리고 제87편이 충분히 성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듯이 동성애적 뉘앙스가 스스로에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 콕스(C. B. Cox)는 이 시에 출산의 강조가 없었더라면 온전히 외설적인 작품이 될 뻔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Cox 481).

#### 제52편

나는 그 행운의 열쇠를 사용하여  
 감춰둔 보물을 어느 때고 볼 수 있는 부자와 같아라.  
 부자는 보물을 시간마다 살피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드물게 보는 즐거움을 무디게 하지 않으렵이라.

그런고로 향연은 오랜 세월 속에 드물게 베풀어져야  
 장엄하고 진귀하기도 하여라.  
 이는 드물게 있어 가치 있는 돌과도 같고,  
 목걸이의 주요한 보석과도 같아라.  
 나의 장롱이 되어 그대를 간직하고 있는 시간도 그러하여라.  
 또는 숨겨 두었던 자랑거리를 새로 꺼내어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기쁨을 마련하려고  
 화려한 의상을 감추어 둔 옷장과도 같이.  
 아, 축복된 그대여, 그대의 진가는 크도다,  
 내 그대를 보면 승리감을, 못 보면 희망을.

So am I as the rich, whose blessed key,  
 Can bring him to his sweet up-locked treasure,  
 The which he will not every hour survey,  
 For blunting the fine point of seldom pleasure.  
 Therefore are feasts so solemn and so rare,  
 Since, seldom coming in the long year set,  
 Like stones of worth they thinly placed are,  
 Or captain jewels in the carcanet.  
 So is the time that keeps you as my chest,  
 Or as the ward-robe which the robe doth hide,  
 To make some special instant special blest,  
 By new unfolding his imprisoned pride.  
 Blessed are you whose worthiness gives scope,  
 Being had to triumph, being lacked to hope.

제75편

그러니 나의 상념에 대하여 그대는 생명에 대한 음식과 같고,  
 또 대지에 대한 단비와 같도다.  
 그대가 주는 평화로 인하여 나는 안타깝도다,  
 마치 인색한 자가 그의 재산 때문에 고민하듯이.  
 소유자로서 그는 지금 자랑스러우나  
 자기 보물을 부정한 세상이 탈취하잖을까 가끔 겁내도다.  
 때로는 그대하고만 함께 있는 것을 최상으로 여기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기쁨을 보여 더 복되고 싶어하도다.  
 때로는 그대의 모습을 겹도록 보고  
 얼마 안 가서 잠깐이라도 뵈옵기를 갈망하노라.  
 나는 그대가 주신 것이나, 그대에게서 취하는 것 이외의  
 그 어떤 즐거움도 소유하지 않고 추구하지도 않나니.  
 이처럼 나날이 나는 굶주리기도 하고 포식도 하노라.  
 모두 탐식하고 또 아무것도 없고.

So are you to my thoughts as food to life,  
 Or as sweet-seasoned showers are to the ground;  
 And for the peace of you I hold such strife  
 As 'twixt a miser and his wealth is found.  
 Now proud as an enjoyer, and anon  
 Doubting the filching age will steal his treasure;  
 Now counting best to be with you alone,  
 Then bettered that the world may see my pleasure:  
 Sometime all full with feasting on your sight,  
 And by and by clean starved for a look;  
 Possessing or pursuing no delight,  
 Save what is had, or must from you be took.  
 Thus do I pine and surfeit day by day,  
 Or gluttoning on all, or all away.

제87편

잘 가시라! 그대는 내가 소유하기에 과분하여라.  
 아마도 그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으리로다.  
 그대의 가치의 특허장은 그대를 석방하나니  
 그대와의 내 인연은 이제 모두 끝났어라.  
 그대의 허락 없이 내 어찌 그대를 붙잡으리요?  
 또한 그런 부(富)를 지닐 자격이 내게 어디 있으리요?  
 이 아름다운 선물을 향유할 자격이 내게 없기에,  
 내 특허권은 시효가 끝나 원상으로 돌아가노라.  
 그대는 그대 자신의 진가를 몰랐거나,  
 나를 잘못 보고 자신을 주었으리라.  
 그러므로 그대의 큰 선물은 오해로 주신 것이기에  
 바른 재량을 내리시자 그 선물은 본집으로 돌아가는거니라.  
 꿈에 속은 듯 그대를 가졌었거니  
 잠잘 때는 황제요 깨면 그렇지 않아라.

Farewell! thou art too dear for my possessing,  
 And like enough thou know'st thy estimate,  
 The charter of thy worth gives thee releasing;  
 My bonds in thee are all determinate.  
 For how do I hold thee but by thy granting?  
 And for that riches where is my deserving?  
 The cause of this fair gift in me is wanting,  
 And so my patent back again is swerving.  
 Thy self thou gav'st, thy own worth then not knowing,

Or me to whom thou gav'st it, else mistaking;  
 So thy great gift, upon misprision growing,  
 Comes home again, on better judgement making.  
 Thus have I had thee, as a dream doth flatter,  
 In sleep a king, but waking no such matter.

앞서 살펴본 소네트와 작가의 성적 경향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연구자들의 추론에 따른 것이어서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그 학술적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소네트가 담고 있는 동성애적 문제들은 지난 40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변화시키거나 각색되어 제작된 오늘날의 영상물 속에서 상호텍스트성 접근을 통해서 유사성과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전 세계의 동성애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성도덕과 자유, 그리고 인권에 이르는 사회적 쟁점을 추가할 것이다. 다음은 그 논란과 관련하여 현대 영화들에 나타난 동성애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3. '논란'을 '암시'로 재현한 영화, <웨이트 오브

#### 세임>

앞에서 셰익스피어 소네트가 함유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동성애에 대한 독해와 논의를 고찰했다. 나아가 소네트의 문학적 성과를 넘어서, 공연무대와 영상매체 속에서는 시적 이미지가 어떻게 시각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여 재현되었는지에 대해, 작품들을 살펴보면, 시공간이 다른 문화의 장에서 다양한 예술성을 지닌 영상 예술과 공연 예술의 토대가 되는 소네트의 새로운 역할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또한 셰익스피어의 전기적 사실에 기초한 영화들을 이용하여 감독과 관객들이 그의 성적 경향을 어떠한 시각으로 관찰하였는지를 고찰한다. 그 과정에서 서론에서 예시한 새로운 논점들을 하나씩 논의하되 문학적 공감대로서 상호텍스트성을 언급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구조주의 비평에 기여하였던 켈러(Jonathan D. Culler)는 언어의 구조주의 모델이 “인습적인 제도들의 규칙이 존재함을 확인하기보다 그것들을 형성하는 데”(Culler 224) 도움을 줄 뿐이라고 말함으로써

언어학적 지식을 문학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시각은 언어이 외에 존재하는 상호텍스트적 정서를 강조한 것으로서 그는 독자들이 문학 텍스트를 해석함에 있어서 항상 다른 작품들을 감안하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한 작품은 단지 다른 텍스트들과 함께 또는 그것들에 반대하여 읽혀질 수 있고, 이것은 . . . 현저한 특징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에 구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대치를 설정함으로써 읽고 구조화할 수 있는 기준선을 제공한다”(Ibid 139).

동성애자들은 셰익스피어를 자신들의 수호성인으로 삼아 소네트를 더욱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며 계속되었다. 1985년 영국 데릭 자만(Derek Jarman)감독의 <천사의 대화>(The Angelic Conversation)는 천천히 움직이는 사진 이미지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병치시키는 설정으로, 주로 동성애의 모습들과 불투명한 풍경으로 이루어져있다. 소네트의 제126편까지의 전반부 중에서 아름다운 친구(Fair Friend)와 관련이 있는 14편의 시가 낭송되는 신비한 분위기의 관현악 음악이 흐르는 단편 영화이다.<sup>4)</sup> 소네트를 낭송하는 여배우 주디 덴치(Judi Dench)의 목소리가 영화에 흘러나올 때에는 마치 영화가 여성의 관점에서 보여 주는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유일하게 젊은 남성들에게만 집중하면서, 읽혀지는 시와 장면은 동성애의 틀에 맞추어져 있다. 영화의 후반부에서 두 남자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여행을 하며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묘사된 포르노와는 다르다. 또한 내용면에서 소네트와 영화의 장면이 일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젊은 청년이 횃불을 들고 비추는 장면은 아름다운 친구(Fair Friend)의 빛남을 칭송하는 부분과 연결된다. 소네트 94번 ‘해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서(They that have power to hurt)’이 낭송되는 장면에서는 한 남자가 길게 늘어뜨린 옷과 왕관을 쓰고서 내려다보는 듯한 몸짓을 하고 다른 한 남자는 그의 무릎과 팔에 공손히 입을 맞추고 있다. 어떠한 대화나 줄거리가 있지 않지만, 소네트 시의 내용을 시각적 이미지로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자만 감독이 동성애를 그려내는 영화의 세계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와 나란히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4) <http://www.imdb.com>

영국 남부의 웨일즈에 위치한 볼케이노 극장에서 제작한 동작 연극인 <사랑(L.O.V.E.)>에서도 <천사의 대화>(The Angelic Conversation)와 매우 비슷한 형식으로 소네트를 표현하는 작품을 공연하였다. 1992년에 초연되었고 1993년에는 '타임아웃 극장 상'(Time Out Theatre Award)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2012년에 새롭게 재창작되었다. 남자 두 명과 여자 한 명, 세 사람의 배우가 출연하며 소네트를 잔잔히 낭독하기보다는 오히려 짧게 곱씹는 장면이 이어진다. 배우 에너지 넘치는 격렬한 춤과 야만적으로 보이는 무술과 같은 동작이 독특한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극이 시작될 때, 두 남자배우는 매우 강렬한 입맞춤을 하는데 분명히 단순한 친구관계 이상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신체 접촉을 하는 동안 배우들이 서로 뒤엉켜서 남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다.<sup>5)</sup>

자면 감독과 볼케이노 극단이 셰익스피어의 동성애적 가능성을 탐구했다면, 윌리엄 보이드(William Boyd)가 각색한<수치스런 낭비>(A Waste of Shame)는 소네트의 구성과 창작 동기를 둘러싼 상황에 관한 전기적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와 소네트에 관한 미스터리'(The mystery of Shakespeare and his sonnets)라는 부제를 붙여 셰익스피어의 성적 지향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다.

소네트의 상호텍스트성 측면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작품으로 베를린 앙상블(Berliner Ensemble)과 함께 로버트 윌슨(Robert Wilson)이 연출한 연극, <셰익스피어 소네트>(Shakespeare's Sonnets)를 들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아방가르드 거장이라 할 수 있는 윌슨 감독의 독특한 제작방법을 통해 공연된 작품으로서, 미국인 싱어송라이터인 팝스타 루퍼스 웨인라이트(Rufus Wainwright)의 아름다운 음악과 더불어 베를린 앙상블의 밀도 높은 공연과 어우러져 대단한 화제를 모았다. 25편의 소네트를 무대화한 음악극으로 2009년 베를린에서 초연되었으며 2015년에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내한공연을 가진 바도 있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가 레퍼토리 앙상블로 공연되어 라이브 뮤직 비디오를 감상하는 효과를 취하고 있다.

이 작품이 주는 시각적 효과가 매우 이상하리만치 독특한데, 검은 의상과 마치

5) <http://www.volcanotheatre.co.uk>

광대를 연상하게 하는, 하얀 얼굴들은 창백한 빛의 조명과 크게 대조를 이루며 마치 초현실적인 배경을 연상하게 하는 가운데 소네트가 여러 차례 반복되며 웨인라이트(Rufus Wainwright)의 음악과 음향은 꿈속 같은 효과를 더해준다. 웨인라이트는 파스티슈(Pastiche) 기법으로 여러 장르의 음악이 연상되도록 작곡하였다. 이 연극 작품에서 절망과 희망의 내용을 담고 있는 소네트 제29편은 음악이 주는 화성적 효과에 힘입어 마치 고전적인 자장가의 멜로디처럼 울리도록 작곡했으며 소네트 제66편은 어둡고 일그러진 카바레식 음악과도 같고, 소네트 제23편은 팝 펑크음악을 연상하게 한다. 웨인라이트의 다양한 색체를 띤 음악들에 대응하여, 윌슨 감독은 예를 들어 소네트 23번은 거대한 주유 펌프기 3대가 있는 하얀 방에서 진행되게 하는 등 각각의 소네트마다 다르게 재단된 아찔한 무대 공간을 만들어 낸다.

이 연극에서 남자 배우들은 긴 드레스를 차려입고 여배우는 정장을 입는데, 배역도 성을 바꾸어 연기한다. 엘리자베스 여왕 역은 유르겐 홀츠(Jürgen Holtz)가, 그리고 셰익스피어 역할은 앤젤라 슈미드(Angela Schmid)가 맡는 등 모든 배역과 연기하는 배우의 성별이 뒤바뀌어져 있다. 이러한 설정은 동성애적 욕망을 확대해서 표현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음악을 담당한 웨인라이트는 잘 알려진 동성애자들의 아이콘이라 할 정도로 잘 알려진 인물로서, 단지 그의 음악 때문만은 아닌, 이 작품의 기획 의도와 일치되는 인물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 소네트 중에서도 동성애적 해석이 강한 시들을 토대로 의도된 공연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윌슨 감독이 연극 출연자들에게 성을 바꾸어 의상을 선택한 것은 소네트의 어휘들을 상징적으로 구현해내어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셰익스피어의 성적 경향에 관한 전기적 단서가 극히 부족한 사실이, 오히려 그의 작품들이 가진 다양한 각색의 오랜 역사와 함께 동성애 또는 양성애 주제에 대한 상호텍스트성 측면의 창작 시도를 오늘날까지 활발히 이어지게 하는 파급 효과를 전해주었다. 즉 그의 혼인과정과 가정생활 그리고 런던으로 옮겨 간 이후 얼마간의 행적이외에 더 이상의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점이 오히려 창작자들과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실 동성애

행위는 고대 그리스에서 연장자와 연소자 남성들끼리의 강한 우정의 표시로서 적지 않게 행해졌으며, 중세시대에도 젊은 귀족층과 성직자 그리고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러한 관행이 이어지더니 셰익스피어의 활동시기와 가까운 중세기 말에 보편화되었다(노이균 170). 다시 말해서 평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화감독들이 각자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네트를 창의적으로 해석했지만, 실제로는 서양의 오랜 성적 전통과 그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갈등을 재현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신비로운 개인사는 풍부한 상호텍스트성을 통해서 극적인 소재로 발전하기에 충분했으며, 이런 맥락에서 작가의 성적 경향에 대한 논란이 왜 지속되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 진다.

셰익스피어의 성적 지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전기적 사실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가는 18세이던 1582년에 8년 연상인 해서웨이(Anne Hathaway)와 결혼했다. 셰익스피어 출생지 협회(Shakespeare Birthplace Trust)가 소장한 기록에 따르면, 1570년에서 1630년까지 스트랫포드 어폰 아본(Stratford-upon-Avon)에서의 남성 평균 혼령기는 24세이었고, 그 60년 동안 기록된 혼인 건수 106건 중 20세 이하인 남성은 3명이었는데, 그 중 셰익스피어가 가장 어린 나이였다. 그리고 이 부부는 슬하에 세 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큰 딸 수잔나(Susanna)는 1582년에 태어났고, 그로부터 3년 뒤에 남녀 쌍둥이 형제인 햄넷(Hamnet)과 주디스(Judith)가 출생했으나, 아들 햄넷은 1596년에 죽었다. 작가는 1585년에 집을 떠났고, 문단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1592년까지 알 수 없는 곳에서 지냈는데 학자들은 이 시기를 “잃어버린 시기”(lost years)라고 부른다. 그 후 작가는 약 20년 동안 극작가 그리고 사업가로서 성공했는데 특이하게도 1609년에 소네트를 출시하고 난 후에는 작품 활동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1613년 이후에는 사실상 은퇴를 했다.

한편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그의 전기에 대한 기록은 대형화재로 인해 소실되었고, 다만 작가의 친구 매닝햄(Manningham)의 일기 등 제3자의 증언에 의한 정보만 남아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 특히 영화 창작자들은 작가가 집을 떠난 구체적인 이유와 안정된 삶을 살게 된 이후에도 그의 가족을 이주시키기 않고 말을 타고 3일이나 이동해야 하는 거리에 있는 고향에 새 집을 마련하여 사실상

주거지와 근무지를 따로 두어야 했던 동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런 가운데 작가의 성적 경향이, 특히 소네트와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언급되었다. 즉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작가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아내와 혼인생활을 했지만 처음에 느꼈을 성적 흥분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고, 결국 어려워진 가정형편을 만회하기 위해 집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작품 활동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외롭고 힘든 투쟁을 견디어야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아카데미 최고작품상 등 7개 분야의 상을 휩쓴 매든(John Madden) 감독의 <사랑에 빠진 셰익스피어>(Shakespeare in Love)를 들 수 있는데,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아내와 사실상 결별한 상태로 등장한다. 대신에 그는 거부의 딸인 바이올라(Viola)와 격정적인 사랑을 하지만, 계급의 차이와 유부남인 자신의 신분 때문에 그녀와 헤어지고 만다. 이 영화에서 바이올라는 남장을 하고 셰익스피어의 각본에 따라 무대에 올라 훌륭한 연기를 함으로써 작가의 동성애가 정상적인 이성애로 각색되고, 검은 여인 역할을 맡은 로살린(Rosaline)은 버비지(Burbage)와 틸니(Tilney) 같은 권력을 가진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는 여성으로서 작가에게 사랑의 영감을 주지 못한 것으로 등장한다.

그런가 하면 2017년 하반기에 발표된 미국 드라마 10부작 <윌>(Will)에서는 작가의 아내가 일부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에게 이미 부담스런 존재로 여겨질 뿐이다. 그 대신에 20세 초반의 청년 셰익스피어는 극장 소유주인 버비지의 딸 엘리스와 열애에 빠져 창작활동에 전념하여 시들어가는 극장사업을 부활시킨다. 여기에 금지된 종교인 가톨릭 신자로 등장한 점이 새로운 갈등요소로 소개되지만 크게 관심을 얻지 못한 반면 경쟁자 말로우(Marlowe)가 동성애를 즐기며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기를 원하는 장면이 오히려 더 반향을 일으켰다.

위에서 언급된 두 편의 영상물들은 셰익스피어의 행복하지 않은 혼인생활과 가장으로서 짊어져야 하는 경제적 책임감이 그의 성적 경향에 후천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공유한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전기 작가 던컨-존스(Katherine Duncan-Jones)는 그녀의 책 『상냥하지 않은 셰익스피어: 그의 인생의 장면들』(Ungentle Shakespeare: Scenes from His Life)에서 셰익스피어

가 혼인생활에 갇혀 있던 것으로 표현하고, 그리어(Germaine Greer)는 『셰익스피어의 아내』(*Shakespeare's Wife*)에서 그의 혼인생활이 “요구한 바가 많은 어려운 삶의 방식”(a demanding and difficult way of life)이었다고 주장한다(Greer 118). 하지만 그리어는 이 사연이 셰익스피어와 소네트가 동성애를 표현한 이유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 그녀에 따르면 저술 당시에는 출산과 관계없는 어떠한 성행위도 모두 남색으로 여겨졌으며, 평민인 작가가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젊은이를 유혹하는 것은 책이 불태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수형에 처해질 만큼 중한 범죄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주장한다(Greer 255).

그렇다면 소네트에 등장한 미남 청년이 귀족자제가 아니었다면 누구였을까? 그리고 작가 자신은 검은 여인과 성행위를 즐겼으면서 굳이 그 청년이 그 여인과 동침하는 것을 싫어해서 마침내 여성혐오현상에 이르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또한 그가 동성애자였다면 소네트 전반부 17편의 시들에서 그 청년에게 왜 이성애적인 결혼과 출산을 장려했을까? 서론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의문점은 그의 혼인생활문제와 더불어 소네트에 나타난 작가의 성적 경향을 진단하는데 복합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이 의문점들을 영상으로 한꺼번에 답을 하려는 시도가 한 탁월한 영화작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스코트랜드 출신 보이드(William Boyd)는 같은 국적의 감독 맥케이(John McKay)와 함께 2005년 당시 BBC 방송 연속물 “셰익스피어 다시 말하기”(ShakespeaRe-Told) 시즌의 한 일환으로 소네트에 기초한 90분짜리 텔레비전 영화를 제작했다. 그들은 소네트 129번의 첫줄 “수치스럽게 정력을 낭비하는 것은”(The expense of spirit in a waste of shame)에서 힌트를 얻어 작품의 타이틀을 <웨이스트 오브 쉘임>(A Waste of Shame)으로 정하고, 소네트 전체의 구성에 따라 마치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듯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전개했다.

영화의 처음은 1609년 셰익스피어가 소네트를 저술하던 때 역병으로 죽은 어린 아이의 시체를 보면서 그의 아들 햄넷이 죽었던 1596년으로 기억을 거슬러가면서 시작한다. 아들의 장례식 날 괘씸한 성격의 아내 앤이 남편에게 가족을 돌보지 않음을 질책하며 런던에서 함께 살 것을 요구하고, 그의 아버지가 빚을 지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셰익스피어는 런

던으로 올라간다. 다음 장면에서 그는 1597년 웹브로크 백작부인 시드니(Mary Sidney)로부터 출생을 주제로 하는 소네트를 써서 그녀의 아들 허버트에게 결혼을 하도록 설득해주는 댓가로 돈을 받는다. 또한 그는 친구 윌킨스(Wilkins)가 운영하는 사창굴에서 술에 취한 채 프랑스에서 왔다는 혼혈인 유부녀 루시(Lucie)와 만나 성관계를 가진다. 그 후 어느 날 햄릿의 공연장이 있는 런던에서 보자고 했던 그 미남 청년과 만나 런던의 향락문화를 보여준다. 이윽고 점점 동성애를 느낀 셰익스피어는 자신을 피하는 허버트를 미행한 끝에 그가 루시와 동침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비통해한다. 두 남성이 서먹해진 사이 셰익스피어는 자신이 매독에 걸렸음을 발견하고 고통스런 수은 치료를 받는다. 병이 호전되자 그는 또 다시 검은 여인 루시를 찾아 가는데, 이제는 그녀가 매춘사업에 매우 성공한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녀와 만난 후 그녀의 집을 나서던 순간에 그곳으로 들어오는 허버트를 만나게 된다.

이 영화에 사용된 소네트는 셰익스피어가 소네트를 짓게 되는 동기를 묘사해내고 있는데, 인용된 구절들을 살펴보면 먼저 작가는 경쟁자 존슨(Ben Johnson)이 허버트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소네트 80번의 내용인 “내 사랑이 나를 파괴 하는구나”(my love was my decay)라고 말하면서 질투심을 느낀다. 그리고 허버트가 알몸으로 수영하는 것을 보고, “눈먼 바보 사랑이여, 나의 눈을 어떻게 해놓았는지”(Thou blind fool, Love, what dost thou to mine eyes)라고 스스로 동성애를 인정하며 소네트 제137편을 짓게 된다. 한편 검은 여인 루시가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웃음을 파는 모습을 보고, “그대를 아름답다 선언하고 찬란하다 생각했노라, / 지옥처럼 검고, 밤처럼 어두운 그대를”(For I have sworn thee fair, and thought thee bright, / Who art as black as hell, as dark as night)이라고 소네트 제147편을 말하면서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매독으로 인해 참으로 고통스러운 수은 치료를 견디면서도 그는 검은 여인과 즐겼던 쾌감을 “사랑의 열기는 물을 덥게 하나, 물은 사랑을 식히지 못함”(Love’s fire heats water, water cools not love)이라고 표현하면서 소네트 제154편을 통해 그녀의 매력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토로한다.

이 영화는 보이드의 의도를 논하지 않더라도 앞서 던진 의문점에 다음과 같이

답을 하고 있다. 우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작가는 출판업자에게 소네트의 헌정대상이 허버트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남 청년은 귀족출신임을 나타낸다. 만약 그것이 당시의 사실이라면 왜 금서가 되지 않았을까? 아마도 보이드는 작가가 허버트의 몸에 어떠한 애정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소네트의 내용 역시 중년 남성이 청년에게 사랑을 호소할지언정 역겨운 신체행위를 암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할는지 모른다. 하지만 영화의 맨 첫 장면에서 작가의 침대에 다른 젊은 남성의 알몸을 노출시킴으로써 보이드는 작가의 동성애적 경향을 전제하고 있다. 동시에 작가가 검은 여인 루시와의 격렬하게 성행위를 즐기는 점에서 전형적인 양성애자로 그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허버트가 루시와 관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일종의 성적 본능의 단면으로 여겨지며 구태여 이율배반의 논리로 볼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루시를 아껴서가 아니라 허버트가 작가의 접근을 거절하면서 타인과 동침한 사실에서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영화를 통해 추론되었던, 허버트에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 소네트의 내용은, 작가의 신념이 아니고 젊은이의 어머니가 돈을 주고 의뢰한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웨이스트 오브 웨임>에서는 그동안 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논점이 제시되었는데 셰익스피어가 아내와 루시에게서 느꼈을 경제적 부담과 타산적 관계는 화자를 항상 외롭게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영화 속에서 셰익스피어가 루시와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왜 8세 아들을 두고 영국으로 왔는지를 묻는 물음에, 그녀는 “당신과 같아요. . . . 돈 (때문이에요)”라고 말한다. <월>에서 보듯이 실제로 그는 처음부터 돈을 잘 벌었던 것은 아니다. 극장은 프리랜서 작가에게 새 작품 당 2-3파운드의 돈만 지급하였는데, 그 정도의 수입으로는 그의 생활비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는 경쟁자 존슨(Ben Jonson)처럼 연기를 겸해야 했고, 허버트와 같은 부유층 인사들에게 항상 잘 보여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

이런 맥락이라면 영화 속 인물로서 루시의 처지를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가 그녀와 가졌던 육체적 쾌락보다 차라리 불량스러워 보이지만 새침한 허버트에게 느꼈을 정신적 관계의 동성애가, 적어도 이 영화에서는 더욱 낭만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슬레징어(John Schlesinger)의 <선데이 블러디 선데이

이>(Sunday Bloody Sunday)는 동성애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로서 이런 점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 영화는 한 명의 남성 동성애자 다니엘 허쉬(Daniel Hirsh)와 한 명의 여성 이성애자 알렉스 그레빌(Alex Greville) 사이에서 한 명의 양성애자 밥 엘킨(Bob Elkin)이 양 쪽과 육체관계를 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로서 셰익스피어가 양성애자로 등장한 소네트의 경우와 다르게 남성 동성애자인 허쉬가 주인공 역할을 맡고 있다. 두 남성 사이에 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갈등관계가 형성되기보다 특이하게도 한 남성을 대상으로 두 여성이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달라 보이는 애정관계들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들은 금전적 이해나 가족이란 신분관계보다 서로를 진정으로 위해주어야 한다는 낭만적 사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선데이 블러디 선데이>에서 그레빌은 성공했지만 항상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는 아버지의 이기적 행위를 싫어하며, 그녀의 어머니에게 “결혼에서 항상 물질이 제일 중요한가요?”라고 따진다. 그녀는 엘킨을 지속적인 남자친구로 두지만 경우에 따라서 55세의 실직자인 하딩(George Harding)과 자유로운 성관계를 할 정도로 자유스러운 여성이다. 하지만, 그녀가 엘킨의 양성애적 태도를 문제시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그는 묵묵히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는 허쉬의 집으로 건너간다. 그러나 결국 엘킨이 미국으로 떠나버리자 두 사람은 다시 고독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허쉬는 엘킨과 헤어진 것이 잘된 일이고, 그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았고, 용감하고 기지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들 사이에 뭔가가 있어서 그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함으로써 셰익스피어의 낭만적 성애관을 따르고 있다.

<웨이트 오브 웨임>은 소네트 제153편과 제154편처럼 마지막 장면에서 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성관계의 위험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선데이 블러디 선데이>마저도 한 양성애를 사이에 둔 두 사람들의 사랑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교훈으로 남기고 있다. 이외에 소네트에 기초한 대부분의 동성애를 주제로 하는 작품들은 결국, 비이성애적 사랑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나타낸다. 동시에 그것들의 이면에는 본능적인 사랑의 메시지를 항상 비언어적인 상호텍스트성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전기적 사실들을 가늠해 보고자 하는 학계의 시도는 끊임없이 있어왔다. 특히 소네트에는 작가 내면의 심리적 욕망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셰익스피어의 실상을 추론하여 밝혀보려 하였다. 『소네트』에서 발견되는 동성애적 성향에 대하여 셰익스피어의 구체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소네트』 비평가들과 학자들은 소네트를 셰익스피어의 전기적 사실과 생애와 연관지어 밝혀내 보려는 노력에 집중하고 그가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인종과 젠더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동성애에 관한 연구들이 셰익스피어 연구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연극 연출가와 영화감독들에 의한 상호텍스트적 성 담론이 드러난 작품들이 생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고전’이라고 불리는 소네트에 내재한 동성애를 상호텍스트적 관점을 통해 현재의 문화적 배경에서 새로운 실험적 셰익스피어의 문화를 탐색하였는데, 소네트에 기초한 <웨이트 오브 웨임>과 같은 영화작품은 그의 동성애에 관한 단서를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시인이 집을 떠난 이유, 런던으로 가족을 이주시키지 않았던 사연, 성행위가 없는 동성애의 성립여부, 양성애자의 이율배반성 여부, 출산을 강조했던 의도 등 새로운 논제에 대해 극적으로 타당한 추측을 살펴보았다. 더우기 소네트가 영화뿐만 아니라 시각예술이나 음악을 강조하는 공연무대의 상호텍스트성 원전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 V. 미국 SF영화, <스타트랙>의 셰익스피어

### 1. <스타트랙>의 변천과정과 문학적 맥락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2017년 9월 19일 취임 후 첫 유엔총회연설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한다면 완전한 파괴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지칭하며 핵실험을 하는 것이 북한 정권에 대한 자살행위에 해당하며, “미국은 위대한 힘과 인내력을 가지고 있지만, 본국과 우방을 방어해야 할 경우에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The U.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라고 말했다(Tillet). 이에 대하여 김정은은 트럼프의 연설이 정당한 주권 국가의 전복을 책동하는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미국의 노망한 늙은이를 화력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길들이겠다(I will surely and definitely tame the mentally deranged U.S. dotard with fire)”고 반응했다(The *New York Times*).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예민해진 북미의 이러한 적대관계는 2002년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the axis of evil)의 한 부분이라고 언급했을 때로 거슬러 갈 수 있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에 부시와 경험했던 대결상황은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에게로 이어졌고, 이 와중에 중국과 일본은 민족주의적 강병정책을 더해가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유행했던 미국 제일주의를 연상하게 한다. 그는 대통령 선거후보 시절에 “우리와 우리의 경쟁자의 계획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우리의 계획이 미국을 우선으로 할 것이다(The most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our plan and that of our opponent is that our plan will put America first)”라고 말함으로써 전임 대통령들이 그 동안 추진해왔던 전세계주의(globalism)를 정면으로 부인했다(Blake). 트럼프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2017년 현재 한반도에 드리워진 암울한

정치현실에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1966년부터 지금까지 반 세기동안 미국문화를 대변해온 TV와 영화 시리즈 <스타트렉>(Star Trek)의 변천과정이 미국 제일주의의 부활에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셰익스피어 문학에 나타난 전세계주의적 다원성(plurality)의 몰락이 그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셰익스피어 소네트는 희곡과 달리 풍부한 상상력을 통한 함의를 지님으로써 내러티브의 형식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것이 <스타트렉> 시리즈에 인용된 흔적을 고찰함은 이와 같은 현대정치상황을 다각적으로 해석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국내연구의 한 사례로서 전준택은 <스타트렉 VI: 미지의 세계>(Star Trek VI: Undiscovered Country)가 “은밀한 전략으로 『햄릿』(Hamlet)을 미국의 소유물로 전유한 영화이며”(『미국대중』 349), 영국에 연고를 가진 배우들을 통해 『햄릿』의 대사를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상호텍스트성의 한 형태로서 혼성하거나 합성시켜서 작품을 의미하는 파스티슈(pastiche)의 개념을 인색하게 해석한 것이고, 이 영화의 감독 마이어(Nicholas Meyer)가 셰익스피어 연극을 공연했던 배우들을 일부러 캐스팅하여 희곡과 영화의 내용과 형식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곡해한 듯 보인다. 이외에 개인적 사랑이야기로 이해되어온 소네트를 사회윤리적 측면이 <스타트렉> 시리즈에 끼친 영향과 미국 정치외교사적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복합연구로서 셰익스피어 문학이 <스타트렉>시리즈의 변천과정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과정에 셰익스피어 소네트의 사회윤리적인 성격으로서 다원성이 전세계주의적 이상과 조화를 이룬 모습을 문학의 사회성을 강조한 최근 연구들에 비추어 조명하고자 한다. 먼저 셰익스피어 문학이 <스타트렉> 시리즈에 인용된 내용을 조사하여 제1세대 오리진 시리즈와 제2세대 차세대 시리즈에 셰익스피어 문학이 많이 이용되었던 것이 제3세대 이후의 작품에는 현격하게 줄어든 현상을 소개하고 소네트의 다원성에 기초한 사회 윤리성을 텍스트 분석방법을 통해 논증한다. 그리고 <스타트렉> 제3세대 시기부터 미국과 소련의 냉전구도가 와해되었고 미국의 컴퓨터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달했던 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 후 이러한 역

사적 사실 때문에 <스타트렉>의 전반부 시리즈가 추구했던 전세계주의가 그 명분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하며, 이 문화사적 접근을 통해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을 낳은 첨단기술을 무기로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정책이 나오게 된 것은 이미 약 25년 전부터 예고되었음을, 문학과 영화를 통해 상호텍스트성의 측면에서 정치사회적인 실효성을 논하게 될 것이다.

## 2. <스타트렉>에 인용된 소네트의 사회 윤리성

17세기 영국문학을 대표했던 셰익스피어의 희곡 37편과 소네트 154편은 400년 동안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사랑받아왔다, 특히 이 작품들이 현대 예술에 끼친 파급효과는 독일의 통일과 동부유럽의 자유화가 완성되고, 구소련의 해체가 임박했던 1990년대 초까지 이른 바 냉전시기에 더욱 힘을 발휘했다. 예를 들어 『햄릿』은 당시 아랍권에서도 인기가 있어서 이집트의 모하메드 소비(Mohamed Sobhi) 버전과 요르단의 칼레드 알-타리피(Khaled Al-Tarifi)의 버전 등으로 빈번하게 번역되어 무대에서 공연되었고, 작품 속 공간 배경이 된 덴마크와는 “내재적이고 역사적인 연결점”(visceral and historical connections)을 가지고 있었다(Hansen 153).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윤리를 다룬 『리어 왕』(*King Lear*)은 아시아에서,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는 일본의 ‘망가’(manga)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또한 『소네트』(*The Sonnets*)와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은 뉴질랜드에서 마오리(Maori) 언어로 번역되어 그 공연이 주된 행사가 되었다. 심지어 <스타트렉 VI: 미지의 세계>에서 악역으로 분한 외계행성 클링온(Klingon)의 지도층들이 지구의 셰익스피어를 언급하며 소네트의 시어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미국에서도 셰익스피어 문학이 <스타트렉> 시리즈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sup>6)</sup> 먼저 <스타트렉 오리지널 시리즈>(*The Original Series*, 1966-1969)에 응용된 사례를 보면, 11번째 에피소드

6) 이후 각 시리즈를 소개한 뒤 그것에 포함된 이야기들의 시리즈 명을 생략하고, 인용된 희곡과 소네트의 작가가 셰익스피어임을 전제로 한다.

의 제목 “마음의 단검”(Dagger of the Mind)은 『맥베스』(*Macbeth*)에서 인용된 것이고, 12번째 에피소드 “왕의 양심”(The Conscience of the King)에서 커크(Kirk) 선장이 한 저명한 셰익스피어 극단 배우가 수 년 전에 잔인한 집단 살인을 저지른 것을 의심하면서 『햄릿』(*Hamlet*)의 내용을 응용한다.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은 30번째 에피소드 “캐츠포”(Catspaw)에서도 드러난다. 즉 엔터프라이즈호 승무원들이 파이리스(Pyris)Ⅶ 행성에서 마녀와 검은 고양이 그리고 귀신이 출몰하는 성을 발견하는 장면은 『맥베스』(*Macbeth*)에서 맥베스(Macbeth)와 반코(Banquo)가 겪은 상황과 비슷하다. 또한 50번째 에피소드 “어떤 다른 이름으로”(By Any Other Name)의 제목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내용을 응용한 것으로서 커크는 장미와 비슷한 꽃을 들고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계 행성의 한 외계인 여성에게 “우리가 어떤 다른 이름으로 장미라고 부르는 것도 똑같이 향기를 풍깁니다(That which we call a rose by any other name would smell as sweet)”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그리고 57번째 에피소드 “트로이우스의 엘란”(Elaan of Troyius)에서 커크는 『말괄량이 길들이기』(*The Taming of the Shrew*)에서의 페트루시오(Petruchio)와 비슷한 역할을 하여 엘라스(Elas)의 아름다운 여인 엘란을 트로이우스 행성에서 예정된 결혼식에 도착하도록 돕는다. 71번째 에피소드 “신들은 누구를 파괴하는가”(Whom Gods Destroy)에서는 오리온(Orion)의 여성, 마르타(Marta)가 커크를 유혹할 때 소네트 18번에 나온 사랑의 메시지를 인용한다. 마지막 사례로서 78번째 에피소드 “모든 우리의 어제들”(All Our Yesterdays)에서 스폭(Spock), 과 맥코이(McCoy)는 이제 곧 초신성이 될 처지에 놓인 사르페이온(Sarpeidon) 행성의 머나먼 과거에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서 스폭은 그들과 같은 처지에 놓인 여인 자라메스(Zarabeth)에게 반하지만 현재의 세계에 무사하게 남아있던 커크(Kirk)에 의해 무사히 구출된다. 이 이야기의 신비스런 분위기는 『맥베스』에서 마녀들이 예언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1987년에서 1994년까지 흥행했던 <스타트랙> 두 번째 시리즈, <스타트랙: 차세대>(Star Trek: The Next Generation)는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가장 많이 이용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첫 번째 에피소드 “과포인트에서 조우”(Encounter

at Farpoint)에서 엔터프라이즈 호 선원들은 외계인 큐(Q)에 의해서 맡겨진 파포인트 역에서의 미스테리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다. 이 과정에 피카드(Picard)는 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로 모든 범람가들을 죽여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헨리 6세』(*Henry VI, Part II, IV.ii.74*)에 나온 대사를 인용한다. 그리고 3번째 에피소드, “이제 벌거벗다”(The Naked Now)에서 인조인간 데이터(Data)는 이성을 잃게 하는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고 횡설수설하는 도중 『베니스의 상인』(*Merchant of Venice*)에서의 유명한 대사 “당신이 나를 찌를 때 나는 피를 흘리지 않는가(When you prick me, do I not leak)?”라고 말한다(III. I. 60-61).

그런가 하면 11번째 에피소드 “숨어라 그리고 큐”(Hide and Q)는 “은 은하계가 무대이다(All the galaxy is a stage)”라는 명언을 남기지만 그것은 『뜻대로 하세요』(*As You Like It*)의 대사를 인용한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파포인트에서 조우」의 큐가 등장하여 막강한 힘을 발휘하자 이것에 반응하여 피카드 선장은 인간을 예찬하며 『햄릿』의 대사를 다름과 같이 인용한다. “인간은 위대한 작품이다! 숭고한 이성, 무한한 능력, 외모와 움직임에 있어서 얼마나 빠르고 존경스러운지, 작용에 있어서 천사와 같고, 걱정이 있을 때 신과 같다”(What a piece of work is man! How noble in reason, how infinite in faculties, in form and moving how express and admirable, in action how like an angel, in apprehension how like a god!, II. ii. 304-308).

이어서 58번째 에피소드 “탈주자”(The Defector)의 첫 장면에서 주제와 관계 없이 데이터와 피카드는 『헨리 5세』(*Henry V*)의 한 장면을 연기한다. 자신의 아버지의 반역죄 누명을 벗기려고 애쓰는 클링온(Klingon) 행성의 워프(Worf) 중위를 등장시킨 65번째 에피소드, “아버지의 죄들”(Sins of the Father)의 제목은 『베니스의 상인』에서 렌스롯(Lancelot)이 제시카(Jessica)에게 했던 대사에 기인한다. 한편 72번째 에피소드, “삼자동거”(Menage A Troi)에서 피카드는 데몽 톡(DaiMon Tog)으로부터 룩사나 트로이(Lwaxana Troi)를 구출하는 과정에 소네트 제147편과 제141편 그리고 제18편에 나온 내용을 다음과 같이 혼합하여 인용한다.

나의 사랑은 열병과 같다, 병은 그것을 더 오래 가게 하는 것을 동경하며(147), 진실로 나는 눈으로 그대를 사랑하지 않노라. 눈은 그대에게서 천(千)의 허물을 보기 때문이라. 그러나 눈이 멸시하는 것을 시각엔 상관없이 나의 마음은 매혹된 듯이 사랑하도다. 그래서 이성의 눈이 있음에도 그대에게 나를 기꺼이 희생하리라(141). 내가 그대를 여름의 낮으로 비유해도 되나요?(18)

My love is a fever, longing still for that which longer nurseth the disease(147), in faith I do not love thee with mine eyes for they in thee a thousand errors see, but 'tis my heart, that loves what they despise, who in despite of view, are pleased to dote(141). Shall I compare thee to a summer's day?(18)

제147편

나의 사랑은 열병과 같다.  
 병은 그것을 더 오래 가게 하는 것을 동경하며,  
 병은 그것을 더 길게 끌고 갈 것을 먹는도다,  
 입맛을 잃은 미각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나의 병을 고쳐야 할 의사인 이성은  
 약방문대로 하지 않는다고 성을 내며 나를 떠나고  
 나는 절망 끝에 알게 되었노라,  
 치료를 아니 받는 열병은 곧 죽음인 것을.  
 고치기엔 늦었고, 이성은 이미 가버렸도다,  
 끝없는 불안으로 광증에 빠져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다 미친 사람같이  
 대응할 수 없고 허황되도다.  
 아름답다 선언하고 찬란하다 생각하노라,  
 지옥같이 검고 밤같이 어두운 그대를.

My love is as a fever longing still,  
 For that which longer nurseth the disease;  
 Feeding on that which doth preserve the ill,  
 Th'uncertain sickly appetite to please.  
 My reason, the physician to my love,  
 Angry that his prescriptions are not kept,  
 Hath left me, and I desperate now approve  
 Desire is death, which physic did except.  
 Past cure I am, now Reason is past care,  
 And frantic mad with evermore unrest;  
 My thoughts and my discourse as madmen's are,  
 At random from the truth vainly expressed;  
 For I have sworn thee fair, and thought thee bright,

Who art as black as hell, as dark as night.

제141편

진실로 나는 눈으로는 그대를 사랑하지 않노라.  
 눈은 그대에게서 천(千)의 허물을 보기 때문이라.  
 그러나 눈이 멸시하는 것을 시각엔 상관없이  
 나의 마음은 매혹된 듯이 사랑하도다.  
 나의 귀도, 그대 하는 말을 즐기지 않도다.  
 섬세한 촉감은 저열한 자극에 기울어지지 않고  
 미각도 후각도 그대와 같이  
 어떤 육(肉)의 향연에도 초대 받으려 하지 않노라.  
 그러나 나의 지력(知力)도, 나의 오감(五感)도  
 어리석은 마음이, 그대 섬기는 것을 막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음은 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허수아비로 두고 가도다,  
 거만한 마음의 노예, 비천한 시종이 되려고.  
 오직 나의 이런 고통만을 이익으로 여기노라,  
 나에게 죄를 짓게 한 그녀가 주는 고행이기에.

In faith I do not love thee with mine eyes,  
 For they in thee a thousand errors note;  
 But 'tis my heart that loves what they despise,  
 Who, in despite of view, is pleased to dote.  
 Nor are mine ears with thy tongue's tune delighted;  
 Nor tender feeling to base touches prone,  
 Nor taste, nor smell, desire to be invited  
 To any sensual feast with thee alone:  
 But my five wits nor my five senses can  
 Dissuade one foolish heart from serving thee,  
 Who leaves unswayed the likeness of a man,  
 Thy proud heart's slave and vassal wretch to be:  
 Only my plague thus far I count my gain,  
 That she that makes me sin awards me pain.

제18편

내 그대를 한여름날에 비겨볼까?  
 그대는 더 아름답고 더 화창하여라.  
 거친 바람이 5월의 고운 꽃봉오리를 흔들고,  
 여름의 기한은 너무나 짧아라.  
 때로 태양은 너무 뜨겁게 쬐고,  
 그의 금빛 얼굴은 호려지기도 하여라.  
 어떤 아름다운 것도 언젠가는 그 아름다움이 기울어지고

우연이나 자연의 변화로 고운 치장 뺏기도다.  
 그러나 그대의 영원한 여름은 퇴색하지 않고,  
 그대가 지닌 미는 잃어지지 않으리라.  
 죽음도 뺏내진 못하리, 그대가 자기 그늘 속에 방황한다고  
 불멸의 시편 속에서 그대 시간에 동화(同和)되나니.  
 인간이 숨을 쉬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한  
 이 시는 같고 그대에게 생명을 주리.

Shall I compare thee to a summer's day?  
 Thou art more lovely and more temperate:  
 Rough winds do shake the darling buds of May,  
 And summer's lease hath all too short a date:  
 Sometime too hot the eye of heaven shines,  
 And often is his gold complexion dimmed,  
 And every fair from fair sometime declines,  
 By chance, or nature's changing course untrimmed:  
 But thy eternal summer shall not fade,  
 Nor lose possession of that fair thou ow'st,  
 Nor shall Death brag thou wander'st in his shade,  
 When in eternal lines to time thou grow'st,  
 So long as men can breathe, or eyes can see,  
 So long lives this, and this gives life to thee.

셰익스피어의 영향은 계속되어 79번째 에피소드, “기억해주오”(Remember Me)의 제목이 『햄릿』(Hamlet)의 제1막, 5장에서 햄릿 아버지의 유령이 한 대사를 인용한 것이고, 168번째 에피소드, “당신 자신만의 자아”(Thine Own Self)의 경우에는 같은 작품에서 폴로니우스(Polonius)가 주인공에게 했던 충고에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127번째 에피소드, “시간의 화살”(Time's Arrow) 파트 II는 19세기 미국으로 간 데이터를 구조하기 위해 떠난 피카드가 외계인들로부터 외계인을 구한다. 이 일에 성공하고 나서 선원들은 『한 여름 밤의 꿈』(A Midsummer Night's Dream)을 연기한다. 마지막으로 “긴급사태”(Emergence)는 175번째 에피소드로서 데이터가 『템페스트』(The Tempest)의 마지막 장면에 나온 프로스페로(Prospero)의 연기를 하면서 시작한다. 우연하게도 이 이야기가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템페스트』가 셰익스피어의 무대 고별작품인 것과 일치된다.

제1세대와 제2세대 TV 시리즈가 영화로도 출시되었는데, 영화에서 인용된 사례를 보면 <스타트렉 IV: 귀향>(The Voyage Home)에서 맥코이가 “천사들과 우아한 목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길(Angels and ministers of grace, defend us)!”이라고 말함으로써 『햄릿』으로부터 대사를 차용한 경우도 있지만, <스타트렉 VI: 미지의 세계>(The Undiscovered Country)는 제목을 『햄릿』에서 차용했던 것에 더하여 악역으로 등장한 클링온 행성의 창(Chang) 장군은 수많은 셰익스피어 작품들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그 예들을 나열하면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 II.ii. 184), 『헨리 4세』(Henry IV, III.ii.212), 『리처드 2세』(Richard II, III.ii.155-56), 『헨리 5세』(Henry V, III.i. 1; III.i.32), 『줄리어스 시저』(Julius Caesar, III.ii.168; III.i.60; III.i.274), 『템페스트』(The Tempest, III.i..148), 『베니스의 상인』(Merchant of Venice, III.i.56-63), 『햄릿』(Hamlet, V.ii.10-11; I.iii.78; V.i.163; III.i.58-60; III.i.57)이다. 심지어 이 영화에서 외모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외계인 마티아(Martia)는 룰라 펜테(Rura Penthe) 감옥행성에서 커크와 맥코이를 함정에 빠뜨리는 역할을 하면서 “나는 기분을 좋게 하는 모양을 뽐낼 것이라고 생각했다(I thought I would assume a pleasing shape)”(II.ii.612)고 말한 것은 햄릿이 말하는 악마의 모습과 동일하다.

이후 제3세대 시리즈 <딥 스페이스 나인>(Star Trek: Deep Space Nine, 1993-1999)에서 4번째 에피소드, “지난 프롤로그”(Past Prologue)와 14번째 에피소드, “돌과 같은 심장”(Heart of Stone) 그리고 157번째 에피소드 “한 번 더 해변으로”(Once More Into the Beach)가 각각 『템페스트』(The Tempest)와 『십이야』(Twelfth Night) 그리고 『헨리 5세』(Henry V)에서 제목을 차용했다. 뿐만 아니라 67번째 에피소드 “주사위는 던져졌다”(The Die is Cast)와 174번째 이야기 “전쟁의 개들”(The Dogs of War)은 셰익스피어가 줄리어스 시저에 대해 저술한 작품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Loerke). 그리고 제4세대 시리즈 <스타트렉: 보이저>(Star Trek: Voyager, 1995-2001)의 12번째 에피소드 “죽음의 고리”(Mortal Coil)는 햄릿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와 관계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보았듯이 <스타트렉> 시리즈물에 나타난 셰익스피어 작품들의 인용회수와 정도가 이 영상물이 만들어진 이후 약 25년 동안 즉 냉전시기에 집중되었다. 셰익스피어 문학이 이 영상물들의 대사와 줄거리 그리고 주제에 인용되거나 상호텍스트 형태로 끼친 영향력이 제1세대와 제2세대 시리즈에 비해 제3세대와 제4세대 시리즈에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제5세대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시리즈(2001-2005)와 심지어 제2세대 TV 시리즈 연기자들이 등장한 <스타트렉> 영화 제7편 <세대들>(Generations, 1994)에서 제10편 <니메시스>(Nemesis, 2002)까지 계속되었다. 그와 동시에 제2세대까지 다루어졌던 핵심주제로서 인간을 외계인과 비교해서 정의했던 것이 제3세대 이후에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이건근, 2016). 이 현상은 평화를 이상으로 한 전세계주의가 퇴보하고, 그 대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공지능 문명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변화 때문에 미래 과학과 기술에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적어도 영상물에서는 유일무이한 힘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출시된 3편의 복고풍 영화들 즉 <스타트렉>(Star Trek, 2009)과 <인투 다크니스>(Into Darkness, 2013) 그리고 <비욘드>(Beyond, 2016)가 제1세대 시리즈의 주제의식 즉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갖춘 인간이 외계인들과 우주평화를 추구한다는 전세계주의 이상을 복원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스타트렉> 시리즈에 나타난 전세계주의의 몰락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국 제일주의 경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박하게 변화해온 국제정세에 기인했음은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물에 대한 셰익스피어 문학의 관여가 냉전시기에 집중되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냉전 당시 정치가들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양대 세력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이념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려는 의도에서 서로 혜택을 주고 받는 호혜적 전세계주의를 표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스타트렉> 시리즈는 셰익스피어 작품들의 다원성에 힘입어 그러한 필요에 절묘하게 응답을 했다. 예를 들어 소네트에서 셰익스피어는 화자의 입을 빌어 이상화된 외모가 언제든지

꾸며질 수 있고 무엇보다 세월에 따라 시들어 버리므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존재하는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릴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교훈을 <스타트렉>의 배경이 되는 우주의 상황에 적용하면, 생긴 모습이 제각각인 외계인들을 모두 존중해야 하고 지구의 인간만을 정상인 것으로 할 수 없으므로 우주 생명체들의 다원성을 인정해야 한다.

소네트에 담긴 다원성을 시의 텍스트에 근거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셰익스피어는 감정에 의하여 인간의 이성적 시각이 현혹될 수 있다고 보고, 타인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여 사람과 사물이 가진 다원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소네트는 화자가 젊은 남성에게 대해서 사랑을 호소하고, 정조개념이 약한 여인에게 대해서 욕정의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타트렉> 제1세대 시리즈가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모두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을 말했던 것처럼(이건근 123-38),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욕정이 “야만이요, 과격이요, 무례요, 잔학이요, 불신이라,(savage, extreme, rude, cruel, not to trust)”는 상태를 초래한다고 말하고, 실제 삶에서 발견되는 난잡한 사랑을 이성적으로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29편

욕정을 행하는 것은 수치스런 낭비에 의한 정신적 소모라  
 행하기 전까지도 욕정은  
 위증이요, 살인이요, 잔인이요, 오욕이라,  
 야만이요, 과격이요, 무례요, 잔학이요, 불신이라,  
 향락이 끝나면 곧 경멸이요  
 이성을 지나쳐 추구하고 그것을 얻자마자  
 이성을 지나쳐 미워하도다,  
 마치 삼킨 자에게 고통 주려고 고의로 놓여진 미끼를 미워하듯,  
 추구하는 동안도 광증이며, 얻은 뒤도 광증이라.  
 행한 뒤도, 행하고 있는 것도, 행하려는 그것도 다 극단이라,  
 경험 중에는 축복이요, 경험 뒤에는 비애라,  
 그전에는 환희요, 그후에는 악몽이라.  
 이 모든 것을 세상은 알지만 잘 아는 이 없으라,  
 지옥으로 사람을 이끄는 그 천국을 피할 줄을.

The expense of spirit in a waste of shame

Is lust in action, and till action, lust  
 Is perjured, murd'rous, bloody, full of blame,  
 Savage, extreme, rude, cruel, not to trust:  
 Enjoyed no sooner but despisèd straight,  
 Past reason hunted, and no sooner had,  
 Past reason hated as a swallowed bait  
 On purpose laid tp make the taker mad:  
 Mad in pursuit and in possession so,  
 Had, having, and proved, a very woe,  
 Before, a joy proposed, behind, a dream.  
 All this the world well knows yet none knows well  
 To shun the heaven that leads men to this hell.

그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녀들이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사랑으로 오관하고, 감성적인 사랑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작가의 생각이다. 소네트 24번은 “진정한 모습이 그려졌는지, 그 기교는/화가 자신을 거쳐서만 알 것이,, / (…)/ 그림은 고요히 나의 가슴의 화실에 걸리고, / 그대의 눈은 그 방의 창문.(For through the painter must you see his skill, / (…)/ Which in my bosom's shop is hanging still, / That hath his windows glazed with thine eyes)”고 노래함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강조한다.

제24편

나의 눈은 화가가 되어 그대의 미모를,  
 나의 가슴의 화관에 옮겨 놓았노라.  
 나의 몸은 그 그림의 틀  
 최상의 화가의 기술이 원근법을 썼노라.  
 진정한 모습이 그려졌는지, 그 기교는  
 화가 자신을 거쳐서만 알 것이,  
 그림은 고요히 나의 가슴의 화실에 걸리고,  
 그대의 눈은 그 방의 창문.  
 이렇게 눈과 눈이 서로 도와  
 나의 눈은 그대의 모습을 그리고,  
 그대의 눈은 나의 가슴의 창이 되어, 태양은  
 그 창으로 그대의 모습을 보려 하도다.  
 그러나 내 눈은 작품을 우아하게 할 재주 없어,  
 보이는 것은 그려도 마음은 몰라라.

Mine eye hath play'd the painter and hath stell'd,  
 Thy beauty's form in table of my heart;  
 My body is the frame wherein'tis held,  
 And perspective it is best painter's art.  
 For through the painter must you see his skill,  
 To find where your true image pictured lies,  
 Which in my bosom's shop is hanging still,  
 That hath his windows glazed with thine eyes.  
 Now see what good turns eyes for eyes have done:  
 Mine eyes have drawn thy shape, and thine for me  
 Are windows to my breast, where-through the sun  
 Delights to peep, to gaze therein on thee;  
 Yet eyes this cunning want to grace their art,  
 They draw but what they see, know not the heart.

이와 같이 실제와 분리된 심상은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후기 구조주의적 “행선지”(destination) 개념까지는 아닐지라도 주어진 환경에 따라 사물의 외연이 항상 변화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같은 취지로 소네트 130번은 “눈이 희다면 그 가슴은 검은 편이: / (…)/ 나는 홍조를 띠, 붉고도 흰 장미를 보았지만 / 그녀의 뺨에서는 그런 장미를 볼 수 없어라.(If snow be white, why then her breasts are dun: / (…)/ I have seen roses damasked, red and white, / But no such roses see I in her cheeks)고 말함으로써 사랑의 동력이 이성보다 감성에 있음을 보여준다.

제130편

내 애인의 눈은 조금도 태양 같지 않아라  
 산호는 그의 입술이 빨간 것 보다 더 빨강고  
 눈이 희다면 그 가슴은 검은 편이,  
 머리털이 금줄이라면 그녀의 머리털은 검은 실줄이다.  
 나는 붉고도 흰 장미를 보았지만  
 그녀의 뺨에서는 그런 장미를 볼 수 없어라.  
 어떤 향수에는 그녀의 입김보다도  
 더 좋은 냄새가 있어라.  
 그 음성을 내 사랑하지만  
 음악만은 못한 것을 내 아노라.  
 여신이 걷는 것을 나는 못 보았거니

나의 여신은 언제나 땅을 밟도다.  
그러나 단정코 나의 애인은  
거짓을 견주어보는 누구보다 진귀하여라.

My mistress' eyes are nothing like the sun;  
Coral is far more red than her lips' red;  
If snow be white, why then her breasts are dun;  
If hairs be wires, black wires grow on her head.  
I have seen roses damasked, red and white,  
But no such roses see I in her cheeks;  
And in some perfumes is there more delight  
Than in the breath that from my mistress reeks.  
I love to hear her speak, yet well I know  
That music hath a far more pleasing sound;  
I grant I never saw a goddess go;  
My mistress, when she walks, treads on the ground:  
And yet, by heaven, I think my love as rare  
As any she belied with false compare.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은 <스타트렉> 시리즈의 원조세대부터 등장한 수많은 외계인들이 상징하는 국제사회의 여러 인종들에 대한 편견을 금지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와 러시아의 무뚝뚝한 발성을 가진 클링온족, 논리성과 광기를 겸한 벌컨족(Vulcans), 탐욕을 연상하게 하는 페렌지족(Ferengi), 기만적인 로물란족(Romulans), 호전적인 카다시안족(Cardassians), 그리고 종교적인 바조란족(Bajorans) 등 많은 외계인들이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 별난 외모와 조화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 생물일는지 모르지만, 개척정신을 추구하는 영화 속 엔터프라이즈 승무원들은 그들을 한 우주를 공유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적어도 <스타트렉>에서는 세계의 다원성을 부인하는 모든 시도가 범죄시된다. 그러므로 TV 시리즈의 각 에피소드에서 악역으로 등장한 인물들은 이러한 다원성에 도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소네트의 다원성에 관련하여 두 번째로 알아보아야 할 것은 아름다움과 시간 그리고 예술의 관계로서 셰익스피어는 아름다움의 유한함을 예술행위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상을 구체화하지 않음으로써 다원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소네트 제1편에서 제17편까지 화자는 젊은 남성에게 자식을 낳음으로써

아름다움의 상실과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강권한다. 여기에서 아름다움의 의미는 젊음을 지칭하며, “죽음과 함께 그 젊음도 사라지는 것”(Die single and thine image dies with thee)을 안타깝게 여겨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후손을 낳아야 한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제1편에서 제126편까지 계속되는 출산에 대한 강조는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서 소네트의 사회성과 윤리성이 드러난 부분이기도 하다. 이 시들이 쓰인 당시 영국은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아이들이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가 속출하였고, 남녀가 사랑해서 후손을 많이 낳는 것은 국가와 사회를 보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즉 출산 자체는 역사학적 대상이 될지언정 문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그 대신에 소네트 제18편에서 셰익스피어는 “인간이 숨을 쉬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한/ 이 시는 살고 그대에게 생명을 주리”(So long as men can breathe or eyes can see, / So long lives this, and this gives life to thee)라고 말하면서 아름다움의 유한성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이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란 예술행위로서 시작(詩作)을 의미한다. 시인으로서 셰익스피어는 소네트 제15편에서 예술 활동의 범위를 “이 거대한 무대(this huge stage)”로 간주하고, 소네트 제55편에서 “그러기에 그대가 재생활 심판날까지, / 그대는 내시 속에, 그리고 애인들 눈 속에 살으리라”(So till the judgment that yourself arise, / You live in this, and dwell in lovers' eyes)라고 말함으로써 예술행위를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동일시한다. 나아가 소네트 제74편에서 육체에 가치를 주는 것은 이 시가 담고 있는 정신이며 “그것은 바로 이것으로, 이것은 그대와 함께 살아남을 것이다”(And that is this, and this with thee remains)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이 정신작용임을 암시하고, 소네트 제107편에서 “그대는 이 노래 속에서 그대의 기념비를 찾으리라”(And thou in this shalt find thy monument)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후손을 출산하여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 제15편

생물이 그 완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다만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또 이 거대한 인생 무대는  
 많은 별들이 알지 못할 감화를 주며 비판하는  
 한낱 ‘쇼우’를 연출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또 사람의 번식도 식물처럼 하늘의 도움도 받고 방해 받으며,  
 젊은 혈기 속에서 뿔내다가 절정에 도달하면 곧 시들어,  
 그 미모가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무상에 대한 나의 상상은 내 눈앞에  
 그대의 찬란한 청춘을  
 포악한 ‘시간’이 쇠퇴와 공모하여  
 더러운 밤으로 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노라.  
 나는 그대를 위하여 ‘시간’을 대적하여  
 그가 그대 뺏으려 할 때 시(詩)로서 새롭게 접목하노라.

When I consider every thing that grows  
 Holds in perfection but a little moment,  
 That this huge stage presenteth nought but shows  
 Whereon the stars in secret influence comment;  
 When I perceive that men as plants increase,  
 Cheered and checked even by the self-same sky,  
 Vaunt in their youthful sap, at height decrease,  
 And wear their brave state out of memory;  
 Then the conceit of this inconstant stay  
 Sets you most rich in youth before my sight,  
 Where wasteful Time debateth with Decay  
 To change your day of youth to sullied night,  
 And all in war with Time for love of you,  
 As he takes from you, I engraft you new.

제55편

대리석도, 왕후를 위하여 세운  
 금빛 찬란한 기념비도, 이 시보다 오래 남지 못하리라.  
 오랜 세월에 더럽혀지고 청소도 아니 한 비석보다  
 그대는 이 시 속에 빛나리라.  
 파괴만 하는 전쟁이 동상을 무너뜨리고,  
 분쟁이 건축물의 초석을 뽑을 때에도  
 군신의 칼도, 급한 불도,  
 그대를 기념하는 이 생생한 기록을 태우지 못하리.  
 죽음과 모든 것을 잊게 하는 적을 물리치고  
 그대는 전진하리라, 그대의 예찬은  
 말세까지 이 지상에 영속할  
 자자손손의 눈 속에 남으리라.

그러기에 그대가 재생활 심판날까지  
그대는 내 시 속에, 그리고 애인들 눈 속에 살으리라.

Not marble, nor the gilded monuments  
Of princes, shall out live this powerful rhyme;  
But you shall shine more bright in these contents  
Than unswept stone, besmeared with sluttish time.  
When wasteful war shall statues overturn,  
And broils root out the work of masonry,  
Nor Mars his sword, nor war's quick fire shall burn  
The living record of your memory.  
'Gainst death, and all-oblivious enmity  
Shall you pace forth; your praise shall still find room  
Even in the eyes of all posterity  
That wear this world out to the ending doom.  
So, till the judgment that your self arise,  
You live in this, and dwell in lovers' eyes.

제74편

그러나 안심하시라, 저 잔악한 포교(捕校)가  
어떠한 보석(保釋)도 허락지 않고 나를 데려갈 때면  
나의 생명은 이 시 안에 얼마의 몫을 가져  
이 시는 오래도록 그대 곁에 있는 나의 기념물이 되리라.  
그대가 이 시를 다시 읽으시면, 그 핵심이  
그대께 바쳐졌음을 아시리라.  
흠에 돌아가는 것 오직 흠뿐이라, 이는 당연한 그의 몫이요.  
그처럼 나의 영혼은 그대의 것, 그것은 나의 좋은 부분이라.  
나의 육신이 죽어서 벌레의 재물이 되어도  
그대가 잃은 것은 단지 생명의 찌꺼기일 뿐.  
어느 철면피의 칼에 비열한 승리가 이루어져도  
이는 그대가 기억하시기엔 너무 미천한 일이어라.  
그것의 가치는 그것이 안에 지니고 있는 것이라,  
그것은 바로 이것으로, 이는 그대와 함께 남을 것이니라.

But be contented: when that fell arrest  
Without all bail shall carry me away,  
My life hath in this line some interest,  
Which for memorial still with thee shall stay.  
When thou reviewest this, thou dost review  
The very part was consecrate to thee:  
The earth can have but earth, which is his due:

My spirit is thine, the better part of me:  
 So then thou hast but lost the dregs of life,  
 The prey of worms, my body being dead;  
 The coward conquest of a wretch's knife,  
 Too base of thee to be remembered,  
     The worth of that is that which it contains,  
 And that is this, and this with thee remains.

예술에 대한 이와 같은 집착은 소네트 제15편에서 제18편까지 인간을 식물에 비유하여 시간의 경과와 인생의 덧없음 그리고 늙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듯이 아름다운 것일수록 그것의 사라짐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진다는 시인의 호소로 나타난다. 셰익스피어가 감상적 오류(pathetic fallacy)방법으로 꽃과 나무 그리고 별을 통해 인생의 유한성을 표현하고 있지만, 인류사적 관점에서 보면 예술이 모든 인간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을 계승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그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시를 쓴다는 것은 “시간과 싸우는 과정(in war with time)”이며, “지나간 세월의 기록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의 묘사를 볼 때(see descriptions of the fairest wights,)” 효과를 가진다. 즉 셰익스피어는 예술을 통해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인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후손들이 이 교훈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다.

제106편

지나간 세월의 기록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의 묘사를 볼 때,  
 또 죽은 귀부녀와 수려한 기사를 예찬하며  
 미인 중의 미인의  
 손, 발, 입술, 눈, 이마를 보여준  
 고가(古歌)를 아름답게 만든 미를 볼 때,  
 나는 그들의 옛 필치가  
 그대가 지금 지닌 미를 표현한 것으로 아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예찬은  
 그대를 예상하고 우리 시대를 예언한 것에 지나지 않노라.  
 그들은 다만 짐작하는 눈으로 보았으므로  
 그대의 진가를 노래할 만한 역량을 갖지 못했노라.  
     지금 이 현대를 보는 우리는  
     경탄할 눈은 있어도 찬미할 혀는 없도다.

When in the chronicle of wasted time  
 I see descriptions of the fairest wights,  
 And beauty making beautiful old rhyme,  
 In praise of ladies dead and lovely knights,  
 Then, in the blazon of sweet beauty's best,  
 Of hand, of foot, of lip, of eye, of brow,  
 I see their antique pen would have expressed  
 Even such a beauty as you master now.  
 So all their praises are but prophecies  
 Of this our time, all you prefiguring;  
 And for they looked but with divining eyes,  
 They had not skill enough your worth to sing:  
 For we, which now behold these present days,  
 Have eyes to wonder, but lack tongues to praise.

셰익스피어 소네트에 함축된 사회성에 대해서 19세기 미국 남부의 대표적인 소설가 심스(William Gilmore Simms)는 이 시들이야말로 관능적인 감각과 형이상학적 사고를 혼합하여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칭찬한다. 심스는 소네트에 나타난 낭만주의적 전형 즉 감성이 이성애 앞선 성격을 강조하고,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 워즈워드(William Wordsworth)가 시를 정의함에 있어서 소네트 작법과정을 “강력한 감정의 자발적인 범람”(the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s, Wordsworth 460)이라고 말했던 것에 동의한다. 뿐만 아니라 심스는 “만약 시가 나무에서 나뭇잎이 나오듯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등장하지 말아야 한다”(if Poetry comes not as naturally as the Leaves to a tree it had better not come at all)고 말한 키츠(John Keats)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소네트의 낭만적 성향을 거듭 강조한다(Simms 70).

소네트의 사회적 감성을 강조한 심스의 견해는 이러한 시들이 단지 개인적인 사랑과 애증만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사랑의 덕목 즉 정신적 교화를 간절한 어조로 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는 인간 모두를 아름답다고 표현한 사회적 휴머니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타트렉>의 전기 세대 작품들에 인용된 감성적인 시어들

이 상업주의적 천박함을 희석시키려고 한 것이거나 유명한 영국문호를 미국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평가는 작품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은 결과이다. 상호텍스트성은 모든 텍스트가 잔존한 다른 텍스트와의 필연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에서 출발하며, 독자 또는 시청자가 작품을 읽거나 시청하기 전부터 그것의 내용과 형식에 일정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Childers 161). <스타트렉> 시리즈에 소네트가 이용된 의미는 인물의 대사에 흥미를 주는 효과보다 작품 전체에 상당한 사회의식을 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소네트 등 셰익스피어 문학의 영향력이 <스타트렉> 제3세대 이후 시리즈에서부터 점점 약해지더니 나중에는 거의 소멸된 상태에 있을까? 진화적 문학사론을 주장하는 보이드(Brian Boyd)는 셰익스피어 소네트가 “이야기에 대한 시청자의 기대치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 일정한 유형의 연극을 제공함으로써”(by defeating our expectations for story and by offering patterned play instead)”(Gewanter and Boyd) 내러티브가 없는 단점을 보완해왔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인터넷 문화가 보급되면서 훨씬 가속화된 대중들의 내러티브 선호경향 이외에도 미국의 정치외교정책의 변화가 이 영상물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다.

<표 1> <스타트렉> 제3세대(1993-1999)를 전후로 한 국제정세와 4차혁명 전조기술

년도	국 제 정 세	4차 산업혁명 전조 기술
1989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동구유럽 국가의 독립	
1990	통일독일이 수립되고 미국과 소련간의 평화무기협정으로 냉전이 종식됨	
1992	미국 부시 대통령과 소련 엘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냉전종식 선언함	
1996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무슬림정권 득세하고 무력단체 알카에다 캠프가 설치됨	
2001	9월 11일에 미국 세계무역센터에 테러공격	미국 인구 절반이 인터넷을 사용함
2002		개인용 컴퓨터 판매고가 10억 건에 도달함

2003	부시대통령이 유엔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이라크를 침공함	
2004	이라크 침공의 부당함이 발표되지만 부시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	사회적 네트워크 웹사이트인 페이스북이 시작됨
2005		유튜브가 최초의 영상물을 게시함
2007		애플사가 아이폰을 출시하여 백만 개를 판매함
2008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군의 폭력상이 탈레반과 알케에다의 부활을 촉진시킴	미국 공상과학애니메이션 “월-이”가 인기를 얻음

출처: Ganzel(2009); [http://www.livinghistoryfarm.org/farminginthe70s/worldevents\\_01.html](http://www.livinghistoryfarm.org/farminginthe70s/worldevents_01.html)

<표1>에서 보듯이 1990년대에 냉전시대가 종결되자 국제질서는 초강대국으로서 홀로 남게 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좌우되는 새로운 현상을 보였다. 특히 애플,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에 이르기까지 4차 산업혁명을 예고하는 전조가 가세하더니 이제 미국은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여기에 “새로운 삶과 새로운 문명을 찾아서 전에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대담하게 나선다(seek out new life and new civilization, and to boldly go where no one has gone before)”는 커크 선장의 말처럼 전 세계주의 이념에 따라 수많은 이민자들과 고학력 여성들이 기독교 백인 남성본위의 기본 질서를 흔들어놓았다. 그 결과 미국은 급격하게 보수화되었고, 상당수의 미국인들은 자신의 나라가 세계문화를 지배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즉 절대적인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 있는 미국에게 아랍 극우세력과 북한과 같은 호전적인 국가들의 위협은 오히려 미국 제일주의의 부활에 좋은 명분이 된 것이다.

### 3. 소네트의 사회적 의미

50년 이상을 미국과 전 세계의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스타트렉> 시리즈는 원제작자 로덴베리(Gene Roddenberry)가 1991년에 사망한 이후 전세계주의적 경향 즉 세계의 모든 지역민들이 그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상이 제3세대 이후 후속세대 시리즈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했다. 제3세대에서 흑인을 주인공으로, 제4세대에서 여성을 선장으로 하는

실험이 시도되었지만, 전기 세대에서 나타났던 역동적이고 다양한 사건들을 발견하기 어려운 탓으로 비평과 상업적인 모든 부분에서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다. 더욱이 이러한 세대 간 변화된 모습은 이 영상물에 셰익스피어 문학이 인용된 횟수와 정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주제면에 있어서 그 문학과 영상물의 인과관계가 흥행에 반드시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제1세대와 제2세대 시리즈에서 셰익스피어 문학이 애용되었던 것에 비해 후속세대 작품들은 그것의 이용을 점점 감소시켜서 현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 상호텍스트성으로 재현되는 특징이 강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가 인류의 다원성에 기초한 사회윤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이 시들은 감정에 의한 오판을 이성적 판단으로 통제해야 함과 예술을 통해 유한한 인간의 삶을 연장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 셰익스피어는 이 시들의 대상을 젊은 남성과 세속적인 여성으로 삼고 있지만, 그들을 구체화하지 않는 작법을 154편의 모든 시에 사용함으로써 결국 모든 독자들에게 자신의 교훈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역력하다. 그는 변하지 않는 별과는 달리 인간을 나무에 비유하여 늙어 죽어가는 과정에서 유한성을 깨달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젊음과 세속적 쾌락 대신에 예술적 행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소네트는 개인의 애정표현 이외에 사회적 다원성을 강조한 질은 휴머니즘을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스타트렉> 시리즈에서 셰익스피어에 대한 언급이 희미해져갔음은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세계주의보다 미국 제일주의로 옮겨갈 것임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VI. 결 론

지금까지 상호텍스트성의 측면에서 소네트를 적용한 셰익스피어 후대의 다양한 영상물과 사회 문화적 양상을 조망하며 살펴보았다. 21세기에 들어서 문학과 다른 분야의 예술적 관계를 논하며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구 현상은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영향 속에서, 새로운 학문적 시도가 요구되는 바이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는 쓰여진 지 40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연극은 물론이고 영화와 음악, 심지어 회화의 영역에서도 상호텍스트성의 원전으로서 다채로운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당시에는 소네트가 셰익스피어와 친구들 사이에서 재미를 더하려고 회자되었을 것이라는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영화를 비롯한 여러 문화장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낭만적 애정시로 널리 알려진 소네트가 현대에 다른 장르로 전이되어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청소년이 즐기는 시트콤에서나 공상과학 영화에도 빈번하게 등장해 왔는데, 이를 받아들이는 독자와 관객들은 오히려 400년이 지나도록 계속 읽혀온 소네트의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며 특별히 연구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상호텍스트성의 원전으로서 현대의 영상매체에 미친 소네트의 영향력과 독특한 우월성은 매우 다양하게 드러났다. 첫째, 셰익스피어 소네트는 페트라르카 시풍의 전통을 사용하고 있다. 애인에 대한 애정과 이별에 대해 암흑 속에서도 보인다는 모순어법으로 설명한 제43편처럼 그의 이야기들은 애정시의 맥락을 잃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은 연인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형식으로서 소네트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I.v.92), 『끝이 좋으면 다 좋아』(*All's Well that Ends Well*)에서 헬레나(Helena)는 자기희생적 이별을 노래하며(III.iv.5), 관심 없는 버트람(Bertram)이 자신의 짝사랑을 거절하지 않기를 못내 바란다. 좀 더 구체적인 예로서 『사랑의 헛수고』(*Love's Labour's Lost*)에서 시를 통한 구애가 주요 테마로 사용되는데, 페르디난드(Ferdinand) 왕과 귀족들인 배룬(Berowne),

뒤멘느(Dumaine), 롱거빌(Longaville)은 성적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학문에 열중하기로 결심하지만, 프랑스 공주와 그녀의 여성 동행인인 로잘린(Rosaline), 마리아(Maria), 캐서린(Katherine)이 나바르 왕국에 들어오자 결심이 흔들린다. 이때 베룬은 “오 이런,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시를 읊게 되었어”(By heaven, I do love, and it hath taught me to rhyme)라고 말하고 있는데(IV.iii.217-70), 그의 연인은 소네트의 검은 여인을 연상하게 하는 외모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소네트는 위에서 보았던 애정관에 희극적 요소를 더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무엇보다도 셰익스피어의 희극이 유머와 재치가 섞인 언어들을 통해 독창적이면서도 유희적인 내용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표현해 냈다면, 셰익스피어 소네트는, 그러한 내용을 시가 지니는 함축적인 특성으로 드러내고 있다. 제125편에서 보듯이 시인은 애인에게 소박하면서 진실한 애정표현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표현하며 불만족스런 운명을 한탄함으로써 희비극적 연애상황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셰익스피어에게 있어서 진정한 애정이란 서로에게 의리를 다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겨진 경우에는 결국 무책임에 대한 비극적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단순하면서도 준엄한 애정의 속성을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많은 희비극적 연애주제는 문학과 영화 작품들의 단골 소재가 되었고, 오늘날 청소년 영상물들은 이것을 상호텍스트성의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셋째, 셰익스피어의 동성애적 경향에 대한 주장은, 오늘날 독자나 관객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류에 따라서 애증의 대상으로 여겨졌음을 보았다. 전통적인 작가로서 우월한 위상의 셰익스피어는 소네트에서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의 희곡작품과 같이 상상력에 의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을 수 있으므로, 셰익스피어의 성적 지향에 대해 각색된 작품들 속의 이야기가 그의 실제 삶과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흥미롭게도 이러한 추론은 수많은 변주작품들을 양산해내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새로운 제작을 시도하는 작품이 많아질수록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는 시어가 내포하고 있는 함축적 의미의 다양성만큼이나 여러 가지의 상호텍스트성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매력을 지닌 원전이라고

사료된다.

하지만 파트리지(Eric Partridge)가 말하듯이 미남 청년과 검은 여인, 그리고 시인의 삼각관계에서 비롯된 풍부한 성적 표현들은 대부분 남성적인 화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Partridge 159). 또한 45세에 출간된 이 시에서 시인은 스스로를 노쇠하다고 말한 것은 시의 수신자인 청년과 여성을 자신과 비교하며 느낀 감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셰익스피어가 차지해 온 엄청난 문화적 비중을 고려해볼 때, 그의 삶에 대한 정보와 추측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콘텐츠로 작용하고 있으며 비평가를 포함한 일반 독자들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해 내고, 사실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에게는 호기심을 자극하여 작품을 창조하게 하는 소재가 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소네트에 대한 동성애적 관점은, 앞서 보았듯이 학문적 내지 실증적으로 확실한 입증은 불가능하지만 청소년의 이니시에이션 주제의 맥락에서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반경이 무척 크고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넷째, 소네트에 나타난 애정관은 인간의 진정한 사랑이 이성적 판단에 따라 단순한 감각적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긴다. 즉 셰익스피어의 사랑은 실재를 볼 수 있어야만 실현가능한 것으로서 애인들은 젊음과 아름다움을 보존함을 의무로 여겨야 하며, 그 방법은 궁극적으로 결혼생활을 통해 2세를 출산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인습에 의해서 기대되는 것보다 상대방이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을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시인을 직접 주인공으로 한 영화는 물론이고, 경솔한 성적 일탈이 얼마나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되는 지를 특유의 낭만적 요소를 희생시키지 않고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다섯째, 소네트는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는 이니시에이션 맥락이 드러나는 청소년 영상물에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사실 청소년 영화에 소네트가 부분적으로만 인용되어왔던 이유는 시인의 성적 경향에 대한 논란 때문에 젊은 독자들에게 강조되지 않았던 탓이다. 그런데, 성적 경향에 따른 사랑 이야기가 소네트의 내용을 좌우하는 주제인 동시에 동성애적 맥락에서라기보다는 시인의 젊음에 대한 동경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한다. 셰익스피어에게 있어

서 사랑이란 성적 매력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우정에 가까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젊은 미남과 동침하는 과정에서 연상되는 동성애적 쾌감보다 신체적으로 더 우월한 젊은이의 아름다운 모습은 노쇠해가는 화자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기에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소네트의 페트라르카적인 낭만성과 양성적 매력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으며, 셰익스피어가 페트라르카 문체의 시를 썼을 때, 그가 시도했던 다른 모든 양식에서와 같이, 그의 우월성을 보여주면서, 셰익스피어의 희곡뿐만 아니라 소네트도 성장영화에 좀 더 많이 이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으며 고전적인 시 작품도 그것의 극적 연속성을 고찰하여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배양하는 영화작품으로 각색될 수 있고, 앞으로도 성장영화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여섯째, 이 시의 동성애와 이성애를 동시에 추구하는 양성애적 경향은 적어도 그것을 각색한 영화들에게 오히려 신비스러운 매력을 더해주고 있다. 이렇듯 시는 산문에 비해서 한 문화의 가치를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하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시의 특성을 문화적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에 입각하여 접근해보면 시 속에는 패러디화한 기법으로서 파스티슈, 추적불능의 암호, 생략, 함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텍스트성의 원전으로서 소네트는 독자들에게 사회와 문화를 연결 짓고 읽어내는 언어적 지식을 탐구하게 함과 동시에 보편적 성윤리의 교훈도 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에 시로서 희곡의 이미지를 형성해냈다면, 오늘날 영화는 운문이 지닌 함축적 메시지를 영상을 통해 극적으로 그려내는 변화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셰익스피어가 세 아이의 아버지로 그들을 부양하는데 평생 일했던 편부이었음에도 그의 성적 경향에 대한 추측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정체성과, 그리고 양성 평등과 더불어 인종의 다양성을 지향하는 미국의 정치·사회적 양상을 논제로 삼을 만큼 현대의 문화적 창작물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소네트의 화자로서 셰익스피어는 동성애와 이성애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전복시킨 결과를 낳는데, 루이스(Wyndham Lewis)는 시인이 “여성에 대한 정상적인 연애

감정을 거세당하여 어린 나이에 여성으로 변화된 것은 남성성에 상당한 효과를 주었음에 틀림없다”(To have his ‘normal’ woman-love castrated, and to be turned into a female at an early age, must have a considerable effect upon the mentality of a man)고 말함으로써 남성이 여성화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한다(153). 또한 그는 반대로 여성이 언제든지 그 성정체성을 잃어 남성화될 수 있는 가정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소네트의 상호텍스트성이 다원성으로 환원되어 영상물을 통해 전세계주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효과를 주었는데, 바로 소네트라는 텍스트의 내용에 담겨있는 주제와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특성이 존재하였다. <스타트렉>(Star Trek) 영상 시리즈는 1966년에 시작하여 2017년 현재까지 51년 동안 6세대의 TV 시리즈와 13편의 영화를 생산하여 단순한 오락물이라기보다 미국의 현대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는데, 흥미롭게도 1994년까지의 제1세대와 제2세대 작품들에 셰익스피어 문학이 주제와 인용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나, 제3세대 이후에는 점점 감소하여 사라져갔다. 이 현상의 분기점이 되는 1990년대 중반은 냉전이 종식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컴퓨터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본격화되는 시기였다.

그리고 당시의 시대정신인 전세계주의, 즉 모든 나라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세계평화를 우선한다는 사고가 만연하고 있었다. 셰익스피어 문학과 <스타트렉> 시리즈를 문학과 사회과학적 현상을 접목하여 고찰하여 본 결과 소네트는 사회윤리적으로 다원성이 강한 상호텍스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휴머니즘을 강조한 소네트의 인용이 감소됨에 따라 미국은 전세계주의 보다는 미국 제일주의로 옮겨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결국 2017년에 트럼프와 같이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웠던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게 되는, 마치 전조현상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상호텍스트성의 원전으로서 소네트를 발췌해내어 대중문화와 결합시키거나 그 속에 녹여내려는 시도가 시인의 예술성에 경의를 표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 패러디로 남용되거나 오용되어서 원래의 의미를 훼손시키며 사용되는 경우도 없지 않음을 경계한다. 그것은 처음에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시에 담고자 의

도했던 본래의 의미들이 다른 문화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그들의 문화에 들어맞게 변화된 형태가 되기도 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문화적 측면을 반영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적 양상의 전환은 다른 문화 속으로 옮겨진 셰익스피어에 대해 과거의 영국중심의 셰익스피어 연구에 건전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전망을 열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에도 셰익스피어는 그가 사용한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장소에서 생기 넘치도록 살아있다.

다른 언어로 번역된 어떤 텍스트에서 셰익스피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자 할 때, 가능한 한 원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깨닫는 순간, 그의 시대 이후, 지리적·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다른 공간과 문화 속에 투영시키고자 한 셰익스피어의 역할이야말로 묵과하고 지나쳐서는 안 될 그의 위대성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단지 셰익스피어를 본뜬 파생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와 해석을 드러내는 새로운 데이터를 구축해가는 것이며, 각 시대와 각 집단마다 그들의 취향과 문화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문화를 만날 때마다 셰익스피어는 새롭게 재평가되고 재해석되며 점점 깊이 있고 다양해진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로서 고전작품이 시대마다 새로운 요구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생산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은 셰익스피어 소네트가 상호텍스트성의 원전으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거대한 문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 I. 학술문헌

- 김은진·이건근. 「이니시에이션 스토리의 새로운 타이폴로지—『붉은 망아지』, <검은 중마>, <듀마(Duma)>」. 『인문사회과학연구』 16.2 (2015): 111-32.
- 노이균. 「중세 시대의 섹스: 동성애를 중심으로」. 『밀턴과 근세영문학』 23.2 (2013): 159-74.
- 박옥선. 『셰익스피어 소넷에 나타난 主題의 二元性』.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1990.
- 이건근. 「<스타트렉 XI: 더 비기닝>의 미국 영웅주의 복고욕망」. 『인문사회21』 8.1 (2017): 123-38.
- 이광풍. 『현대 소설의 원형적 연구』. 집문당, 1985.
- 전준택. 「미국 대중 영화의 『햄릿』 도용 양상과 그 한계」. 『셰익스피어 비평』 43.2: 349-74.
- \_\_\_\_\_. 「Getting out of the Closer and Facing a Backlash: Queering Shakespeare on Screen」. 『한국셰익스피어학회』 31 (1997): 271-91.
- 조선희. 「동성애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 『창작과 비평』 22.2 (1994): 306-15.
- 한도인. 「사랑의 주제로 본 셰익스피어 소네트」. 『현대영미어문학』 22.3 (2004): 103-17.
- 홍기영. 「셰익스피어 『소넷시집』(Sonnets)의 동성애적 해석」. 『현대영어영문학』 48.2 (2004): 189-204.
- Allen, Grahm. *Intertextuality, The New Critical Idiom*. London: Routledge, 2000.
- \_\_\_\_\_. *Roland Barthes, Critical Thinkers*. London: Routledge, 2003.(『문체적 텍스트, 롤랑 바르트』, 송은영 옮김, 베스톤 코리아, 2006.)
- Balizet, Ariane M. "Teen Scenes: Recognizing Shakespeare in Teen Films." *Almost Shakespeare: Reinventing His Works for Cinema and Television*. Eds. James R. Keller and Leslie Stratyner. Jefferson: Mcfarland &

- Company, 2004.
- Barthes, Roland. *Image-music-text*. New York: Macmillan, 1977.
- \_\_\_\_\_. *Camera Lucida: Reflection on Photography*. Trans. Richard Howard, New York: Hill and Wang, 1981.(『카메라 루시다』, 조광희·한정식 옮김, 열화당, 1998.)
- \_\_\_\_\_. *New Critical Essays*. Trans. Richard Howard. New York: Hill and Wang, 1980.
- \_\_\_\_\_. *La Plaisir du texte/Leçon*. Paris: Editions du Seuil, 1978.(『텍스트의 즐거움』, 김희영 옮김, 동문선, 2002.)
- \_\_\_\_\_. *Mythologies*. Trans. Annette Lavers. London: Jonathan Cape.(『신화론』, 정현 옮김, 현대미학사, 1995.)
- \_\_\_\_\_. *Roland Barthes by Roland Barthes*. Trans. Richard Howard. London: Macmillan, 1977.(『롤랑 바르트가 쓴 롤랑 바르트』, 이상빈 옮김, 강, 1997.)
- \_\_\_\_\_. *A Lover's Discourse: Fragments*. Trans. Richard Howard. New York : Hill and Wang, 1978.(『사랑의 단상』, 김희영 옮김, 동문선, 2004.)
- \_\_\_\_\_. *The Fashion System*. Trans. Matthew Ward and Richard Howard. New York: Hill and Wang, 1983.(『모드의 체계』, 이화여대 기호학연구소 옮김, 동문선, 1998.)
- \_\_\_\_\_. *The Rustle of Language*. Trans. Richard Howard. New York: Hill and Wang, 1986.
- Beeching, Henry Charles. *The Sonnets of Shakespeare*. Boston, MA: Ginn, 1904.
- Boose, Lynda E., and Richard Burt, eds. *Shakespeare, the Movie: Popularizing the Plays on Film, TV, and Video*. London: Routledge, 1997.
- Booth, Stephen, ed. *Shakespeare's Sonnets*. New Haven, CT: Yale UP, 1977.
- Boyd, William, writ. *A Waste of Shame*. Dir. John McKay. Perf. Rupert Graves, Tom Sturridge, and Indira Varma. BBC Four, 2015.
- Brennan, Matthew C. *The Poet's Holy Craft: William Gilmore Simms and Romantic Verse Tradition*. Columbia, SC: Univ of South Carolina Press, 2012

- Brown, Julia Prewitt. "Sunday Bloody Sunday Revisited." *CineAction* 96 (2015): 46.
- Brennan, Matthew C. *The Poet's Holy Craft: William Gilmore Simms and Romantic Verse Tradition*. Columbia, SC: Univ of South Carolina Press, 2012.
- Burrow, Colin, ed. *The Oxford Shakespeare: Complete Sonnets and Poems*. New York: Oxford UP, 2002.
- Burrow, Colin. "Editing the Sonnets." *A Companion to Shakespeare's Sonnets*. Ed. Michael Schoenfeldt. Oxford: Basil Blackwell, 2007.
- Chambers, Edmund. *William Shakespeare: A Study of Facts and Problems*. Vol. I. Oxford, UK: Clarendon Press, 1930.
- Childers, Joseph. *The Columbia Dictionary of Modern Literary and Cultural Critic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 Chute, Marchette Gaylord. *Shakespeare of London*. New York: Dutton, 1949.
- Corrigan, Timothy. *Film and Literature: An Introduction and Reader*. New Jersey: Prentice Hall, 1999.
- Cox, C. B. "Bisexual Shakespeare." *The Hudson Review* 40.3 (1987): 481-86.
- Culler, Jonathan. *The Pursuit of Signs*. London: Routledge, 1981
- Edmonson, Paul, and Stanley Wells. *Shakespeare's Sonnets, Oxford Shakespeare Topics*. Oxford: Oxford UP, 2004.
- Ellmann, Richard. *Oscar Wilde*. London: Penguin, 1988.
- Gewanter, David, and Brian Boyd. "The Survival of the Wittiest." *Times Higher Education Supplement : THE*. 26 Apr. (2012): n.p.
- Greer, Germaine. *Shakespeare's Wife*. London: A&C Black, 2009.
- Hansen, Niels B. "'Something is Rotten'." *Shakespeare and War*. Ed. Ros King and Paul J. C. M. Fransse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153-165.
- Harbage, Alfred. *Shakespeare without Words, and Other Essays*. Cambridge, MA: Harvard UP, 1972.

- Hawkes, Terence. *Meaning by Shakespeare*. London: Routledge, 1992.
- Hegarty, Emily. "Some Suspect of III: Shakespeare's Sonnets and 'The Perfect Mate'." *Extrapolation* 36.1. Ohio: The Kent State UP, 1995.
- Henderson, Diana E. "A Shrew for the Times, Revisited." *Shakespeare the movie II: Popularizing the Plays on the Film, TV, Video, and DVD*. Eds. Richard Burt and Lynda E. Boose. London: Routledge, 2003.
- Humbler, Edward. *The Sense of Shakespeare's Sonnets*. Princeton, NJ: Princeton UP, 1952.
- Iser, Wolfgang. *Prospecting: From Reader Response to Literary Anthropology*. Baltimore, MD: JHU Press, 1993.
- Keller, James R. and Stratyner, Leslie. eds. *Almost Shakespeare: Reinventing His Works for Cinema and Television*. North Carolina: McFarland Publishers, 2004.
- Kim, Eunjin and Geongeun Lee. "Two Types of Egress Based on Initiation: On The Pearl, 'Flight,' and The Forgotten Village", *The Journal of English Cultural Studies* 8.2 (2015): 75-101.
- Kristeva, Julia. *The Kristeva Reader*. Ed. Moi, Toril. New York: Columbia UP, 1986.
- \_\_\_\_\_. *Revolution in poetic Language*. Trans. Margaret Wall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시적 언어의 혁명』, 김인환 옮김, 동문선, 2000.)
- Leishman, James Blair. *Themes and Variations in Shakespeare's Sonnets*. New York: Routledge, 2005.
- Lewis, Wyndham. *The Lion and the Fox*. New York and London: Harper and Brothers, 1927.
- Marcus, Mordecai. "What is an initiation story?." *Critical Approaches to Fiction*. Eds. Shiv K. Kumer and K. Mckean. McGraw-Hill Book Company, 1968.
- Partridge, Eric. *Shakespeare's Bawdy: A Literary and Psychological Essay and a Comprehensive Glossary*. London; New York: Routledge, 1968.

- Pequigney, Joseph. *Such is My Love: A Study of Shakespeare's Sonnets*. Chicago: U of Chicago P, 1986.
- Ramsey, Paul. *The Fickle Glass: A Study of Shakespeare's Sonnets*. New York: AMS Press, 1979.
- Schalkwyk, David. *Speech and Performance in Shakespeare's Sonnets and Play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P, 2002.
- Schlesinger, John. *Sunday Bloody Sunday*. Writ. Penelope Gilliatt. Perf. Murray Head, Glenda Jackson, Peter Finch, and Peggy Ashcroft. Vectia, 1971.
- Sedgwick, Eve Kosofsky.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New York: Columbia UP, 2015.
- Shakespeare, William. *The Complete Works of William Shakespeare*. Ed. David Bevington—Update 4<sup>th</sup> ed. Addison-Wesley Longman Publishers Inc.
- \_\_\_\_\_. *The Complete Works of William Shakespeare* (The Project Gutenberg E-Book). Washington D.C.: World Library, 2011.
- \_\_\_\_\_. *The Sonnets*. Vol. 26.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df.
- \_\_\_\_\_. *As You Like It*. Vol. 33.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Shakespeare, William, and Cyrus Hoy. *Hamlet*. New York: W.W. Norton, 1996.
- Simms, William Gilmore. *The Letters of William Gilmore Simms*. Ed. Mary C. Simms Oliphant et al. 6 Vols. Columbia: U of South Carolina P, 1982.
- Stam, Robert. *Film Theory: An Introduction*. UK: Blackwell Publishers Ltd., 2000.
- Turchi, Laura, and Ayanna Thompson. "Shakespeare and the Common Core: An Opportunity to Reboot: Shakespeare's Works Should Continue to Be Prevalent in American Secondary Education, but Teachers Will Have to Improve Their Instructional Methods to Reach 21st-Century Students." *Phi Delta Kappan* 95.1 (2013): 32-37.
- Vendler, Helen. *The Art of Shakespeare's Sonnets*. Cambridge, MA: Harvard UP, 1997.
- Wordsworth, William. "Preface to the Second Edition of Lyrical Ballads." *Selected*

*Poems and Prefaces*. Ed. Jack Stillinger. Boston: Houghton Mifflin, 1965: 445-64.

Wu, Junhui, and Qingshun He. "Poetry Translation: An Intertextuality Approach."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9.1 (2014): 43-50.

## II. 영상자료

*Angelic Conversation*. Dir. Derek Jarman. United Kingdom : BIF, 1987.

*A Waste of Shame*. Dir. John McKay. BBC Four, 2015.

*By Any Other Name*. Dir. Marc Daniels, US: CBS Television Distribution, 1968.

*Hide and Q*. Dir. Cliff Bole, US: CBS Television Distribution, 1987.

*Cory in the House*. "Get Smarter"(S.1Ep.10) Dir. Rondell Sheridan. California: Disney Channel, 2007.

*Fortune and Men's Eyes*. Dir. Harvey Hart. Writ. John Herbert. Canada and the U.S.: Metro-Goldwyn-Mayer, 1971.

*My Own Private Idaho*. Dir. Gus Van Sant. US: Fine Line Features , 1991.

*My So-Called Life*. "Self Esteem"(S.1Ep.12) Dir. Michael Engler. California: ABC Productions, 1994.

*Much Ado About Nothing*, in *Shakespeare Retold* (TV drama). Dir. Brian Percival. BBC One, 2005.

*Much Ado About Nothing*. Dir. Kenneth Branagh. UK. : BBC Film, 1993.

*Romeo and Juliet*. Dir. Franco Zeffirelli. Los Angeles: Paramount Pictures, 1968.

*Romeo + Juliet*. Dir. Baz Luhrmann. Los Angeles: 20th Century Fox, 1996.

*Shakespeare: The Animated Tales*. a series of the plays of William shakespeare, BBC2 and S4C, UK/Russia, 1992-1994.

*Sorority Boys*. Dir. Wallace Wolodarsky. California: Touchstone Pictures, 2002.

*Star Trak: The Original Series*. "By Any Other Name"(S.2, Ep.22). Dir. Marc Daniels, Los Angeles: Paramount Studios, 1968.

*Star Trak: The Next Generation*. "Encounter at Farpoint."(S.1, Ep.1). Dir. Corey

- Allen, CBS Television Distribution, 1987.
- Star Trak: The Next Generation*. “Hide and Q.”(S.1, Ep.10). Dir. Cliff Bole, CBS Television Distribution, 1987.
- Star Trak: The Next Generation*. “Sins of the Father”(S.3, Ep.17). Dir. Les Landau, CBS Television Distribution, 1990.
- Star Trak: The Next Generation*. “The Naked Now”(S.1, Ep.2). Dir. Paul Lynch, CBS Television Distribution, 1987.
- Star Trek IV: The Voyage Home*. Dir. Leonard Nimoy, Los Angeles: Paramount Pictures, 1986.
- Star Trek VI: The Undiscovered Country*. Dir. Nicholas Meyer Los Angeles: Paramount Pictures, 2002.
- Sunday Bloody Sunday*. Dir. John Schlesinger. UK.: United Artists, 1971.
- Teachers*. (S.1Ep.3). Dir. Richard Dale. UK. : Channel 4, 2003.
- Ten Things I Hate About You*. Dir. Gil Junger. California: Touchstone Pictures, 1999.
- The Suite Life of Zack and Cody*. “Summer of Our Discontent” (S.3Ep.2). Dir. Rich Correll. California: Disney Channel, 2007.

### III. 인터넷 문헌

- Barthes, Roland. “The Death of the Author”, *Image Music Text* Essays selected and translated by Stephen Heath. London. Fontana Press. 1977 (<https://rosswolfe.files.wordpress.com/2015/04/roland-barthes-image-music-text.pdf>):146-148
- Blake, Aaron. “Donald Trump’s Strategy in Three words: ‘Americanism, not globalism’”,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he-fix/wp/2016/07/22/donald-trump-just-put-his-border-wall-around-the-entire-united-states/?utm\\_term=.51e69be43771](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he-fix/wp/2016/07/22/donald-trump-just-put-his-border-wall-around-the-entire-united-states/?utm_term=.51e69be43771), retrieved 2017.09.30.).

- “Initiation.” *Merriam-Webster Dictionary*,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initiation>, retrieved 2018.02.12.)
- Ganzel, Bill. “World Events from 1970 to Today”, *Living History Farm*, ([http://www.livinghistoryfarm.org/farminginthe70s/worldevents\\_01.html](http://www.livinghistoryfarm.org/farminginthe70s/worldevents_01.html), retrieved 2017.10.10.).
- The New York Times*. “Full Text of Kim Jong-un’s Response to President Trump.” *Nytimes.com*, (<https://www.nytimes.com/2017/09/22/world/asia/kim-jong-un-trump.html>, retrieved 2017.09.29.).
- Loerke, Melanie. “Shakespeare in Space: a Star Trek Towards Plurality.” Shakespeare Seminar 7, (<http://public.wsu.edu/~delahoyd/shakespeare/star.trek.html>, retrieved 2017.09.09).
- Conner, Patrick W. Shakespeare’s Sonnets to Screen. Kickstarter. Web. 11 Dec. 2017. (<https://www.kickstarter.com/projects/963738043/shakeseares-sonnets-filmed-by-jeff-monahan?ref=discovery&term&term=Shakespeare’s%20Sonnets%20to%20Screen>, retrieved 2017.09.13.).
- Kalson, Sally. “The marriage of true minds project Aims to Film All 154 of Shakespeare’s Sonnets” ([http://www.philly.com/philly/entertainment/20120419\\_Filming\\_the\\_Bard\\_s\\_sonnets.html](http://www.philly.com/philly/entertainment/20120419_Filming_the_Bard_s_sonnets.html), retrieved 2017.09.13.).
- Shakespeare, William. *Much Ado about Nothing*. New York: Sparknotes, 2004.
- Shakespeare, William. *The Sonnets*. New York: Sparknotes, 2004.
- Tillett, Emily., “Trump Warns U.S. Will ‘Destroy’ North Korea in UN General Assembly Speech.” *CBSNEWS*. (<https://www.cbsnews.com/news/trump-speech-first-address-united-nations-general-assembly-as-it-happened/>, retrieved 2017.09.29).
-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Michigan: Zondervan, 2003.
- Rosenberg, Howard. “‘My So-Called Life’: Weary Trip Through Teen Years.” *The Los Angeles Times* 24 August 1994. ([http://articles.latimes.com/1994-08-24/entertainment/ca-30485\\_1\\_so-called-life](http://articles.latimes.com/1994-08-24/entertainment/ca-30485_1_so-called-life), retrieved 2017.09.29).
- Bellafante, Ginia. “A Teenager in Love (So-Called).” *New York Times* 28 Oct.

2007. (<https://www.nytimes.com/2007/10/28/arts/television/28bell.html>, retrieved 2017.09.29).

Whittaker, Herbert. *The Globe and Mail*. (<http://www.canadiantheatre.com/dict.pl?term=Fortune%20and%20Men%27s%20Eyes>, retrieved 2018.01.03.).

“Fortune Society”, (<https://www.nytimes.com/2001/06/27/theater/john-herbert-dies-at-75-wrote-of-prison-life.html>, retrieved 2018.01.04.).